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김안국 유한구 한상근
이영대 장수명



기본연구	2010-5
보안등급	일반 과제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김안국 유한구 한상근
이영대 장수명

머 리 말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OECD국가들의 평균 청년 고용률은 40%인데,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23%로 크게 낮다.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단순히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수는 대학졸업자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대졸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학력화의 이론과 대졸 청년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이 소위 '스펙쌓기' 등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취업준비 노력들이 졸업 이후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이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대학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려워 전문대나 폴리텍으로 직업관련교육을 다시 선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전공계열 선택의 요인을 분석하고 전공계열과 대학의 특성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안국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았고, 한상근 박사, 이영대 박사, 유한구 박사, 한국교원대학의 장수명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박소영 위촉연구원이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교육정책 담당자들, 대학, 대학생들, 학부모들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 3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제2장 대졸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구조적 요인

제1절 청년층의 고학력화의 이론 · 11

제2절 청년고용과 경제활동상태의 추이 · 22

제3절 청년층 산업수요 분석 · 28

제4절 과잉 학력 및 전공-직종 미스매치 분석 · 32

제5절 소결 · 41

제3장 대학생 취업준비 노력의 실태분석

제1절 대학생 취업의 문제 · 45

제2절 취업준비활동 실태조사 개요 · 49

제3절 취업준비활동 조사결과 · 51

ii 목차

제4절 대졸 청년층 취업노력성과 분석 · 73

제5절 소결 · 85

제4장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 분석

제1절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의 선별 · 91

제2절 연구 방법 · 93

제3절 취업지원 우수대학의 조건 · 95

제4절 향후 개선방향 · 116

제5절 소결 · 121

제5장 대학졸업자의 직업 관련 재교육 선택과정과 과제

제1절 머리말 · 123

제2절 대졸 미취업자 규모의 증대 · 126

제3절 대졸 청년 미취업자의 진로와 각종 정책 · 129

제4절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 관련 재교육 선택 · 131

제5절 소결: 정책과제 · 159

제6장 대학-노동시장 이행분석-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제1절 머리말 · 165

제2절 전공선택 및 대학 수준과 인적자본의 축적 · 167

제3절 GOMS 자료와 전공선택 및 대학수준 · 173

제4절 전공선택 결정요인 · 178

제5절 전공계열 및 대학수준의 노동시장성과 · 186

제6절 소결 · 204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 207

제2절 시사점 및 정책대안 · 211

SUMMARY · 217

부록 · 223

참고문헌 · 267

〈표목차〉

- 〈표 II-1〉 OECD 시기별 고용률(15~24세) · 23
- 〈표 II-2〉 청년층 경제활동상태의 추이 · 25
- 〈표 II-3〉 청년층 취업자 감소 요인 분해 · 27
- 〈표 II-4〉 청년층 학력별 근로자수 추이 · 29
- 〈표 II-5〉 연령대별 노동수요의 변화(산업·직종 기준) · 31
- 〈표 II-6〉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 부문 취업자 규모의 추이 · 36
- 〈표 II-7〉 학력별 취업애로층의 추이 · 38
- 〈표 II-8〉 전문대졸 이상 청년의 일자리 직무와 전공의 일치 정도 · 39
- 〈표 II-9〉 대학 전공과 직종의 일치 정도 · 40
- 〈표 II-10〉 졸업 전공별 전공-직종 일치 정도(첫 직장) · 40
- 〈표 II-11〉 남녀별·학교유형별 전공-직종 일치 정도(첫 직장) · 41

- 〈표 III-1〉 표집 · 50
- 〈표 III-2〉 졸업 후 진로(전문대학) · 52
- 〈표 III-3〉 졸업 후 진로(4년제 대학) · 53
- 〈표 III-4〉 사교육 경험 · 54
- 〈표 III-5〉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횟수(전문대학) · 55
- 〈표 III-6〉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횟수(4년제 대학) · 56
- 〈표 III-7〉 내용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 57
- 〈표 III-8〉 취업준비도 자기평가(전문대학) · 62
- 〈표 III-9〉 취업준비도 자기평가(4년제 대학) · 62
- 〈표 III-10〉 취업준비활동 시간 · 64
- 〈표 III-11〉 취업준비활동 횟수(전문대학) · 65
- 〈표 III-12〉 취업준비활동 횟수(4년제 대학) · 66
- 〈표 III-13〉 취업준비활동 비용(전문대학) · 67

- 〈표 III-14〉 취업준비활동 비용(4년제 대학) · 68
- 〈표 III-15〉 학과공부시간 · 70
- 〈표 III-16〉 부업(아르바이트)시간 · 71
- 〈표 III-17〉 해외연수비용 · 72
- 〈표 III-18〉 취업준비노력에 따른 미취업기간의 탈출효과 · 79
- 〈표 III-19〉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 81
- 〈표 III-20〉 괜찮은 일자리로의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 82
- 〈표 III-21〉 첫 일자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 84

- 〈표 IV-1〉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추천한 전문가 명단 · 92
- 〈표 IV-2〉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 · 92
- 〈표 IV-3〉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 탐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항목 · 94

- 〈표 V-1〉 폴리텍과 전문대학생, 직업전문학교학생 대상 FGI 내용 · 124
- 〈표 V-2〉 폴리텍과 전문대학 교수에 대한 내용 · 125
- 〈표 V-3〉 전문대학 입학전형유형별 정원과 등록인원(2008학년도) · 132
- 〈표 V-4〉 2010년 융합형 학과별 고학력자 입학비율 현황 · 133
- 〈표 V-5〉 산업학사학위과정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경험자의 학력 · 134
- 〈표 V-6〉 기능사과정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경험자의 학력 · 134
- 〈표 V-7〉 폴리텍 및 전문대학별 재입학자들의 특성비교 · 140
- 〈표 V-8〉 폴리텍과 전문대학 입학이전의 직업활동 · 146
- 〈표 V-9〉 폴리텍과 전문대학 입학과정과 학교만족도 · 151
- 〈표 V-10〉 전문대학생의 고민내용 · 152

- 〈표 VI-1〉 대학종류별 전공계열 분포 · 174
- 〈표 VI-2〉 대학그룹별 공학계열 수능성적 비교(2003년) · 177

〈표 VI-3〉 대학그룹별 공학계열 수능성적 비교(1994년) · 178
〈표 VI-4〉 전공선택 기술통계 · 179
〈표 VI-5〉 실용적 전공(교육, 사회계열, 의학, 공학)선택 · 180
〈표 VI-6〉 MNL: 전문대학의 전공계열 선택(인문계열 기본) · 181
〈표 VI-7〉 MNL 모형: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교 계열선택 · 184
〈표 VI-8〉 2008 대졸자 경제활동상태 · 187
〈표 VI-9〉 전문대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보유 여부 (2008) · 188
〈표 VI-10〉 취업과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결정요인 · 189
〈표 VI-11〉 전문대 임금평균 · 192
〈표 VI-12〉 4년제 대학 대학교 임금평균 · 192
〈표 VI-13〉 4년제 대학 대학종류별 임금평균 · 193
〈표 VI-14〉 월소득 결정요인(회귀분석모형) · 196
〈표 VI-15〉 4년제 대학 졸업자(인문·사회계열) 월임금 결정요인 · 199
〈표 VI-16〉 4년제 대학 졸업자 월임금 결정요인 · 200
〈표 VI-17〉 4년제 대학 졸업자 월임금 결정요인 · 203

[그림목차]

- [그림 I-1]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의 분석모형 · 9

- [그림 II-1] 연도별·학교급별 학생 수 · 12
- [그림 II-2] OECD 국가 고학력화의 추세(고등교육 이수자 비중) · 12
- [그림 II-3] 교육기간의 선택과 교육시점의 선택 · 15
- [그림 II-4] 고등교육 선택의 비용과 수익 · 19
- [그림 II-5] 상대적 숙련수요의 증가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 21
- [그림 II-6]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층 인구의 추이 · 24
- [그림 II-7] 대졸 청년 노동력 수요 추세와 공급 비교 · 35
- [그림 II-8] 대기업 신규채용 추이(1993~2007) · 37

- [그림 III-1] 졸업 후 진로계획 · 51
- [그림 III-2] 취업사교육 참여비율 · 54
- [그림 III-3] 사교육비 부담 주체 · 58
- [그림 III-4] 사교육을 받는 목적 · 59
- [그림 III-5] 사교육 이외의 취업준비 · 60
- [그림 III-6] 취업준비 정도 · 61
- [그림 III-7] 취업의 성공요인 · 69

- [그림 V-1] 폴리텍과 전문대학 학생의 학년 및 과정 · 135
- [그림 V-2] 전문대학과 폴리텍 학생의 입학년도 · 135
- [그림 V-3] 폴리텍 학생의 출생년도 · 136
- [그림 V-4] 전문대학생의 출생년도 · 136
- [그림 V-5] 폴리텍 학생의 성별 및 병역필 여부 · 137
- [그림 V-6] 전문대학생의 성별 및 병역필 여부 · 137

- [그림 V-7]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학력 · 138
- [그림 V-8] 폴리텍 학생의 입학전 학교 졸업년도 · 139
- [그림 V-9]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학교 졸업년도 · 139
- [그림 V-10] 폴리텍과 전문대학생이 입학 전 직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141
- [그림 V-11]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이 직장을 못 구한 이유 · 142
- [그림 V-12]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장에 대한
만족정도 · 143
- [그림 V-13] 폴리텍 학생의 입학 전 직장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정도 · 143
- [그림 V-14]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장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정도 · 144
- [그림 V-15]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장의 전공직무일치 · 145
- [그림 V-16]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 · 145
- [그림 V-17]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에 대한 선택방법 · 147
- [그림 V-18]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 147
- [그림 V-19]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 148
- [그림 V-20]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 148
- [그림 V-21]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 149
- [그림 V-22]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에 대한 만족 정도 · 150
- [그림 V-23]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 졸업 후 희망진로 · 152
- [그림 V-24]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이 판단하는 취업의 중요요인 · 153

【요약】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고용률은 2009년 현재 40%인데,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23%로 크게 낮다.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단순히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수는 대학졸업자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졸자 이행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먼저 대졸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대학생과 대학이 취업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 대학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재선택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네 번째로 대학졸업자들이 전공계열별(혹은 대학 특성별)로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본격적인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일이며, 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청년층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데,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연구에서 대졸자가 특별히 연구대상으로 부상된 것은 2005년 이후로, 대졸 청년 노동시장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과잉교육의 문제, 대기실업의 문제와 함께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

행의 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구체적 특성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2006년 이후 다수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인턴제, 대졸자 실업경험, 공공부문 채용제도 등이 대졸 노동시장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세분화된 각론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공부, 취업사교육, 해외연수, 진로상담, 자격증 취득 및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을 위해 전문대나 폴리텍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노동시장 이행 노력의 실태와 성과에 대하여 기존연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졸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학력화의 이론과 대졸 청년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두 번째로 대학생들이 소위 '스펙쌓기' 등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취업준비노력들이 졸업 이후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세 번째로 대학이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네 번째로 대학졸업생들이 다시 전문대학이나 폴리텍으로 재입학하는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재선택 요인과 향후의 전망을 검토한다. 다섯 번째로 대학 전공계열 선택의 요인을 분석하고 전공계열과 대학의 특성(지방 사립, 국·공립, 수도권 사립)이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 대졸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구조적 요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인적자본론과 신호기제이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설로 설명할 수 있다. Ben-Porath(1967)의 모형을 가지고 청년에게 최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교육기간을 추출해 내면, 그것은 인적자본 축적효율성(+), 이자율(-), 정년(+),의 함수가 되며, 인적자본 축적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자율은 감소하였으며, 정년은 지속적으로 늘어 청년들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축적효율성이 증가해 온 것은 최근에 올수록 교육에 대한 의미부여도 많고 공부에 대한 개인들의 집중적 노력 투입, 교육제도의 발달에 힘입었다 볼 수 있다. 최근에 올수록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은 비교적 안정된 사회로 진행하면서 현재의 노력에 의해 미래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 정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교육의 투자수익 회수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교육년수를 늘리는 역할을 하였다.

수요측면에서 대졸자의 선택에 대한 논리를 제공한 것이 신호기제이론이다. Spence(1973)는, 사용자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생산성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본다. 대학교육 이수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대학졸업장은 개인의 선천적 재능을 신호(signal)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선별비용이 드는 기업은 개인적 지표 중 학력이 노동자의 능력과 우수성에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통계적 정보로 알게 된다. 이렇게 대학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신호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개인들은 대학

교육이라는 신호를 구입하려 하고(‘간판’을 따려 하고), 사용자는 선별비용을 줄이기 위해 능력의 대리변수인 대학교육에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신호기제이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학교육의 비용인데, 이 비용에는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심리적 비용(스트레스)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 들어가는 심리적 비용이 크지 않았기에 대학졸업의 시그널을 쉽게 취득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설은 고학력화의 추세를 고학력자에 대한 산업수요의 증대로 설명한다. 즉,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가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개인들의 고학력 선택을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고학력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고학력자를 활용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고학력자를 활용하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정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내생적 숙련편향가설은 더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숙련근로자가 있을 때 기업의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고학력자의 활용이 늘어나고, 대학의 투자수익율이 증가하였다고 본다.

청년고용률은 청년인구 증가율, 청년층 학력의 변화,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로 결정된다. 취업자수를 생산가능인구와 경활률, 취업률의 함수로 나타내고, 청년취업자 증가율을 청년인구 증가율, 청년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율, 청년취업률 증가율의 합으로 나타내고 요인분해를 해 보면, 청년취업자수의 변화율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청년인구 감소율이었고, 2005년부터는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를 보기 위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에서 청년층 취업의 추이를 보면 청년 일반에 대한 산업수요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학력별로는 큰 변화가 있어, 고졸 청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고,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보기 위해 Katz & Murphy(1992)의 방식으로 중·장년층에 대비한 청년층 노동수요를 추정하면 절대적 수요와 상대적 수요 모두에서 청년층의 노동수요가 중·장년층 노동수요에 비해 작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노동수요측 요인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에 노동력의 질적측면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 김대일(2004)의 방식으로 청년층 일자리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질적 수요와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적 구성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은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IMF 이후 2000~2002년 사이 대졸 청년의 과소공급이 있었지만 2003년부터는 남녀 공히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나 대졸 청년의 10% 정도는 하향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학력은 높아졌지만 학력이 높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정채되었거나 줄고 있다. 이에 대졸 청년층의 취업애로가 저학력 청년의 취업애로보다 더 커서, 2009년에는 취업애로층에 있는 대졸 청년은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전공과 직무의 일치, 객관적으로 파악된 전공과 직무의 일치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약 40% 이상이 전공과 직종이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전공이 필요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7%나 되었다.

이상 대졸 청년의 문제는 산업수요의 부족에 있지 않으며, 여타 학력에 비해 대졸 청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3년 이후 대졸 청년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하향취업의 문제와 전공직종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력화와 관련하여 대학비용 중 심리적 비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의 현상이 심한 것이 아닌가 추론되고 있다. 이에 대학의 구조조정에서 대학교육의 적정화로 인한 대학비용의 절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책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3. 대학생 취업준비 노력의 실태 분석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대학졸업생의 증가는 과도한 취업경쟁을 야기하며, 이 취업경쟁에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 이외에서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강이나 특정단계 교육프로그램, 해외연수 등의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의존한다. 이에 대학생들의 취업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어떠한 취업준비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사교육과 사교육 이외의 취업준비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취업준비노력들이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해 보았다.

실태조사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전문대학 학생의 20%, 4년제 대학 학생의 28%가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

교육에 대한 의존은 여성이나 인문사회계열에서 높았으며, 이는 취업에 불리한 계층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받는 사교육비의 연간 지출액은 전문대생의 경우 약 92만 원이고,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약 98만 원이었다. 사교육 횟수는 전문대생이 월평균 1.28개, 4년제 대학생이 월평균 1.3개였다. 계열별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예체능 계열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낮았다. 사교육의 내용으로는 영어와 자격증 취득이 많아 영어에 약 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고, 자격증의 경우 전문대생은 약 68만 원, 4년제 대학생은 약 93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은 대개 부모나 가족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이외의 취업을 위한 활동을 보면 무료취업사이트 가입, 학교취업지원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하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생의 경우 46%가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 56%가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문대학이 주당 4.7시간, 4년제 대학생이 주당 6.4시간이었다. 이에 대비되는 스스로 하는 학과공부시간은 전문대생의 경우 7.9시간, 4년제 대학생의 경우 9.4시간이었다. 해외연수의 비용으로 전문대생은 한해 406만 원을 썼고, 4년제 대학생은 861만 원을 썼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것은 보다 좋은 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가져옴을 보이고 있다. 외국의 연구는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참가자의 경제적 지위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박성재·반정호(2006)는 동일한 취업준비활동이라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노동시장에서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대졸 청년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기 위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졸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영어시험, 취업사교육,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수강 등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비율은 높지 않아 취업준비를 4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38%였고, 다수는 취업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이행기간을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기간이 짧았고, 취업사교육은 오히려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는 4년제 대학생의 경우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성적이 높을수록 이행기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성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전공에 따른 취업이 아니라 일반성이 강할 것이기에 취업이 늦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첫 취업에 대한 취업준비노력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준비노력이 앞당겨질수록 취업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사교육의 첫 취업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준비노력은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취업준비가 적극적일수록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사교육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어학연수경험과 높은 토익점수는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취업준비노력

은 정의 유의한 임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사교육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어학연수와 높은 토익점수는 취업 시 임금효과에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취업준비노력이 이행기간의 단축이나 첫 취업 확률, 괜찮은 일자리로의 입직, 임금효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사교육의 효과는 이행기간의 단축에는 분명한 음의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첫 취업 확률, 괜찮은 일자리로의 입직, 임금효과에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사교육이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취업사교육이 많은 현실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나타낸다.

4.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 분석

이 장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우수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의 성공요인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 장에서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란 첫째, 구직처 개척,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인턴십, 현장실습에 있어서 기업체와 원활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며, 셋째, 직업진로 관련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직업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핵심적 연구방법으로 심층인터뷰의 방법으로 우수사례의 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관장과 보직교수, 취업담당인력 등 대학 주요 구성원들의 역할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취업지원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였고, 기관장의 리더십, 교수와 취업담당자의 열성, 보직교수와 취업담당자의 관계 설정, 학교의 종류와 특성 등에 특히 유의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취업지원 우수대학의 조건에서 우수 취업지원조직의 조건에는 첫째, 취업지원조직이 대학 내의 위상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둘째, 취업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 번째는 취업지원조직이 능력과 열성이 있는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취업지원 우수대학을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 산학협력 중심형 대학, 취업프로그램 중심형 대학으로 나누어 파악해 보았다.

취업지원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으로는 취업교과목을 실효성 있게 강의할 수 있는 적격교수를 찾는 일의 어려움, 취업교과목 운영에서 학과교수들의 무관심 혹은 반발, 취업교과목에서 취업스킬만 연마하는 것, 취업교과목을 운영하는 인원이 소수인 것 등이 있다. 산학협력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은 인턴십과 맞춤형 교육과 같이 산학협력을 위한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것, 기업체가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보는 인식이 낮은 것, 학과교수들이 산학협력사업에 무관심한 것, 인턴십 전담인력의 없는 것 등이다. 취업 프로그램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은 외부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한 일회성 사업추진으로 이벤트성 행사로 흐르는 경향,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 프로그램 관리담당 인력의 한계 등이다. 공통적으로 전담인력의 문제, 학과교수들의 비협조, 복잡한 예산 사용절차,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부족 등이 거론되었다.

취업지원 우수대학의 성공요인으로 먼저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은 취업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 취업전담교수를 확

보하여 취업교과목 강의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 아웃소싱을 최소화하고 내부인력 활용을 최대화하는 것, 취업교과목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꾀하는 것, 학생들의 취업인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교육 등이 파악되었다. 산학협력 중심형 대학은 인턴십을 학점이나 졸업요건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있는 것, 전공별로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는 것, 실습수당과 경력 인증과 같이 참여학생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확립하고 있는 것,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것 등이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취업프로그램 중심형 대학은 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의 책임감과 헌신,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학생들과의 긴밀한 인간관계 형성 등이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지원 우수사례의 공통적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대학총장의 적극적인 취업마인드, 전담자의 순환보직 열의를 통한 장기근속과 헌신, 학과교수의 적극적 참여, 교풍을 취업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졸업생의 취업지원은 학교 규모와 종류, 학교별 전통,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과교수가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학술논문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에서 취업은 구호에 불과하다. 취업과 관련된 순수한 교비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사업에서는 큰 규모의 지출을 감행하지만 대다수 대학은 자체 교비로 취업 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는 데는 인색하다. 다수의 대학은 국고지원비를 아웃소싱 업체에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대학교육에 투자한 사람에게 걸맞은 일자리를 찾아 주는 노력을 대학이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여기에 학과교수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경력개발 책임지도교수' 혹은 '취업지도교수'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전담교수제를 확대하여 취업 관련 교과목 운영, 취업상담, 취업지원조직 관리 등을 전담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취업교과목을 확대하여 학년별로 진로, 취업 교육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선택 등 진로선택이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취업지원조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역할을 정립해야만 하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대학의 취업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이다. 다수의 대학이 취업지원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확충사업'이 실행되고 나서이다. 그러나 취업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보다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대학과교수 평가의 기준이 변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취업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켰지만, 취업 관련 용역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예산사용과 관련된 과도한 개입에 따라 대학담당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대학졸업자의 직업 관련 재교육 선택과정과 과제

대졸 청년들이 취업의 어렵기 때문에 졸업 이후나 중퇴하여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규모

만이 밝혀졌을 뿐 그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이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폴리텍과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것이 대졸 청년 노동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유턴한 대학생들의 실제 선택과정과 입학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턴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162개 전문대학과 34개의 폴리텍이다. 이들 대학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된 14개 폴리텍 캠퍼스 100명과 42개 전문대학의 320명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턴 폴리텍 학생, 전문대생과 그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대졸자의 진로는 첫째가 취업이며, 그러한 취업은 졸업자의 상당수가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대학원 진학으로 약 12%이다. 세 번째는 편입계획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문대생이 23%, 4년제 대학생이 14%가 되었다. 네 번째 진로는 유학이다. 외국유학을 원하는 4년제 대학생은 6.5%, 전문대생은 2.6%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전문대학이나 폴리텍으로 유턴하는 것이다.

대졸 미취업자가 전문대학과 폴리텍, 직업전문학교로 진학하고 있는데, 그 중 4년제 졸업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전문대학 학과는 간호학과, 보건학과, 유아교육과이다. 전문대학 모집방법 중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4,766명이며, 이외에 일반모집을 통해서도 대졸자들의 상당수가 입학하는데,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폴리텍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2년제로 정규 전문대학과정과 동일함)과 기능사과정(1년 혹은 6개월 과정)이 있다. 이외에도 2010년에는 융합형 교육훈련시스템인 크로스오버 과정이 9개 학과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학문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으로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크로스오버 시범운영학과의 대졸자 입학률은 평균 78%에 달하고 있다. 폴리텍에는 이외에도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맞춤훈련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2010년 폴리텍의 산업학사학위과정으로 유턴한 경우는 749명이다. 폴리텍의 기능사과정으로 유턴한 경우는 2,850명으로 입학정원의 48%가 되고 있어 매우 큰 비중이다. 이 기능사과정으로의 유턴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의 비중은 극히 작다. 이들의 입학은 수시모집보다는 정시모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유턴한 대졸 청년들이 재학중에 취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는 폴리텍의 경우가 63%, 전문대의 경우는 32%가 되어 폴리텍에 가는 청년들이 보다 빨리 취업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직에 실패한 이유로는 '일자리와 전공에 맞지 않아서', '자격증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유턴 대졸 청년들의 경우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한 경우가 평균 2.8개로 나타났다. 그 일자리에서의 불만은 업무에 대한 불만보다 직장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리텍 유턴자들은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직장의 안정성, 전문대 유턴자들은 복지후생,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안정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유턴한 청년들의 이전 직장과의 불일치 정도는 약 40% 내외로 높았다. 이전 직장 이직 이유로는 직장의 발전전망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해서(폴리텍), 적성에 맞지 않아서(전문대)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유턴 시 대학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취업전망과 본인의 적성과 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역시 취업전망과 본인의 적성과 희망,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한 폴리텍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만족은 크게 높아 각각 73%, 63%였고,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크게 높아 각각 78%,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래의 취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아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을 결정한 경우가 폴리텍은 53%, 전문대는 75%나 되었다. 그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장래성과 안정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 유턴자와 관련하여서 보면 대졸 미취업여성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취업이 어려운 집단이 대졸 여성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폴리텍을 중심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전문대 유턴자들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배운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의 폭을 늘려야 한다. 폴리텍 유턴자와 전문대 유턴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이 연령제한에 걸려 신입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에게는 심리적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생활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생활지도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6. 대학-노동시장 이행분석 -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

이 장은 대졸 청년의 이행성과를 전공계열별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되 대학의 수준별 차이도 밝히고 계열선택의 결정요인도 분석한다.

미국의 연구들은 임금 또는 소득효과가 전공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공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성과가 제한적인 것이 대학교육의 인적자본 형성 역할보다는 대학의 선별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전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을 수 있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단계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우수한 잠재역량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현장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숙련(전문적 숙련)을 강화시켰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의 성숙단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분화된 숙련을 입직단계부터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공선택의 결정요인, 전공별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본다. 전공별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아르바이트, 해외연수, 취업준비 등 전공에 비교하여 부수적인 인적자본 축적도 전공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분석한다.

이제까지 대학의 수익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임금 프리미엄에서 중요한 요소는 대체로 전공과 대학의 수준(품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인적자본론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인적자본의 교육년수와 같은 양적 지수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학교와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4학기(전문대)나 8학기(4년제 대학)에 걸쳐 다른 전공을 선택한 사람의 인적자본의 내용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전공 내에서 대학의 수준은 대학교육의 품질에 따른 인적자본의 질, 이후 개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전공선택은 그 전공의 선택이 가져오는 효용이 다른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때의 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공선택을 프로빗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대학졸업자직장이동경력조사(GOMS)이다. 실용적 전공의 선택 여부를 프로빗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보다 실용적

인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이과학생들이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고졸자들에 비해 지방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각 전공선택의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문대의 경우 여성이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지방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의학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문과였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을 선택하고 있고, 지방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문계열보다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전공선택에서 보면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며, 대학의 전공계열 선택의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때의 고등학교 종류와 계열 및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상업계 고등학교 계열의 선택이 다양한 반면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체로 관련 분야의 전공계열을 선택한다. 이렇게 고등학교 종류와 계열의 중요성은 이를 결정하는 시기의 진로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성과를 취업과 4대 보험 보장 일자리로의 취업, 그리고 월평균임금으로 파악해 보았다. 취업과 4대 보험 일자리 여부에 대한 프로빗 분석은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이 인문계열과 비교해 뚜렷한 양의 효과를 갖는다. 인문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예체능계열은 4대 보험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방 사립대학교와 비교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성고가 높았다. 전공선택의 임금효과를 보기 위해 임금방정식을 회귀분석하였다.

2006년과 2008년 두 개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계열별 평균임금의 차이는 매우 컸다. 그리고 계열별로 임금증가의 차이가 컸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평균임금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SUR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은 인문계열보다 7~8%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의학계열은 약 17%의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의학, 교육, 공학, 사회계열의 순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수준별 임금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소재 사립대, 교육대학의 졸업생이 지방 사립대학교 졸업생보다 크게 높은 임금을 받았다. 성적은 2006년의 경우 다소 큰 영향을 미쳤지만, 2008년에는 그 효과의 크기가 줄고 유의성도 사라졌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2006년과 2008년 모두 성적의 임금효과가 크고 유의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은 임금에 부정적 효과가 있으며, 취업준비기간, 취업사교육, 해외연수와 자격증은 임금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전공계열별로 회귀분석을 하면 대학범주의 효과가 서울 소재 대학만 차이가 있는 경우(예체능), 대학 범주별 차이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의약계열), 그리고 서열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우(공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성적의 경우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계열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취업준비기간은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에서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에서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해외연수는 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계열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전공에서는 대체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장에서는 대졸자 개인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고임금의 획득은 전통적인 인적자본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대학의 수준, 전공, 대학의 성적 등이 취업, 안정적 일자리 확보, 고임금 획득에 가장 일관적이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의 수준과 전공계열 선택에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 대학과 전공이 선택된 후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교육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대학의 계열이 일자리 확보와 임금에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 계열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는 고등학교 계열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택과 계열선택은 중학교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다양한 계층들이 충실한 인적자본 축적을 형성할 기회를 갖는 고등학교-대학, 고등학교-현장숙련, 고등학교-전문대학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초기의 집중적인 진로상담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열별 특성에 따른 보조적 인적자본축적 기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문계열의 복수전공, 임용고시를 위한 사범계열 학생들의 시험준비, 해외연수의 효과가 있는 전공의 해외연수 등이 그것이다.

7. 결론 - 시사점 및 정책대안

현재 대졸 청년층 고용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고학력화의 결과로 인한 공급 과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화의 진행은 교육제도의 발달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적자본 축적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줄고 서비스업이 늘고 등 전반적으로 일에서의 청년이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의 정책은 이러한 고학력화에 맞추어 가는 경제정책, 즉 고학력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의 심리적 비용이 크지 않기에 현재 대학교육 이수자가 크게 늘어 왔으며, 이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심리비용의 제고에 의해서 제어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인적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제고되고, 대학생들의 심리적 비용이 커진다면, 개인들의 고등교육 선택도 줄어들 것이며, 전공을 살리는 취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의 과잉공급은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학력의 신호기제가 무력화되게 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학력 외의 여러 가지 신호를 구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소위 '스펙쌓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취업준비 사교육은 노동시장 이행에 그다지 유효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의 학력이 능력을 나타내는 적절한 신호가 되도록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스펙쌓기' 등의 여타 신호를 얻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신의 전공공부에 힘쓰게 함으로써 각기 전공에 따른 인적자본을 충분히 형성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노력은 노동시장 이행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준비노력이 이룰수록 그러한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대한 인식 및 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직업 및 취업진로와 관련되는 교과목을 신입생들에게 제공하여, 일찍부터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대학생들의 취업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대학은 취업지원을 위해 진정성 있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총장이나 학과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취업전담교수제를 확대하고 취업교과목과, 취업지원조직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학의 취업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보다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 대학에서 핵심적 문제라면, 여기에 맞게 대학과교수 평가의 기준 또한 변화시켜야 한다. 대학평가에서 취업과 관련된 요소들이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나 폴리텍으로 재입학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너무 많은 대학교육의 선택이 있었던 것과 함께, 대학에서의 교육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대나 폴리텍으로 재입학한 학생들이 상당한 만족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대학선택이 애초에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고등학교에서의 직업 관련 진로의 선택에 대한 교육을 정규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전공별, 수준별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을 때 노동시장 이행의 성공요인은 전통적인 인적자본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

타난다. 즉 대학의 수준, 전공, 대학의 성적 등이 취업, 안정적인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의 획득에 가장 일관적이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이 정상화되어 대학교육만으로도 전공별 충분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수준과 전공은 고등학교 계열에서 많이 결정되며, 고등학교 계열은 중학교 때 결정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집중적인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 학문을 통한 직업경로, 직접적인 직업경로 등의 설계를 중학교 단계에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직업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부실화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추려서 소수의 정예 졸업자를 배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의 마이스터고 실험이 어떻게 결과를 맺을 것인지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계열별 고등학교→직장 혹은 고등학교→대학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는 대학 선택과 졸업에 따른 대졸 청년의 공급과잉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대졸 청년의 고용대책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린다. 단순한 숫적인 감소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심리적 비용을 높여서 고학력 선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처럼 대학의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해야 하며, 부실대학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인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시제와 함께 인증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러한 정보공시와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킬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퇴출과 함께 인수합병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합병된 캠퍼스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합병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졸 청년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관계가 주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서 가치를 이전하여 렌트를 갖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발전에 원천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또한 좋을 수 없고, 중소기업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대졸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원가를 보장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납품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자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도와주는 못하더라도 막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졸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제1장 서론

김안국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9월 현재 20~29세 실업률은 7.2%이지만, 비경제활동비율이 37.8%이므로, 고용률은 57.7%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실업률도 한 자릿수이지만, 청년층의 비경활비율(유휴화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도 작은 것이 아니다. OECD(2010)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고용률은 23%로, OECD 평균 32.5%보다 많이 낮아 34개국 중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청년고용의 문제는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청년층 고용문제는 단순히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 청년들의 다수는 대학졸업자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용이하지 않고, 초기 일자리의 이력이 지속되면 이후 직장경력 형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선행연

구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대학교육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한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고, 직장경력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재는 물론 청년의 향후 생애에도 불이익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자원의 낭비라 볼 수 있다. 원활하지 않은 청년 노동시장 이행은 청년층의 높은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일에 전념하지 않는 독특한 직업의식을 갖게 하여 지속적으로 낮은 소득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학력화가 단기간에 일어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근본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졸 청년인력의 초과공급으로 설명된다. 또한 대졸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는 경력직 채용으로 설명된다.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견지에서 과잉교육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대졸 청년층에 대한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초과인지의 여부는 실증의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대학시절부터 졸업한 이후까지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및 경력형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행의 근본적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이 단순히 대학생들의 과잉공급에 있는 것인지, 대학생과 대학에서 취업을 위해서 벌이는 노력들은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인지, 또한 졸업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 다시 받는 대졸자의 교육훈련은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학 전공계열별로 교육경험과 교육품질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를 구체적 사례와 자료검토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대졸자 노동시장의 현황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대학생과 대학이 취업준비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 대학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재선택의 현

황을 파악하고, 대학교육의 문제를 점검한다. 네 번째로 대학졸업자들이 전공계열별(혹은 대학특성별)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얻는 다양한 교육경험이 노동시장 경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원활한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여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에 일조하고, 특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행노력의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조장, 대졸 청년고용 문제의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선행연구

본격적인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일이며, 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연구는 1990년대부터 OECD 국가들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 Stern & Wagner(1999)가 선진국들의 청년노동시장 및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Blanchflower & Freeman(2000) 역시 OECD 국가들의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과 청년들의 유희화 및 그 대책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Ryan(2001)은 청년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의 국가별 검토·비교를 통해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최근에 Quintini et al.(2007)은 OECD 국가들에서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을 관찰하고 이행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과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이 갖는 임시직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후 청년층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이병희 외(2002)는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과 직업세계 정착과정을 연구하였고, 채창균 외(2002)는 학교와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 측면을 연구하였다.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연구는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보다 심화되었다. 이병희(2003)는 이행의 측면이 아니라 IMF 이후 청년층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을 검토하였고, 채창균 외(2004)는 학교유형별로 교육훈련과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을 분석하였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최영섭(2003)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기업의 단기주의적 채용관행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시장 분단, 그리고 기업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의 적응력 부족에서 찾았다.

5.31 개혁 이후 대학진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전병유·이상일(2003)은 고졸 청년의 고용 현황과 실업 문제가 심각함을 보였고, 정인수 외(2006)는 청년 실업대책을 특히 고졸 청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채창균 외(2008)는 유휴청년의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였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에서 대졸자가 특별히 연구대상으로 부상된 것은 2005년 이후로, 단순하게 청년 노동시장 이행 연구의 외연이 넓어진 것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졸 청년 자체의 노동시장이 문제가 되면서 과잉교육, 대기실업의 문제와 함께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병희 외(2005)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청년층 고학력화에 따른 투자수익 및 학력과잉 문제, 이공계 기피 및 지방대생 노동시장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채창균 외(2005, 2006)와 김형만 외(2007)는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대졸자 노동이동, 기업의 대졸 사원 채용실태 및 대학서열화 문제, 대학생 현장실습, 대졸 신입사원 교육훈련 문제, 고등교육투자와 노동시장 성과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 정주연 외(2006)는 대학생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유럽 국가와 비교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윤진호 외(2008)는 대학졸업자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대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점검하였다.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구체적 특성들을 연구한 분석들이 2006년

이후 다수 등장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노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본 박성재·반정호(2006)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3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대학에서 청년들이 어떠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노력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검토하였다.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공의 요인으로 구직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장지현(2006)은 정보획득경로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성고가 다를 것을 분석하였다. 이공계 여대생의 이행을 본 임정연·이영민(2008)은 4년제 이공계 여학생의 직업준비과정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인턴제가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상준, 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에 낙인효과가 있는지(강순희, 2010), 공공부문 채용제도가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오호영, 2010) 등의 세분화된 각론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연구들은 주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이행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이거나 이행과정을 매우 단순화해서 고찰하고 있다. 또한 대학졸업자들의 노동시장 경력형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전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공 및 대학특성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루는 연구는 적었고, 또한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1개년 경찰자료(월연결패널자료: 이병희, 2003), 대졸자 노동이동조사 자료(채창균 외, 2005), 청년패널자료(윤진호 외, 2008) 등이 갖는 한계가 있었다. 즉 시계열의 제약 혹은 표본의 대표성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서 학과공부(대학원 및 부전공선택 포함) 이외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취업을 위한 시험공부(공무원 시험 포함), 취업 사교육, 해외연수, 진로상담, 자격증 취득 및 교육훈련 등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 또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구직정보의 제공 및 산학협력의 활성화(좋은 기업으로의 학생 추천제 포함)를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에 차이가 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을 위해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요즈음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상의 다양한 노동시장 이행 노력의 실태와 성과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졸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학력화의 이론과 대졸 청년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대졸 청년의 고용 현황과 취업애로층의 추이, 고용애로의 요인 분석,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 산업수요 분석, 4년제 대졸 청년의 수급 분석, 대졸 청년취업자의 직무전공 일치의 정도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 대학생들이 소위 '스펙쌓기' 등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대학유형별, 전공별, 지역별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대학생 때의 이러한 취업준비 노력들이 졸업 이후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세 번째로 대학이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유형별로 파악한다. 여기에는 취업성과가 좋은 대학들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홍보한다.

네 번째로 대학졸업생들이 다시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대학 등으로 재입학하는 숫자가 늘고 있는데, 최근의 추이와 현황을 학력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 재입학자들의 이전 산업과 직업, 근무조건 등을 분

석하여 어떤 요인이 이들로 하여금 직업과 관련한 재교육을 선택하게 하였는지, 아울러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를 점검한다.

다섯 번째로 대학의 전공계열 선택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전공계열과 대학의 특성(지방 사립, 국·공립, 수도권 사립)이 졸업생들 노동시장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등학교 선택으로부터 대학의 전공선택, 대학 이후의 노동시장 정착과정을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연구에서 나온 결론 및 함의들로부터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정리하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각 주제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모형화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황 및 이론 분석, 청년층의 고용 및 경제활동상태 추이, 취업애로 청년층의 비중 추이,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 분석,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 및 하향취업의 정도, 전공과 직종의 불일치 등을 실증하는 부분이 보고서의 2장에 해당한다.

대학에서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기본적인 전공공부를 하고 있지만, 취업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공공부 외에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며 사교육을 받기도 한다. 얼마나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취업준비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보고서의 3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등에서는 취업지원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취업지원노력으로 졸업생들의 취업성과는 달라지게 되는데, 우수한 취업지원사례를 모아서 유형별로 파악하고, 취업지원노력의 성공요인을 추출해 낸 것이 보고서의 4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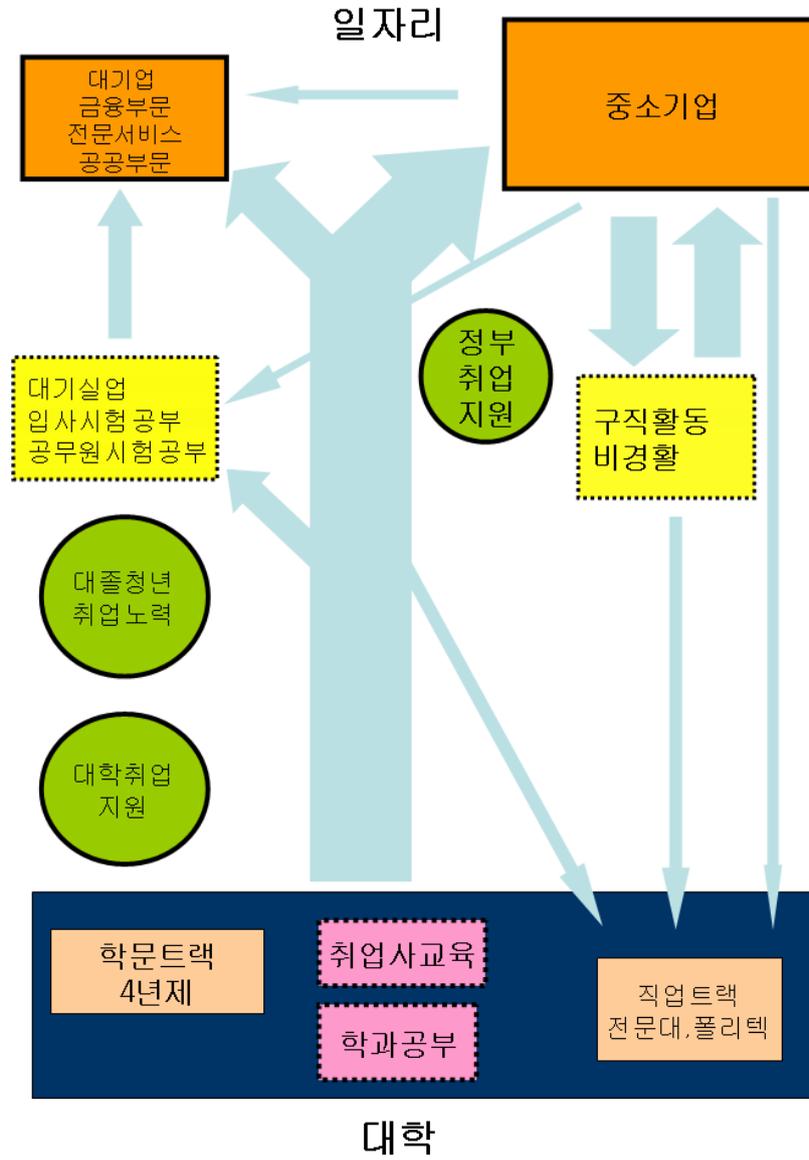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였지만 근무환경에 불만이 있는 경우, 취업하였다가 실업상태에 빠진 경우 등 보다 확실한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이수하거나 중퇴하고 전문직업교육을 다시 받기 위해 전문대나 폴리텍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현황과 그들의 특성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한 것이 보고서의 5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대학생들은 괜찮은 일자리인 대기업과 금융부문, 전문서비스,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위해 대기실업 중이거나 각종 시험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대학의 전공별·특성별 취업성과와 괜찮은 일자리에 안착하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보고서의 6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요약하고 대학생들이 벌이는 노력, 대학에서의 취업지원노력, 정부의 대졸 청년 취업지원노력 등에 대한 각각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부분인 7장에 해당한다.

[그림 I-1]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의 분석모형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특히 두드러진 청년층 고학력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해 인적자본론, 신호기제이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설 등의 이론을 연구문헌 정리를 통해서 검토한다. 대졸 청년 노동시장을 실증적으로 보기 위해 통계청의 경찰자료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 대졸 청년 취업의 미스매치를 보기 위해 미래의 직업세계 자료 및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로 약칭)를 활용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대학생들의 재학 중 ‘스펙쌓기’ 현황 파악에는 대학 2~4학년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노력의 다양한 현황을 파악한다. 스펙쌓기 등 재학 중 취업노력이 어떠한 노동시장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GOMS 자료를 활용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보기 위해 먼저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우수사례를 전문가 진단으로 추출한다. 이러한 우수사례의 대학을 찾아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며, 사례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활용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직업교육(전문대나 폴리텍 대학)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교육통계자료, 폴리텍 대학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의 취업사향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한다. 아울러 심층적 원인 파악을 위해 그룹 집중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대학전공별, 특성별로 대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과 경력형성을 보기 위해 GOMS 자료를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여기에 진학사의 수능자료를 결합하여 대학입학성적을 통제한 가운데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한다.

제2장 대졸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구조적 요인

김안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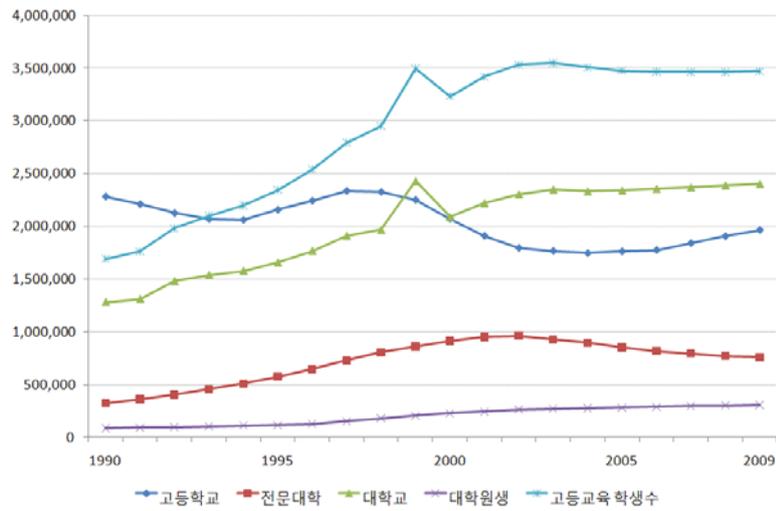
제1절 청년층의 고학력화 이론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에서 대졸자의 지속적 증가는 특히 청년층에서의 고학력화에 기인한다. [그림 II-1]에서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느는 추세지만 그 이전과 비교하면 20만 명 정도가 줄은 상태이다. 전문대학 학생수는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다가 그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청년층에서 대학교육의 이수가 늘어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음 [그림 II-2]에서 보면 독일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젊은 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은 중고령 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보다 훨씬 높다. 즉, 20년 이전과 비교하여 대학교육을 마친 사람의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대학교육 이수자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거의 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1] 연도별 · 학교급별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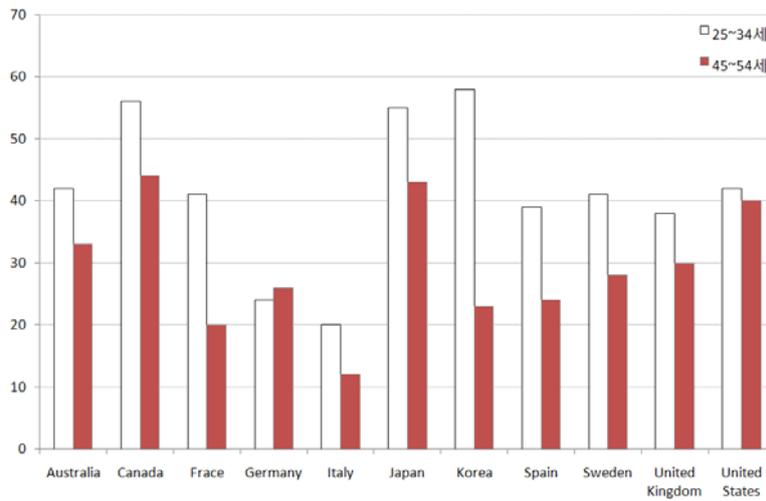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II-2] OECD 국가 고학력화의 추세(고등교육 이수자 비중)

(단위: %)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이렇게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고학력이 더 높은 소득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져다주기 때문일 수 있다. OECD 자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실 중 하나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경제활동비율과 소득은 높지만, 실업률은 낮은 것이다. 경제이론적으로 청년의 고학력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인적자본론과 신호기제이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설이 있다.

1. 인적자본론

인적자본론은 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등의 인적자본이 개인에게 축적되어 그러한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론 이론화의 초기에 나온 Ben-Porath(1967)의 모형을 단순화해서 설명해 보자.

먼저 t 년의 인적자본을 $h(t)$ 라 하면 인적자본 증가를 식 (1)과 같이 t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 \quad dh(t)/dt = \theta h(t)$$

여기서 θ 는 교육에 임하는 태도 및 자질(지능지수)라고 할 수 있고, 교육이 있을 때 그것이 인적자본으로 체화되어 축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즉 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정비례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진 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즉, $h(t)$ 의 인적자본을 가진 자는 $Ah(t)$ 를 생산하고, 그만큼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일정한 시점인 t^* 기에 교육을 x 의 기간만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t^* 기의 인적자본의 증가는 다음의 식 (2)와 같다.¹⁾

1) 식(2)는 미분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즉 a 와 c 가 일정한 상수일 때 $dy/dx + ay = 0$ 인 경우.

$$(2) h(t^* + x) = h(t^*)e^{\theta x}$$

여기서 $e^{\theta x}$ 는 교육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증가분이다. 교육비용이 없다고 하고 정년이 T 인 사람의 (이자율 r 로) 할인된 생애소득의 기대가치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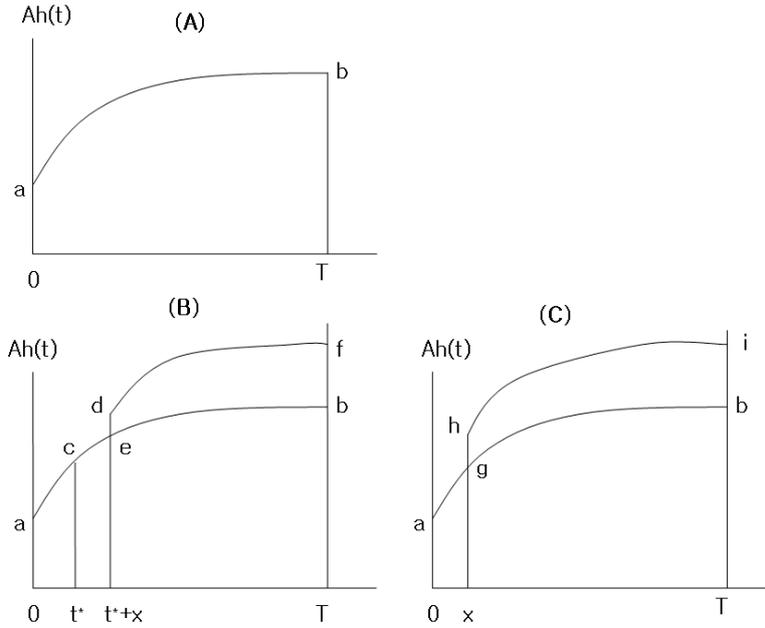
$$(3) \Omega = \int_0^{t^*} Ah(t)e^{-rt} dt + \int_{t^*+x}^T Ah(t^*)e^{\theta x}e^{-rt} dt$$

이를 그림으로 보면 보다 분명하게 설명된다. 다음 [그림 II-3]의 (A)는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의 생애소득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B)는 t^* 의 시점에서 x 기간만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생애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0 의 시점에서 일을 선택하면 $0a$ 만큼 생산성이 있고, 교육받는 중에 생산은 없다고 가정한다.

만일 t^* 시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림의 (B)에서 $0act^*$ 와 t^*+xdfT 의 넓이가 그림 (A)의 $0abT$ 보다는 커야 하고, 그 차이를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다. 만일 교육으로 포기한 t^*cet^*+x 의 크기보다 교육으로 얻어진 $edfb$ 의 크기가 크다면, 이 사람은 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여기서 de 의 크기는 x 기간 동안의 교육에 의해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그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의 결과이다.

$y(x) = ce^{-ax}$, $dh/dt - \theta h = 0$ 인 경우, $h(t) = ce^{-\theta t}$ 가 되며, 여기서 $t = t^* + x$ 를 대입하면 $h(t^* + x) = ce^{\theta(t^* + x)} = ce^{\theta t^*} e^{\theta x} = h(t^*)e^{\theta x}$ 가 된다.

[그림 II-3] 교육기간의 선택과 교육시점의 선택



그러면 이 사람의 최적 교육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t^* 가 기대생애소득가치인 식 (3)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시간 x 의 값은 위 식 (3)의 1계조건의 풀이에서 구해진다. 1계 조건을 풀면 식 (4)를 얻게 된다.

$$(4) \frac{\partial \Omega}{\partial x} = \frac{Ah(t^*)}{r} e^{\theta x} [(\theta - r)e^{-r(t^*+x)} - \theta e^{-rT}] = 0$$

이 식을 풀면 $x = \frac{1}{r} \ln\left(\frac{\theta - r}{\theta}\right) + T - t^*$ 가 된다.

그런데 $t^* = 0$ 에서 교육으로 인한 기대수익은 최대가 된다. 즉, 식 (4)를 t 에 대해 미분하면

$$\frac{\partial \Omega^2}{\partial x \partial \tau} = \frac{Ah'(t^*)}{r} e^{\theta x} [(\theta - r)e^{-r(t^* + x)} - \theta e^{-rT}] + \frac{Ah(t^*)}{r} e^{\theta x} [(-r)(\theta - r)e^{-r(t^* + x)}]$$

이고, 우변의 첫항은 0이 되므로 $\theta > r$ 이면 $\frac{\partial \Omega^2}{\partial x \partial t^*} < 0$ 이 된다. 즉 t^* 가 0보다 더 크면 교육의 기대수익은 떨어지게 된다. 이에 $t^* = 0$ 에서 최대의 기대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림 II-3]의 (C)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직관적으로도 생애 초기에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교육으로 잃게 되는 (B)의 $t^* e^{r t^*} + x$ 의 부분이 없게 되고, 교육으로 인해 높아진 인적자본의 생산성 증가효과를 가장 길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교육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x 의 값은 식 (5)와 같이 된다.

$$(5) \quad x = \frac{1}{r} \ln \left(1 - \frac{r}{\theta} \right) + T$$

즉, 최대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교육기간은 θ , r , T 의 함수가 된다. 우변의 첫항은 음수이다. 이들의 작용을 각기 보면, 먼저 인적자본 증가의 효율성인 θ 가 증가하면 자연로그 괄호 내의 값이 커지게 되고, 자연로그의 음의 값이 작아지게 되어 교육기간 x 가 늘어나게 된다. 다음으로 이자율(현재 선호율) r 의 값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로그 괄호 내의 값이 커지게 되고, 그 부분이 r 이 작아짐으로써 할인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정도를 넘어서므로 교육기간 x 가 늘어나게 된다.²⁾ T 의 값이 늘어나면 교육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즉 θ 의 증가, r 의 감소, T 의 증가 추세로 인해 교육년수가 증가하여 왔다.

이상의 인적자본론이 갖는 함의를 보자. 교육을 했을 때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효율성인 θ 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최근에 올수록 교육에 대

2) 이는 몇 가지 표준적인 값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다음의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 의미부여도 많고, 공부에 대한 개인들이 집중적 노력투입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동시에 교육제도가 발달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교육의 인적 자본 축적 효율성이 증가해 온 것에 기인한다. 교육기자재의 발달 역시 교육의 인적자본 축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을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컴퓨터의 활용은 교육의 인적자본 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 효율성 θ 의 증가와 함께 교육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최근에 올수록 이자율(현재선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던 것도 교육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자율의 감소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투자 등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져 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 이에 사람들의 미래선회가 높아지게 되었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정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교육의 투자수익 회수기간이 늘어나게 하였고, 이것이 교육년수를 늘리는 역할을 하였다. 즉,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점차 줄어들어 직장생활의 총 기간이 늘어났으며,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은 점차 기계로 대체되어 왔다. 동시에 제조업이 쇠퇴하고 여타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확

〈표〉 표준적인 값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θ	r	T	x
0.07	0.065	50	9
0.07	0.06	50	18
0.07	0.055	50	22
0.06	0.055	50	5
0.06	0.05	50	14
0.06	0.045	50	19
0.055	0.05	50	2
0.055	0.045	50	12
0.055	0.04	50	18

대되었다. 이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의 고등교육자 비중이 제조업 국가보다 높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학력을 요구하는 금융업, 사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2. 신호기제이론

이러한 인적자본론은 노동공급의 주체 측면에서 대학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의 대졸자의 선택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신호기제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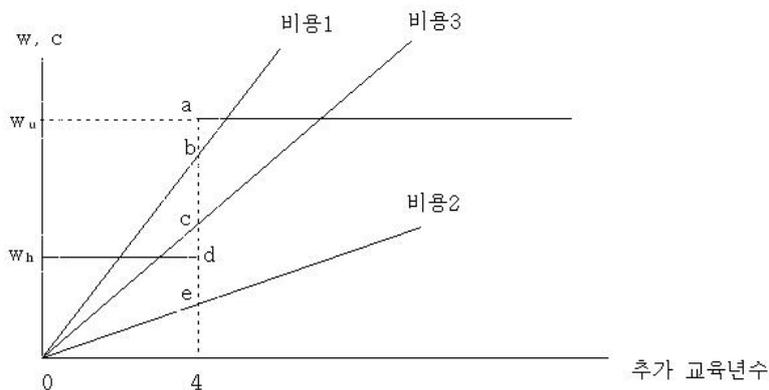
Spence(1973)는 사용자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생산성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본다. 그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여 하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노동시장에서는 학력의 지표에 반영하여 고졸자는 w_h 의 임금, 대졸자는 w_u 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개인들은 추가로 4년의 대학교육을 더 받을지, 취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자.

[그림 II-4]에서 비용1의 곡선을 가지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4년간의 교육의 비용이 $4b$ 만큼 들어간다. 그런데 대학교육을 받고나서의 이득은 ab 만큼이고, 이는 고졸 취업시 받는 w_h0 보다 적기 때문에 4년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용2의 곡선을 가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w_h0=ac$ 라면 4년 공부를 추가하여 ce 만큼의 이득을 더 거두게 된다. 이에 비용2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비용곡선이 비용3 아래에 위치하는 개인들은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학교육을 택하며, 비용곡선이 비용3 위에 위치하는 개인들은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학교육 이수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대학졸업장은 개인의 선천적 재능을 신호(signal)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선별비용이 든다. 즉, 능력 있고

우수하며 직장에 오래 있으려는 성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나, 이러한 성향들은 채용시점에서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기업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성, 나이, 경력, 학력 등의 개인적 지표뿐이다. 사용자는 개인적 지표 중 특히 학력이 노동자의 능력, 우수성 등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다년간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의해 알게 된다. 즉, 위의 [그림 II-4]에서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비용3 아래의 비용곡선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의 선별가설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들은 대학이라는 졸업장을 취득하여 자신이 유능한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하며, 이러한 교육투자는 개인들의 신호에 대한 투자가 된다.

[그림 II-4] 고등교육 선택의 비용과 수익



이렇게 대학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신호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개인들은 대학교육이라는 신호를 구입하려(‘간판’을 따려) 하고, 사용자는 선별비용을 줄이기 위해 능력의 대리변수인 대학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신호기제이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의 비용이다. 이 비용에는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심리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 들어가는 심리적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학생들은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모두 졸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의 간판(시그널)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이러한 연유로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3.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설

대학교육 선택이 늘어난 것에는 대학교육의 비용이 줄었다는 점 외에도 대학교육의 수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고학력화의 추세를 높은 대학투자수익률을 가져온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의 이유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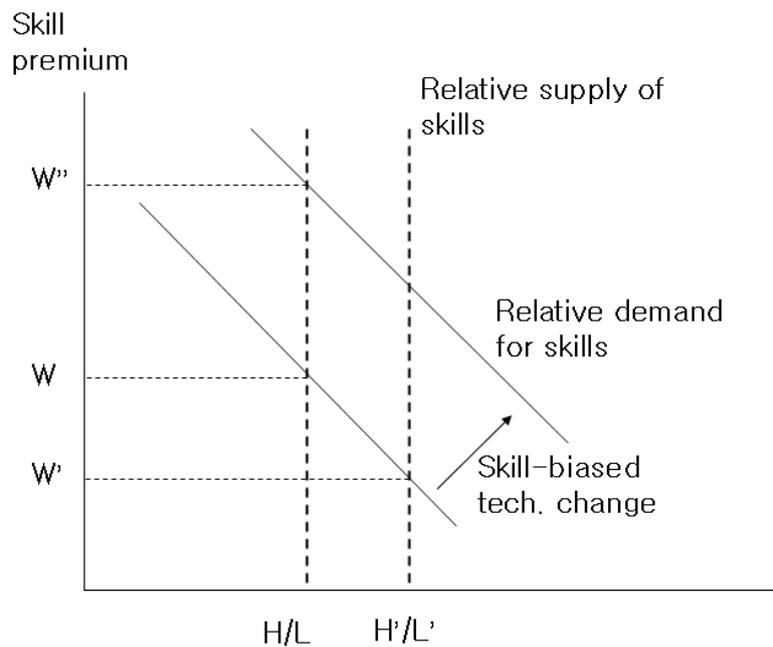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설은 고학력화의 추세를 고학력자에 대한 산업수요의 증대로 설명한다. 즉,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가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개인들의 고학력 선택을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고학력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고학력자의 활용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고학력자를 활용하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정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II-5]와 같다.

다수의 기존연구는 기술변화와 함께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Katz & Autor, 1999).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지속수요가설과 가속화가설, 그리고 내생적 숙련편향가설 등이 있다. Acemoglu(2002)에 의존해 이 이론들을 설명해 보자.

지속수요가설은 기술발달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이수자의 공급은 다른 비율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프리미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최근 들어 숙련편향의 기술변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림 II-5] 상대적 숙련수요의 증가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가속화 가설은 기술진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컴퓨터의 역할을 예로 들고 있으며, 1970~1990년대가 이전에 비해 숙련공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프리미엄 또한 늘었으며, 교육투자수익률의 잔차분포가 1970년대 이후 더욱 커졌음을 증거로 내세운다. 이 이론의 약점은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만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내생적 숙련편향가설은 기술의 숙련편향 혹은 숙련배제 자체가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며, 채택되는 기술의 형태들이 이윤동기와 수요결인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즉, 숙련편향기술의 발전은 더 넓은 시장을 가

지고 있을 때와 더 많은 숙련근로자가 있을 때 이윤의 가능성의 증대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대학투자수익률의 반등 및 지속적 증가 추세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가설이다. 그러나 아직 학계 내에서 정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반론도 만만치 않다(Lemieux, 2006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투자수익률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대학투자수익률이 대체로 1990년대 중반부터 반등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대학투자수익률은 5~8% 정도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를 일정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청년고용과 경제활동상태의 추이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표 II-1>은 OECD 주요국가들의 청년고용률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고용률은 2009년 현재 약 40%인데, 우리나라는 23%로 크게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는 30%를 넘는 청년고용률을 보이다가 IMF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9년에는 거의 10%p 정도 하락하였다.

청년고용률은 청년층의 인구증가율과 청년학력의 변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로 결정된다. 먼저 주지하듯이, 청년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청년층 취업인구 자체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림 II-6]은 청년층의 취업인구와 함께 취업자수와 실업자수, 여타 비경활인구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일견하여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수는 특히 IMF 시기 전후로 그 감소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991년에 약 550만 명이었던 청년 취업자의 수가 2009년에 396만 명으로 약 150만 명이 줄어

들었다. 이러한 청년층 취업인구는 상대적 비중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대략 45% 내외를 유지하던 청년 취업인구 비중은 2006년 이후 감소하여 2009년 현재는 IMF 시기보다도 더 떨어진 40.5%를 기록하고 있다.

<표 II-1> OECD 시기별 고용률(15~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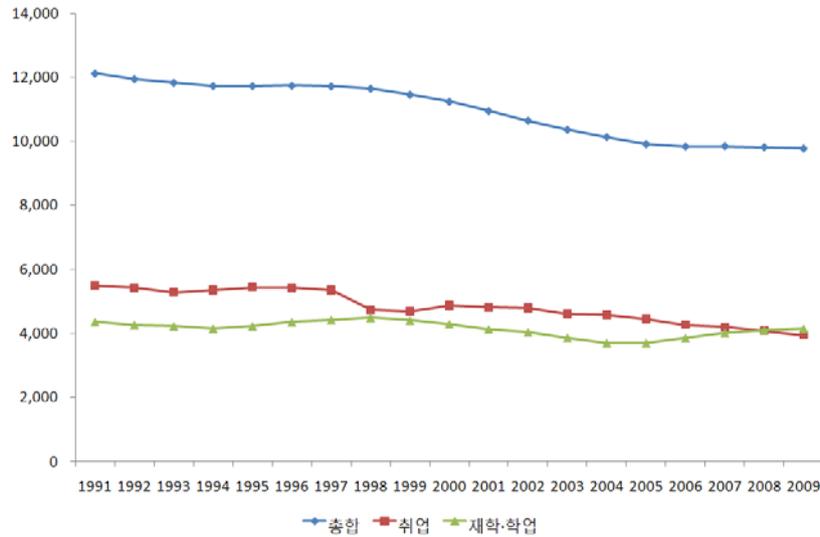
(단위: %)

기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국가
1990	29.5	56.4	42.2	32.5	70.1	59.8	48.8
1991	27.5	57.5	43.4	34.6	66.3	57.2	48.2
1992	26.7	55.2	44.6	34.6	61.4	56.7	46.6
1993	24.2	52.7	44.8	33.6	58.8	57.2	45.7
1994	22.0	51.4	45.0	34.5	58.8	58.1	45.7
1995	21.8	49.1	44.7	34.6	59.0	58.3	45.1
1996	21.3	47.0	45.0	33.7	60.2	57.6	44.7
1997	19.9	45.8	45.3	32.2	60.8	58.0	44.8
1998	20.8	46.7	44.6	27.1	60.8	59.0	45.1
1999	20.7	47.1	42.9	27.6	60.8	59.0	45.1
2000	23.2	47.2	42.7	29.4	61.5	59.7	45.3
2001	24.3	47.0	42.0	30.1	61.0	57.7	44.5
2002	24.1	44.8	41	31.5	60.9	55.7	43.4
2003	29.7	42.4	40.3	30.8	59.7	53.9	42.5
2004	29.3	41.9	40.0	31.2	60.1	53.9	42.7
2005	29.3	42.6	40.9	29.9	58.6	53.9	42.7
2006	28.9	44.0	41.4	27.2	57.3	54.2	43.3
2007	30.1	45.9	41.4	25.7	55.9	53.1	43.2
2008	30.7	47.2	41.4	23.8	56.4	51.2	42.9
2009	31.1	46.6	39.9	22.9	52.1	46.9	40.1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그림 II-6]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층 인구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경제활동조사는 2003년부터 비경활에 취업준비 비경활과 유휴 비경활의 범주를 두어 조사하고 있다. 이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제활동상태 추이를 본 것이 <표 II-2>이다. 2009년 현재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우리나라 청년층은 주로 취업을 하고 있거나(40.5%), 학령인구로서 학교에 있거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다(42.5%). 2003년 이후에 취업인구는 줄어들고, 학생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분명하게 보인다. 실업에 있는 청년들은 전체의 3.6%밖에 되지 않지만,³⁾ 유휴 비경활은 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⁴⁾ 취업준비 비경활도 넓게 보아 구직준비라고 보면 구직 중에 있는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11%에 해당되어 그 비율이 적지 않으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이 비율은 작지 않은데, 경활인구를 분모로 하는 구직활동자의 수로 계산한 청년실업률을 계산하면 약 8%가 되어 30대 실업률이 3.6%인 것에 대비하여 두 배가 훨씬 넘는다.

4) 채창균 외(2008)에서는 유휴청년과 청년실업자의 상태이동이 지배적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표 II-2> 청년층 경제활동상태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취업	실업	육아 가사 비경활	재학 학업 비경활	취업 준비 비경활	유휴 비경활	기타 비경활	총합	취업 애로층
2003	4,606 (44.4)	401 (3.9)	782 (7.5)	3,872 (37.3)	268 (2.6)	225 (2.2)	214 (2.1)	10,368 (100.0)	893 (8.6)
2004	4,578 (45.1)	412 (4.1)	701 (6.9)	3,704 (36.5)	297 (2.9)	258 (2.5)	191 (1.9)	10,141 (100.0)	966 (9.5)
2005	4,450 (44.9)	387 (3.9)	583 (5.9)	3,701 (37.3)	351 (3.5)	278 (2.8)	171 (1.7)	9,920 (100.0)	1,016 (10.2)
2006	4,270 (43.4)	364 (3.7)	530 (5.4)	3,865 (39.3)	413 (4.2)	258 (2.6)	143 (1.5)	9,843 (100.0)	1,035 (10.5)
2007	4,202 (42.6)	328 (3.3)	506 (5.1)	4,028 (40.9)	417 (4.2)	245 (2.5)	128 (1.3)	9,855 (100.0)	990 (10.0)
2008	4,084 (41.6)	315 (3.2)	484 (4.9)	4,114 (41.9)	455 (4.6)	249 (2.5)	122 (1.2)	9,822 (100.0)	1,018 (10.4)
2009	3,957 (40.5)	347 (3.6)	471 (4.8)	4,156 (42.5)	429 (4.4)	297 (3.0)	124 (1.3)	9,780 (100.0)	1,073 (1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앞에서 청년층의 취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청년 취업의 감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즉, 청년취업의 감소가 인구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취업자수는 청년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취업률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가 청년취업자의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취업자수를 생산가능인구와 경활률, 그리고 취업률의 함수로 나타내 보자. 청년취업자수를 E 라 하고, 청년생산가능인구를 P , 청년경제활동인구를 L 이라고 하면, 청년취업자수는 다음과 같이 수식화할 수 있다.

$$(6) \quad E = P \times \frac{L}{P} \times \frac{E}{L} \\ = P \times \frac{E}{P}$$

여기서 L/P 는 경제활동참가율이고, E/L 은 취업률, E/P 는 고용률이다. 식 (6)을 증가율의 함수로 변환하면 청년 취업자 증가율을 청년인구증가율 및 청년경제활동참가율증가율, 청년취업률증가율의 합으로 혹은 청년인구증가율과 청년고용률증가율의 합으로 바꿀 수 있다.

$$(7) \dot{E} = \dot{P} + \left(\frac{\dot{L}}{P} \right) + \left(\frac{\dot{E}}{L} \right) \\ = \dot{P} + \left(\frac{\dot{E}}{P} \right)$$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서 청년취업자수의 변화율을 청년인구 변화율, 청년경황 변화율, 청년취업률 변화율, 청년고용률 변화율로 분해한 것이 <표 II-3>이다. 청년취업자수의 변화율은 1998년 -12%를 나타냈고, 2000년에 4%로 증가를 보인 뒤,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 청년취업자수의 변화율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999년에서 2005년 사이는 청년인구 감소율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청년경제활동참가율과 청년취업률이 양의 변화율을 보였지만 2000년을 제외하고는 청년인구 변화율의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청년취업자수 변화를 음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부터는 청년취업자수 변화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이었다. 이 시기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청년취업률 변화율이 양의 값을 보였지만, 청년취업자수 변화율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청년취업률 변화율까지 음의 값을 보여 비교적 큰 폭의 청년취업자수 감소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의 음의 변화는 2006년 이후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II-3> 청년층 취업자 감소 요인 분해

(단위: %)

연도	취업자 수 변화율	인구 변화율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취업률 변화율	고용률 변화율
1992	-1.390	-1.409	0.433	-0.412	0.019
1993	-2.587	-0.969	-0.605	-1.034	-1.633
1994	1.313	-0.833	1.022	1.131	2.164
1995	1.759	-0.022	0.595	1.179	1.782
1996	-0.413	0.083	-0.450	-0.047	-0.496
1997	-1.312	-0.165	-0.070	-1.080	-1.149
1998	-11.529	-0.624	-3.412	-7.828	-10.973
1999	-0.883	-1.626	-0.785	1.553	0.755
2000	4.004	-1.908	1.855	4.095	6.026
2001	-1.312	-2.585	1.085	0.219	1.307
2002	-0.328	-2.745	1.504	0.967	2.485
2003	-4.016	-2.664	-0.318	-1.074	-1.389
2004	-0.606	-2.192	1.897	-0.271	1.621
2005	-2.809	-2.178	-0.924	0.281	-0.645
2006	-4.036	-0.775	-3.428	0.147	-3.287
2007	-1.583	0.124	-2.369	0.680	-1.705
2008	-2.820	-0.337	-2.575	0.087	-2.491
2009	-3.117	-0.420	-1.737	-0.989	-2.7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이 시기는 청년경제활동참가율과 청년취업률이 양의 변화율을 보였지만 2000년을 제외하고는 청년인구 변화율의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청년취업자 수 변화를 음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부터는 청년취업자 수 변화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이었다. 이 시기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청년취업률 변화율이 양의 값을 보였지만, 청년취업자 수 변화율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청년취업률 변화율까지 음의 값을 보여 비교적 큰 폭의 청년취업자 수 감소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의 음의 변화는 2006년 이후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3절 청년층 산업수요 분석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를 살펴보자. 이는 청년층 취업의 추이를 보면 되는데, 본고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나타나는 청년층의 취업규모를 살펴보았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1998년까지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조사되지 않으며, 또한 정규직·상용직만 조사되는 한계가 있지만, 연령별·학력별 취업근로자 수의 추출이 가능한 유일한 자료이다.

〈표 II-4〉에서 나타나듯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파악되는 청년층의 취업은 약 180만 명 내외이다. IMF 직후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후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청년취업자수에 큰 폭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의 변화가 크게 없었음을 의미한다.

학력별 취업자 비중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중졸이하의 취업자 비중은 1991년 14%에서 2001년 이후에는 1% 남짓 줄어들었다.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 고졸인데 1991년의 66%에서 2008년에는 32%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1991년 각각 8%, 12%에서 2008년 32%, 35%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취업자수에서도 1991~2008년 사이 고졸이 60만 명 정도의 감소를 보인 반면에 전문대와 대졸은 16만 명, 24만 명에서 58만 명, 64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학력 청년에 대한 산업수요가 일정하게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4> 청년층 학력별 근로자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총합
1991	258,871 (13.6)	1,245,343 (65.6)	156,841 (8.3)	237,413 (12.5)	1,898,468 (100.0)
1992	176,087 (9.2)	1,279,152 (66.9)	174,313 (9.1)	282,045 (14.8)	1,911,597 (100.0)
1993	169,897 (9.2)	1,256,093 (67.7)	176,800 (9.5)	252,348 (13.6)	1,855,138 (100.0)
1994	134,242 (7.5)	1,213,110 (67.5)	201,006 (11.2)	249,328 (13.9)	1,797,686 (100.0)
1995	106,401 (5.6)	1,268,437 (66.7)	234,025 (12.3)	292,162 (15.4)	1,901,025 (100.0)
1996	91,162 (4.7)	1,260,324 (65.0)	261,327 (13.5)	326,768 (16.8)	1,939,581 (100.0)
1997	67,735 (3.7)	1,136,899 (62.8)	289,307 (16.0)	317,158 (17.5)	1,811,099 (100.0)
1998	39,262 (2.6)	918,799 (60.7)	274,022 (18.1)	281,991 (18.6)	1,514,074 (100.0)
1999	43,343 (2.4)	1,065,883 (59.8)	353,699 (19.8)	320,651 (18.0)	1,783,576 (100.0)
2000	42,794 (2.4)	1,032,905 (57.0)	403,113 (22.2)	334,083 (18.4)	1,812,895 (100.0)
2001	34,233 (1.8)	1,005,544 (54.3)	440,489 (23.8)	371,639 (20.1)	1,851,905 (100.0)
2002	25,235 (1.3)	936,766 (47.8)	505,583 (25.8)	490,747 (25.1)	1,958,331 (100.0)
2003	22,490 (1.2)	818,196 (44.4)	515,042 (28.0)	486,371 (26.4)	1,842,099 (100.0)
2004	17,583 (1.0)	760,432 (42.9)	516,254 (29.1)	477,303 (26.9)	1,771,572 (100.0)
2005	16,326 (0.9)	708,473 (40.0)	505,694 (28.5)	540,887 (30.5)	1,771,380 (100.0)
2006	15,286 (0.8)	670,068 (36.9)	557,762 (30.7)	574,632 (31.6)	1,817,748 (100.0)
2007	20,093 (1.1)	626,403 (34.6)	574,322 (31.7)	591,459 (32.6)	1,812,277 (100.0)
2008	18,062 (1.0)	594,860 (32.3)	583,734 (31.7)	643,174 (35.0)	1,839,830 (100.0)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주: 1998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하였고, 1999년 이후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하였음. 1998년~1999년 사이 취업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조사대상의 확대요인과 IMF 이후 경기회복의 영향이 중첩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장년층에 비교하여 정말 변화가 없었던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 유형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Katz & Murphy(1992)의 방식을 따라서 청년층의 노동수요를 추정하였다.

Katz & Murphy의 추정방식은 팽창하는 산업에 특정유형의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축되고 있는 산업에 특정유형의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산업수요는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직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청년층 노동수요에 이용하면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고용된 산업의 증가 정도는 청년층의 노동수요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8)과 같다.

$$(8) \Delta A_{yt} = \sum_j \frac{E_{jyt}}{E_{yt}} \frac{\Delta E_{jt}}{E_{jt}}$$

여기서 ΔA_{yt} 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t 기의 수요변화이다. E_{jyt} 는 t 기에 j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청년 근로자의 수이며, E_{yt} 는 t 기 청년근로자의 수로 E_{jyt} 를 모든 산업 j 에 대해 합한 값이다. E_{jt} 는 t 기 j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이며, ΔE_{jt} 는 그 변화분이다.

이 지표는 청년 노동수요의 절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는 전반적인 실업률의 감소 국면에서 청년층 실업률의 감소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노동수요의 절대적 변화보다는 상대적 변화가 더 의미가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청년 노동수요의 상대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Delta R_{jt} = \sum_j \frac{E_{jyt}}{E_{yt}} \frac{\Delta s_{jt}}{s_{jt}}$$

여기에서 s_{jt} 는 t 기의 고용에서 j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Δs_{jt} 는 그 고용비중의 변화이다. 즉 j 산업 고용규모의 절대적 변화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식(8)과 달리 식 (9)는 j 산업 고용비중의 변화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면 j 산업 고용비중의 변화를 j 산업 청년층의 고용에 반영하게 되어 청년층의 상대적 노동수요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Katz & Murphy(1992)는 50개의 중분류 산업과 3개의 직종을 교차하여 150개의 업종·직종 셀을 만들어 노동수요를 추정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노동수요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19개의 대분류 업종으로만 추정을 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산업분류가 1993년에서 1999년까지 일치하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두 시계열을 이용하였으며, 그 추정결과가 <표 II-5>와 같다.

<표 II-5> 연령대별 노동수요의 변화(산업·직종 기준)

기간별	ΔA_{jt}						ΔR_{jt}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4	25~29	30~55	20~24	25~29	30~55	20~24	25~29	30~55	20~24	25~29	30~55
1993~1994	0.154	0.150	0.117	0.127	0.124	0.089	0.023	0.018	-0.014	-0.004	-0.006	-0.041
1994~1995	0.167	0.174	0.158	0.146	0.133	0.135	0.005	0.012	-0.003	-0.014	-0.027	-0.027
1995~1996	0.145	0.127	0.113	0.112	0.104	0.136	0.016	-0.001	-0.014	-0.015	-0.023	0.007
1996~1997	0.074	0.067	0.059	0.078	0.088	0.081	-0.007	-0.013	-0.020	-0.002	0.008	0.001
1997~1998	-0.215	-0.214	-0.196	-0.178	-0.133	-0.165	-0.023	-0.022	-0.001	0.014	0.064	0.033
1998~1999	0.029	0.018	0.003	0.035	0.006	0.014	0.016	0.004	-0.010	0.022	-0.005	0.004
2000~2001	0.144	0.142	0.112	0.159	0.139	0.116	0.021	0.019	-0.010	0.036	0.016	-0.006
2001~2002	0.187	0.146	0.128	0.170	0.154	0.149	0.041	0.002	-0.016	0.024	0.009	0.004
2002~2003	0.093	0.097	0.102	0.086	0.093	0.105	-0.001	0.004	0.010	-0.010	-0.003	0.007
2003~2004	0.110	0.076	0.036	0.101	0.079	0.038	0.057	0.023	-0.016	0.048	0.026	-0.014
2004~2005	0.067	0.040	0.018	0.051	0.039	0.047	0.031	0.004	-0.018	0.014	0.003	0.010
2005~2006	0.058	0.027	0.025	0.044	0.036	0.048	0.019	-0.012	-0.014	0.005	-0.003	0.010
2006~2007	0.036	0.007	-0.012	0.040	0.033	0.030	0.021	-0.008	-0.027	0.024	0.018	0.015
2007~2008	0.070	0.044	0.023	0.112	0.106	0.081	0.025	-0.001	-0.023	0.066	0.060	0.0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일견하여 IMF 시기에 모든 연령대의 노동수요가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상대적인 노동수요를 보면 여성청년들의 경우 이 시기에도 노동수요가 줄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여성청년에 대한 노동수요가 남성청년의 노동수요보다 더 컸음이 주목된다. 상대적 노동수요의 경우에 여성청년층의 노동수요는 남성청년이나 중·장년층 노동수요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관찰된다.

본고의 관심인 청년층 노동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 노동수요와 상대적 노동수요 모두 대체적으로 중·장년층 노동수요에 비해 작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절대적 노동수요, 상대적 노동수요 모두 1997~1998 시기와 2002~2003 시기에 청년층 노동수요가 중·장년층 노동수요에 비해 작았던 것 이외에는 청년층 노동수요가 중·장년층 노동수요에 비해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는 절대적·상대적 노동수요 모두 1995~1996 시기, 1997~1998 시기, 2002~2003 시기, 2005~2006 시기를 제외하고는 청년층 노동수요가 중·장년층 노동수요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중·장년층에 비해 작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청년실업의 문제가 노동수요 요인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제4절 과잉 학력 및 전공-직종 미스매치 분석

양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것을 <표 II-4>와 <표 II-5>에서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청년층 노동수요가 학력별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질적인 수급 불균형은 기술진보 등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학력·저기능 근로자의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중·장년층의 구조적 실

업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청년층에서는 질적인 수급 불균형이 과잉학력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즉, 청년층에 요구되는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은 데 비해 공급이 빠르게 고급화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자리에서의 노동력에 대한 질적 수요와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적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대일(2004)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졸자의 수급 불균형을 추정해 보았다.

t 기에 u 의 학력을 지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수의 추정치를 P_{ut} 라고 하자. 이러한 P_{ut} 는 산업으로 정의된 일자리의 고용규모에서 그 가운데 u 의 학력을 지닌 근로자의 고용규모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의 추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quad P_{ut} = \sum_j \overline{s_{uj}} E_{jt}$$

$$\overline{s_{uj}} = \frac{1}{T} \sum_t s_{ujt}$$

$$s_{ujt} = \frac{E_{ujt}}{E_{jt}}$$

여기서 E_{jt} 는 t 기 j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이고, E_{ujt} 는 t 기 j 산업에 종사하는 u 학력 근로자의 수이다. 그렇다면 $\overline{s_{uj}}$ 는 관측기간 동안의 s_{ujt} 를 평균한 값으로서 j 부문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u 학력 근로자의 평균적 비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P_{ut} 는 각 학력 수준의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를 반영하는 기대치가 된다.

이러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t 기의 u 학력 근로자 취업의 규모와 u 학력의 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과잉학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즉 P_{ut} 가 u 학력 근로자의 취업인구와 비교해서 더 크면 u 학력 근로자의 취업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것이고, 작다면 u 학력 근로자의 취업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남는 u 학력자는 하향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P_{ut} 를 u 학

력의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하면 u 학력 청년의 어느 정도가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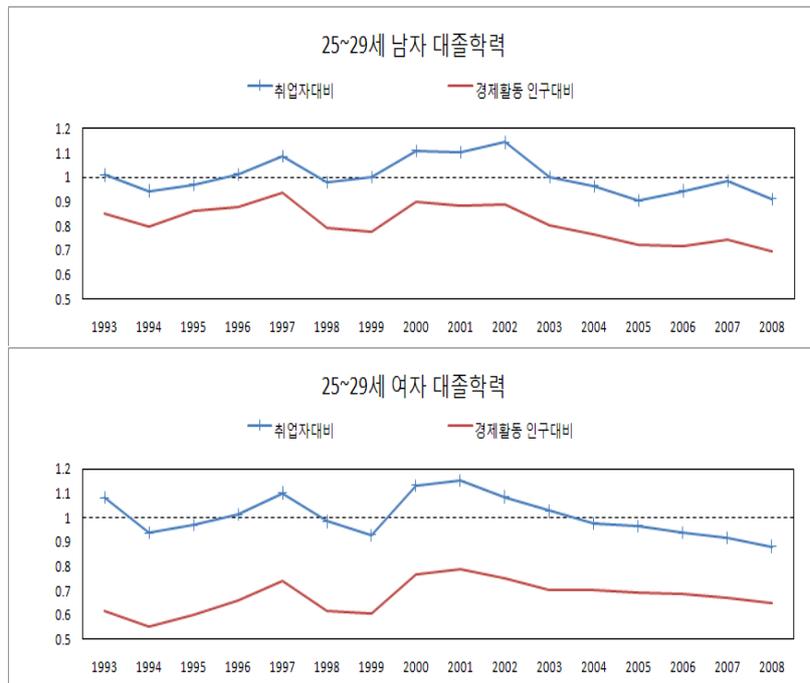
대졸 청년의 질적 수급을 보기 위해 이미 노동시장에 나온 25~29세의 청년들을 남녀로 나누어 P_{ut} 를 취업자, 경제활동인구로 비교한 것이 [그림 II-8]이다. 그림에서 기준선은 1이며, 이 선에서 대졸 청년층의 질적 수급은 일치하고 있다. 1보다 크면 대졸 청년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그만큼 하향취업을 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1994년부터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은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다가 IMF 전후 대졸 청년의 과소공급이 있었고, 2000~2002년 사이 대졸 청년의 과소공급이 보였지만, 이는 이 시기의 벤처기업 붐에 따른 대졸 청년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3년부터는 남녀 공히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나서 2009년에 이르면 대졸 청년의 10% 정도는 하향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졸 청년의 취업에 큰 적신호라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선택하였을 때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대졸 청년은 상당한 정도로 과잉공급이어서 2008년에는 남자 약 30%, 여성 약 40% 정도가 과잉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 중 과잉공급의 비중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는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들의 학력이 높아졌지만 학력이 높은 청년들이 가고자 원하는 일자리 수는 정체되었거나 줄고 있다. 고학력 청년들이 가고자 원하는 일자리를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이라고 보고 300인 이상 대기업과 금융업, 공무원의 일자리수의 추이를 본 것이 <표 II-6>이다. 대기업 종사자수는 1996년에 약 270만 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180만 명으로 크게 줄어 이후 조금씩 늘기 시작하였지만 2008년에 약 220만 명으로 경제위기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금융업의 종사자수도 1996년 최고를 보이

고 IMF 이후 크게 줄었으며, 2002~2003년 금융업 구조조정에서 또 한 차례의 큰 감소를 보였다가 2008년 67만 명으로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였다. 공무원수는 큰 변화가 없어 대략 90만 명정도에서 머물다가 2007년 9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대학졸업자들이 갈 만한 일자리의 수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7] 대졸 청년 노동력 수요 추세와 공급 비교



<표 II-6>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 부문 취업자 규모의 추이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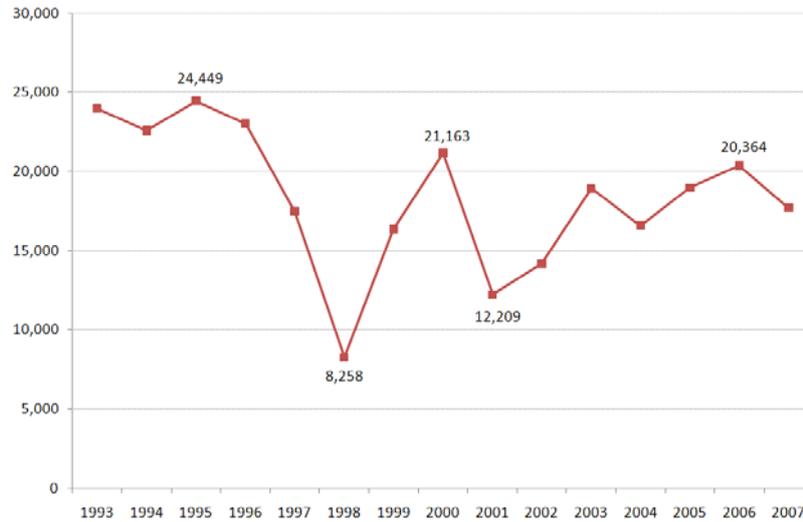
연도	대기업	금융업	공무원(정원)	공무원(현원)
1993	256.7	69.2	90.0	88.5
1994	232.0	63.3	90.8	89.2
1995	251.1	71.1	90.5	89.0
1996	269.8	78.5	92.6	91.0
1997	232.6	74.2	93.6	91.9
1998	204.1	66.3	88.8	87.1
1999	186.5	61.8	87.6	85.8
2000	163.7	61.4	87.0	85.2
2001	173.8	63.2	86.8	85.0
2002	178.5	46.7	89.0	87.1
2003	179.6	43.3	91.6	89.7
2004	187.1	58.3	93.6	91.5
2005	179.8	58.8	93.1	91.5
2006	191.4	61.6	95.7	94.0
2007	204.6	63.9	97.5	96.3
2008	217.9	66.6	97.5	95.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행정안전부, 「2008 행정안전통계연보」.

대기업에 취업한 전체인구보다는 신규채용의 수가 대졸 청년층에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신규채용자의 수도 [그림 II-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90년대 약 2만 3,000~2만 4,000명 정도에서 IMF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이후 조금씩 숫자를 만회하고 있지만 대략 1만 8,000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대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기업과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II-8] 대기업 신규채용 추이(1993~2007)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주: 2008년부터는 조사항목이 바뀌어 '신규채용자'가 조사되지 않음.

이상에서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청년층에 대한 총량적인 노동수요의 부족보다는 대졸청년 공급, 즉 학력별 일자리 불일치 심화와 그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청년의 경제활동상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애로가 학력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학생이 아닌 청년들만을 추출하여 취업현황과 취업애로층을 본 것이 <표 II-7>이다. 취업애로층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와 취업준비 비경황, 유휴 비경황을 합한 것이다. 취업애로층의 추이는 학력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취업애로층은 저학력보다 고학력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2003년 이후 취업애로층은 중졸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년인구, 청년취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애로층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다. 고졸과 전문대졸은 취업애로층이 약 11%에서 각각 5%p, 4%p 늘어나

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취업애로층 비중도 6%p 늘어 2009년에 20%를 넘고 있다. 게다가 청년인구의 학력구성에서 대졸 이상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졸 취업애로층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표 II-7> 학력별 취업애로층의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취업자				합	취업애로층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03	138 (51.0)	1,794 (65.0)	1,002 (76.3)	944 (74.1)	4,069	47 (17.5)	315 (11.4)	148 (11.3)	186 (14.6)
2004	132 (46.8)	1,629 (64.2)	1,064 (75.6)	987 (74.5)	3,998	44 (15.7)	320 (12.6)	180 (12.8)	206 (15.5)
2005	109 (43.6)	1,498 (64.6)	1,081 (75.5)	992 (73.8)	3,864	48 (19.3)	320 (13.8)	199 (13.9)	226 (16.8)
2006	94 (43.3)	1,319 (64.4)	1,088 (76.3)	1,029 (72.4)	3,713	44 (20.1)	289 (14.1)	200 (14.0)	280 (19.7)
2007	85 (40.3)	1,201 (63.5)	1,147 (77.3)	1,038 (72.9)	3,651	38 (17.9)	268 (14.2)	193 (13.0)	281 (19.8)
2008	87 (39.9)	1,095 (62.6)	1,096 (75.6)	1,079 (73.1)	3,535	36 (16.4)	256 (14.6)	214 (14.8)	294 (19.9)
2009	82 (39.1)	998 (60.0)	1,071 (75.6)	1,066 (72.7)	3,393	34 (16.3)	273 (16.4)	213 (15.0)	297 (2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대졸 청년층의 취업애로는 대졸 청년들이 취업한 직장에서의 직무가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개연성이 있다. 경찰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직무와 학교전공이 일치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 청년의 일자리 직무와 전공일치 정도의 추이를 본 것이 <표 II-8>이다.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공과 직무의 일치 정도는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공과 직무가 '매우 불일치'하는 경우와 '약간 불일치'하는 경우가 약 28%, 14% 정도 되어 거의 40% 이상이 직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표 II-8> 전문대졸 이상 청년의 일자리 직무와 전공의 일치 정도

(단위: 명, %)

연도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총합
2003	708,145 (29.1)	368,676 (15.2)	668,874 (27.5)	685,730 (28.2)	2,431,425 (100.0)
2004	768,071 (29.3)	391,253 (14.9)	746,332 (28.5)	715,395 (27.3)	2,621,051 (100.0)
2006	751,805 (28.2)	389,251 (14.6)	761,086 (28.6)	761,754 (28.6)	2,663,896 (100.0)
2007	732,293 (27.0)	375,272 (13.8)	813,568 (30.0)	791,937 (29.2)	2,713,070 (100.0)
2008	764,731 (27.4)	380,589 (13.6)	755,047 (27.1)	888,446 (31.9)	2,788,813 (100.0)
2009	764,534 (28.1)	367,074 (13.5)	806,837 (29.6)	785,770 (28.8)	2,724,215 (100.0)
총합	4,489,579 (28.2)	2,272,115 (14.3)	4,551,744 (28.6)	4,629,032 (29.0)	15,942,47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각년도.

전공직종의 일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Wolbers (2003)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9년 『미래의 직업세계』에 제시된 전공과 직종 일치표를 참고하였다. Wolbers(2003)와 『미래의 직업세계』의 전공직종 일치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종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그런데 직종 중에는 예컨대 운전기사와 같이 대학의 전공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 즉 대학교육이 필요 없는 직종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직종들을 추려내었다. 이렇게 객관적 지표를 만든 이유는 주관적으로 응답한 전공과 직종의 일치 정도가 본고의 분석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적 응답은 청년들이 대학시절 전공 외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자신의 전공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이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석의 자료는 2008년 GOMS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 일치 정도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이후 첫 직장이나 현재의 직장 모두 대학교육의 전공과 직종이 일

치하는 경우는 5~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40% 이상이 전공과 직종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이 필요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7% 정도나 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많이 괴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청년들 또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표 II-9> 대학 전공과 직종의 일치 정도

구분	첫 직장		현 직장	
	일치	8,979	57.1%	7,963
불일치	5,618	35.7%	5,037	36.0%
전공 상관 없음	1,133	7.2%	975	7.0%
전체	15,730	100.0%	13,975	100.0%

자료: GOMS(2008)

대학의 전공별로 전공-직종 일치를 보면 그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난다. 첫 직장에서의 전공-직종 일치를 살펴본 것이 <표 II-10>이다. 비교적 높은 전공-직종 일치를 보이는 전공은 사회계열(79%)과 의계열(77%), 교육계열(62%), 공학계열(62%)인 데 비해서, 인문계열(30%), 자연계열(31%)은 극히 낮은 전공-직종 일치를 보이고 있다. 예체능계열도 전공-직종 일치를 보이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되고 있다.

<표 II-10> 졸업 전공별 전공-직종 일치 정도(첫 직장)

구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일치	571	29.7%	2,847	79.4%	612	62.3%	2,649
불일치	1,182	61.5%	402	11.2%	343	34.9%	1,396	32.4%
전공 상관 없음	169	8.8%	336	9.4%	28	2.8%	264	6.1%
전체	1,922	100.0%	3,585	100%	983	100.0%	4,309	100.0%
구분	자연		의학		예체능			
	일치	593	31.3%	760	76.6%	947	46.3%	
불일치	1,150	60.7%	193	19.5%	952	46.6%		
전공 상관 없음	151	8.0%	39	3.9%	146	7.1%		
전체	1,894	100.0%	992	100.0%	2,045	100.0%		

자료: GOMS(2008)

남녀별로는 여성청년의 전공-직종 일치도가 더 높아서 절반 이상이 일치를 보인 반면, 남성의 전공-직종 일치 비율은 약 33%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비교하면 4년제 대학의 전공-직종 일치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전문대의 전공-직종일치비율은 36%로 전문대학이 취업과 바로 연계되는 교육을 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전문대의 전공-직종 일치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생이 전공이 필요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11%나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인문교과에 치우쳐 있고,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표 II-11> 남녀별·학교유형별 전공-직종 일치 정도(첫 직장)

구분	남		여		전문대		대학	
일치	5,217	58.4%	3,762	55.4%	2,660	53.8%	6,242	58.3%
불일치	3,048	34.1%	2,570	37.8%	1,726	34.9%	3,892	36.3%
전공 상관 없음	672	7.5%	461	6.8%	555	11.2%	576	5.4%
전체	8,937	100.0%	6,793	100.0%	4,941	100.0%	10,710	100.0%

자료: GOMS(2008)

제5절 소결

본고는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년층 고학력화를 인적자본론, 신호기제이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인적자본론을 통해서는 교육제도의 발달 등이 교육의 인적자본 체화 비율을 증가시켜 고학력화를 유도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의 안정화가 미래선호를 증가시켜 교육투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직업에서의 정년이 늘어 투자회수기간이 늘어 교육투자가 늘어났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신호기제이론으로는 대학간판을 유능함의 신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취득하고, 기업은 이를 선별기제로 활용

한다는 것을 보았다.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이론으로 현재의 가속적인 기술 진보와 고학력화 진행의 병존을 숙련활용의 비용과 기업이윤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 대졸자직업이동조사 자료 등에서 청년층의 고용과 산업수요, 대졸 청년의 과잉학력상태 및 전공직종 불일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청년층의 고용은 그 절대적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이는 고용률의 저하 및 취업애로층(취업준비 비경황, 유휴 비경황)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률의 감소를 청년층 인구의 변화율, 경제활동참가인구의 변화율, 청년취업자 변화율로 살펴해보았다. 그 결과 청년취업자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1999년에서 2005년 사이는 청년인구의 감소였고, 2006년부터는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였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취업준비나 유휴 비경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에 대한 산업수요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력별로는 대졸 청년의 취업은 늘었으며, 고졸과 중졸 청년의 취업은 줄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청년층에 대한 산업수요가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어떤 것인지를 보기 위해 연령대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남성청년에 대한 산업수요는 1997~1998의 시기, 2002~2003의 시기를 제외하고 중·장년층보다 적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우 역시 위의 시기 이외에 2005~2006의 시기를 제외하고 중·장년층보다 산업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들이 현재 얼마나 과잉학력의 상태에 있는가를 특정산업에서의 대졸자의 고용규모의 평균적 추세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94년부터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남녀 공히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현상이 나타나서 2009년에 이르면 대졸 청년의 10% 정도는 하향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 중 과잉공급의 비중도 적지 않은데, 여성이 더욱 과잉공급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 등에서 제공

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정체되어 변화가 없다. 이에 취업애로층은 2009년 대졸 이상의 경우에 20%를 넘고 있다. 대졸 청년들의 첫 직장 취업에서 대졸에 맞지 않는 직종으로의 취업이 늘고 있어 2009년에는 절반 정도가 되었다. 객관적인 전공-직종 일치표를 만들어 대졸 청년의 전공과 직종의 일치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계열(79%), 의학계열(77%), 교육계열(62%), 공학계열(62%)로 비교적 높지만, 인문계열(30%)과 자연계열(31%)은 낮은 전공-직종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 특히 대졸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는 산업수요의 부족에 기인하지 않았으며, 여타 학력에 비해 대졸 청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03년 이후 대졸 청년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2009년 현재는 약 1/10 정도의 졸업자들이 하향취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공에 맞지 않는 직종에 취업해 있는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특히 고학력화의 진행, 청년층 노동수요 및 대졸자의 과잉학력 등 수급, 그리고 대졸자의 전공직종 일치를 살펴보았다.

고학력화의 진행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 효율성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많아짐에 따른 일자리 정년의 연장 등으로 시대적인 추세이다. 이에 앞으로의 정책은 이러한 고학력화에 맞추어 가는 경제정책, 즉 고학력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 교육 이수의 심리적 비용이 크지 않아서 현재 대학교육 이수자가 크게 늘어 왔으며, 이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심리적 비용을 제고함으로써 제어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제고되고 대학생들의 심리적 비용이 커진다면 개인들의 고등교육 선택이 줄어들 것이며, 전공을 살리는 취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졸 청년들의 고용문제의 구조적 요인의 하나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이다.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관계

(원·하청 관계)는 대졸자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대기업이 전유하는 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체계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여지가 없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고학력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대졸 청년의 고용문제를 푸는 근본적 방법일 것이다. 이에 대한 탐색은 추후의 과제로 돌린다.

제 3 장 대학생 취업준비노력의 실태분석

유한구

제1절 대학생 취업의 문제

앞 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청년층의 실업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IMF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청년층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IMF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청년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했으며, 그나마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도 대부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고용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대학졸업자의 경우는 대학구조개혁 사업 이후에 대학정원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많은 대학졸업자를 양산하였는 데 비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업의 고도화와 기업

의 효율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이로 인한 절대적인 노동력의 감소이다. 흔히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이 현상은 사무자동화, 기업의 관리시스템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고용이 없이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대학정원의 증가에 따른 대학졸업자 수의 증가이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대학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엄격히 관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학진학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는 있었으나,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1994년 12월에 발표된 대학 정원 자율조정제도는 교육부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사전 조정제도를 폐지하여, 의학·사범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정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대학정원의 증가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대규모의 대학졸업자의 양산은 대졸자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셋째, 산업시설의 중국으로의 이전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관련직의 경우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무관련직의 일자리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었다.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의 감소는 결국 대졸자의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넷째, 고용조건 악화이다. IMF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신규고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고용조건 악화는 정규직을 선호하는 대학졸업자들에게 가중된 취업경쟁을 야기하였다.

결국 대학졸업자의 취업경쟁은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즉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며, 이를 쟁취하기 위하여 대학졸업자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극소수의 관찮은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료의 제시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입학에서부터 철저하게 학점을 관리한다. 어떤 교수가 좋은 학점을 주는지, 그 과목에서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당교수에게 항의나 애원을 하기도 한다. 즉, 학생들은 배워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영어자격이다. 흔히 토익 또는 토플과 같은 영어능력시험의 준비를 통해 자신의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영어자격의 취득은 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가속화된 경향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객관적인 영어능력시험의 결과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영어자격 취득에 매달린다. 최근의 기업의 채용관행이 영어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영어자격 취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에 대한 강조는 사교육비용의 증가와 실제 업무에는 그리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영어학습의 문제를 야기했다.

또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는 각종 자격증이다. 자신의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다. 관련전공이나 향후 취업하려는 직업분야뿐 만 아니라 직업이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유사한 내용의 자격증도 중복하여 취득한다. 자격증의 취득이 자신의 업무능력을 보여 주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불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대체로 대학생들은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즉 학교성적, 영어능력점수, 자격증을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한다.

대학생들은 객관적인 증거 제시 이외에도 기업체의 입사시험을 준비한다. 입사시험은 대체로 직업적성검사와 면접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이 취업하고자하는 기업의 적성시험을 학원이나 관련책자를 통해 준비하고, 기업

의 면접시험을 위한 다양한 사전교육과 모의면접을 치른다.

결국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대학졸업생의 증가는 과도한 취업경쟁을 야기하며, 이 취업경쟁에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학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의 전통은 학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 이외에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게 된다.

대개의 경우,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강이나 특정한 단기 교육프로그램, 해외연수 등의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취업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 취업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사교육과 사교육 이외의 취업준비 노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노력이 실제 취업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취업효과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취업효과는 GOM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전문대 이상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학 중 경력개발과 취업경험, 졸업 후 구직기간 등 구직경험, 직업과 임금, 노동시장 이동, 직업과 및 진로, 직업훈련 및 자격증, 개인신상 및 가계배경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 이 조사자료에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의 지표로서 첫 취업까지의 이행기간, 취업성공 여부,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 그리고 임금효과 등에 미치는 재학 중 취업준비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2절 취업준비활동 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취업준비를 위하여 행하는 사교육과 사교육 이외의 취업준비실태를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개인면접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10년 9월 1일 ~ 9월 30일
- 조사대상: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생
- 조사인원: 전문대학 1,000명, 4년제 대학 2,000명

3. 표집방법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여, 전문대학은 학교별로 20명씩 50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4년제 대학은 학교별로 40명씩 50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학교의 표집은 지역과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표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층화
- ② 5개 지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로 층화
- ③ 학제 및 지역별로 학생수 비례로 학교표집
- ④ 전문대학 50개, 4년제 대학 50개 표집
- ⑤ 전문대학 학교별로 20명씩 조사, 4년제 대학 학교별로 40명씩 조사(무선표집)

이러한 절차를 통해, 4년제 대학은 전체 158개 학교 가운데 50개 학교를 표집하여 모집단 대비 0.15%의 표집비율을 보였다. 전문대학은 전체 141개 학교 가운데 50개 학교를 표집하여 모집단 대비 0.21%의 표집비율을 보였다. 전문대학의 표집비율이 4년제 대학에 비해 높은 것은 학교당 학생수가 4년제 대학보다 작기 때문이다.

<표 III-1> 표집

학제	학교수	재학생수	표본수	표집비율(%)
4년제 대학	158	1,333,920	2,000	0.15
전문대학	141	485,164	1,000	0.21
합계	299	1,819,084	3,000	0.16

최종적으로 총 표본의 수는 전문대학 1,000명, 4년제 대학 2,004명이다.

4.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진로와 취업, 재학 중 사교육, 취업 또는 창업준비, 학교수업 및 부업, 해외연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로와 취업 사항: 대학졸업 후의 진로, 취업계획, 희망직업
- 재학 중 사교육: 사교육 경험, 사교육비용, 사교육 종류 및 유형, 사교육비 부담 주체, 사교육 목적,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 취업 또는 창업 준비: 취업(창업) 준비 내용 및 정도, 취업(창업)준비 활동 및 비용, 취업(창업)준비시간, 취업(창업)준비노력 분야
- 학교수업 및 부업(아르바이트): 학교공부시간, 부업활동 여부 및 시간
- 해외연수: 해외연수경험, 연수지역, 연수기간, 연수비용, 연수목적
- 배경설문: 성별, 연령, 학년, 이전학교경험, 복수전공 여부, 주거환경, 부모학력, 가구수입, 군필 여부

5. 분석방법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실태에 대한 분석은 학제별, 성별, 지역별, 계열별 교차분석을 주로 하였다. 학제별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지역별 분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였다. 또한 계열별로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교육, 의약, 예체능 등 7대 계열별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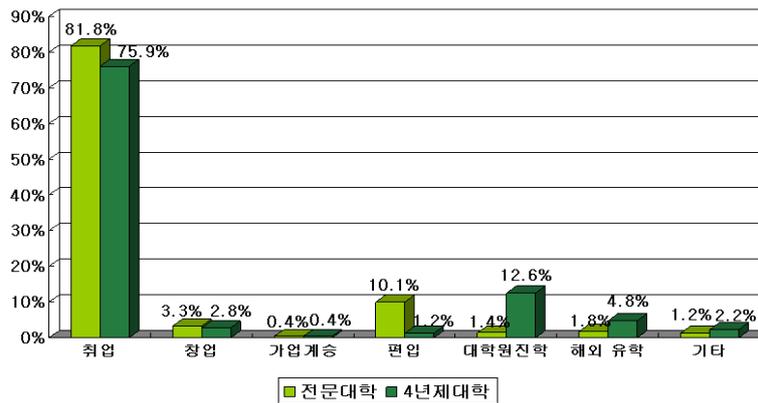
제3절 취업준비활동 조사결과

1. 졸업 후 진로계획

졸업 후의 진로계획은 전문대학은 취업이 81.8%, 편입이 10.1%로 높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은 취업이 75.9%, 대학원진학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문대학의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높았으며, 편입희망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은 성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I-1] 졸업 후 진로계획



지역별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모두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취업희망자 비율이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전문대학의 경우, 의약계열, 교육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의 순으로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높았고, 4년제 대학은 의약계열, 교육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의 순으로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2> 졸업 후 진로(전문대학)

구분		졸업 후 진로(전문대학)							합계
		취업	창업	가업 계승	편입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기타	
성 별	남자	323 79.2%	15 3.7%	2 0.5%	54 13.2%	3 0.7%	6 1.5%	5 1.2%	408 100.0%
	여자	495 83.6%	18 3.0%	2 0.3%	47 7.9%	11 1.9%	12 2.0%	7 1.2%	592 100.0%
지 역	수도권	301 74.9%	12 3.0%	1 0.2%	57 14.2%	10 2.5%	13 3.2%	8 2.0%	402 100.0%
	비 수도권	517 86.5%	21 3.5%	3 0.5%	44 7.4%	4 0.7%	5 0.8%	4 0.7%	598 100.0%
전 공 계 열	인문 계열	23 54.8%	1 2.4%	1 2.4%	10 23.8%	1 2.4%	5 11.9%	1 2.4%	42 100.0%
	사회 계열	126 84.0%	4 2.7%	0 0.0%	16 10.7%	1 0.7%	1 0.7%	2 1.3%	150 100.0%
	예체 능 계열	157 72.7%	14 6.5%	0 0.0%	29 13.4%	5 2.3%	5 2.3%	6 2.8%	216 100.0%
전체		818 81.8%	33 3.3%	4 0.4%	101 10.1%	14 1.4%	18 1.8%	12 1.2%	1,000 100.0%

<표 III-3> 졸업 후 진로(4년제 대학)

구분		졸업 후 진로(4년제 대학)							합계
		취업	창업	가업 계승	편입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기타	
성별	남자	782 76.1%	41 4.0%	6 0.6%	12 1.2%	124 12.1%	40 3.9%	22 2.1%	1,027 100.0%
	여자	739 75.6%	16 1.6%	3 0.3%	13 1.3%	128 13.1%	56 5.7%	22 2.3%	977 100.0%
지역	수도권	535 69.8%	22 2.9%	5 0.7%	11 1.4%	125 16.3%	43 5.6%	25 3.3%	766 100.0%
	비 수도권	986 79.6%	35 2.8%	4 0.3%	14 1.1%	127 10.3%	53 4.3%	19 1.5%	1,238 100.0%
	전체	1,521 75.9%	57 2.8%	9 0.4%	25 1.2%	252 12.6%	96 4.8%	44 2.2%	2,004 100.0%
전공 계열	인문 계열	179 62.6%	6 2.1%	1 0.3%	5 1.7%	63 22.0%	20 7.0%	12 4.2%	286 100.0%
	사회 계열	490 82.2%	21 3.5%	2 0.3%	10 1.7%	38 6.4%	24 4.0%	11 1.8%	596 100.0%
	교육 계열	157 87.2%	1 0.6%	1 0.6%	3 1.7%	11 6.1%	2 1.1%	5 2.8%	180 100.0%
	공학 계열	271 79.0%	5 1.5%	3 0.9%	4 1.2%	39 11.4%	17 5.0%	4 1.2%	343 100.0%
	자연 계열	160 74.1%	8 3.7%	0 0.0%	1 0.5%	38 17.6%	6 2.8%	3 1.4%	216 100.0%
	의학 계열	134 88.7%	0 0.0%	0 0.0%	0 0.0%	15 9.9%	2 1.3%	0 0.0%	151 100.0%
	예체능 계열	130 56.0%	16 6.9%	2 0.9%	2 0.9%	48 20.7%	25 10.8%	9 3.9%	232 100.0%
	전체	1,521 75.9%	57 2.8%	9 0.4%	25 1.2%	252 12.6%	96 4.8%	44 2.2%	2,004 100.0%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의 수가 10% 내외에 불과한 데 비해 실제 대학원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것은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인문계열의 취업희망자 수가 적은 것은, 인문계열이 취업가능성이 작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 취업준비 사교육 실태

가. 취업준비 사교육 참여율

전체적으로 전문대학 학생의 20.0%와 4년제 대학 학생의 27.7%가 취업이나 창업 등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림 III-2] 취업사교육 참여비율



<표 III-4> 사교육 경험

구분		사교육 경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성별	남자	59 14.5%	237 23.1%
	여자	141 23.8%	318 32.5%
지역	수도권	109 27.1%	272 35.5%
	비수도권	91 15.2%	283 22.9%
전공계열	인문계열	20 47.6%	77 26.9%
	사회계열	36 24.0%	190 31.9%
	교육계열	18 18.4%	57 31.7%
	공학계열	29 13.1%	75 21.9%
	자연계열	23 27.4%	65 30.1%
	의학계열	19 10.1%	30 19.9%
	예체능계열	55 25.5%	61 26.3%
	전체	200 20.0%	555 27.7%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준비 사교육을 받는 정도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사교육 참여가 높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은 지방에 관련 사교육 시설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여성과 인문사회계열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취업에 불리한 계층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횟수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한 사교육비의 연간 지출액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전문대학이 약 92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월평균 1.28개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4년제 대학이 약 98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월평균 1.30개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표 III-5>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횟수(전문대학)

구분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 횟수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남자	93.58	57	99,513	1.26	57	0.613
여자	91.60	141	112,636	1.29	140	0.835
수도권	119.21	107	132,264	1.26	106	0.865
비수도권	60.37	91	58,340	1.31	91	0.662
인문계열	99.40	20	121,435	1.10	20	0.308
사회계열	114.14	36	127,392	1.39	36	1.225
교육계열	55.22	18	58,089	1.28	18	0.575
공학계열	76.68	28	77,326	1.29	28	0.535
자연계열	55.43	23	47,948	1.04	23	0.209
의약계열	51.05	19	47,364	1.53	19	1.073
예체능계열	125.30	54	137,414	1.30	53	0.696
전체	92.17	198	108,774	1.28	197	0.776

성별로는, 사교육비 지출액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높았고, 월평균 사교육 횟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금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 횟수는 전문대학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이 조금 높았고, 4년제 대학은 수도권 지역이 조금 높았다. 계열별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예체능 계열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사교육 참여경험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볼 경우에도, 취업에 불리한 계층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I-6>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 횟수(4년제 대학)

구분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 횟수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남자	106.92	236	156.057	1.27	237	0.538
여자	92.10	317	125.286	1.32	318	0.686
수도권	112.28	271	151.354	1.31	272	0.621
비수도권	85.10	282	125.499	1.28	283	0.634
인문계열	76.75	77	120.712	1.35	77	0.623
사회계열	97.61	189	140.450	1.31	190	0.618
교육계열	63.18	57	57.263	1.32	57	0.711
공학계열	71.43	75	93.620	1.19	75	0.392
자연계열	124.49	65	130.812	1.22	65	0.573
의약계열	56.20	30	50.978	1.17	30	0.461
예체능계열	188.88	60	230.837	1.48	61	0.868
전체	98.42	553	139.311	1.30	555	0.627

분야별로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제2외국어, 전공 교과, 일반상식, 컴퓨터, 공무원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대학편입 등의 목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조사하였다. 전문대학은 응답한 학생수가 영어과 자격증 취득목적의 사교육이 많았다. 영어의 경우 연간 약 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약 68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영어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4년제 대학은 연간 영어 사교육비용은 약 71만 원이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은 대학편입 목적의 사교육으로, 전문대학은 연간 263만 원, 4년제 대학은 195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 내용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구분		영어	제2 외국어	전공 교과	일반 상식	컴퓨터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	대학 편입	기타
전문 대학	평균	69.51	65.00	91.54	4.00	48.65	90.00	68.03	262.50	112.50
	사례 수	80	16	26	1	20	2	68	8	8
	표준편차	75.155	89.461	122.929	.	66.105	14.142	60.038	74.210	200.571
4년제 대학	평균	71.34	75.93	104.42	67.00	34.38	98.92	93.18	195.00	81.13
	사례 수	372	44	69	9	42	37	90	10	16
	표준편차	90.662	150.073	184.760	80.474	40.018	112.393	146.123	212.577	79.829

사교육을 하는 숫자로는 영어에 대한 수요와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다. 반면에 편입목적의 사교육에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영어나 자격증과 같은 종류의 사교육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비용이 높지 않은 데 비해, 편입은 특정대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화되어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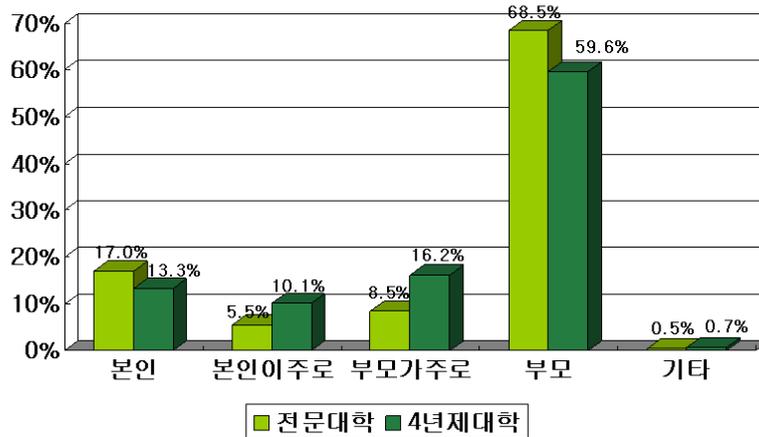
다. 사교육비 부담 주체

사교육비 부담 주체는 전문대학의 68.5%, 4년제 대학의 59.6%가 부모나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어, 대부분 부모나 가족의 도움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전문대학이 17.0%, 4년제 대학이 13.3%였다. 성별이나 지역별·계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⁵⁾ 대체로 취업준비 비용에 대하여 부모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취업준비 사교육비용의 절대적 액수는 입시준비 사교육비용에 비해 작지

5) 부록표 참조

만, 높은 대학등록금을 고려한다면, 가계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 사교육비 부담 주체



라. 사교육의 주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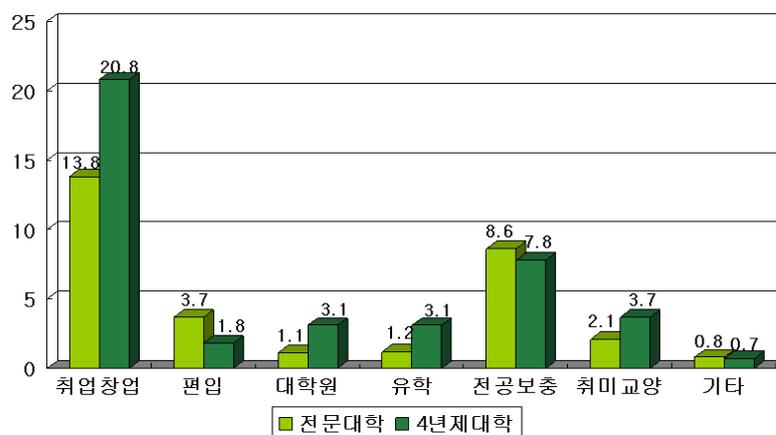
사교육을 받는 주된 목적을 취업 및 창업, 편입, 대학원 진학, 유학, 전공 보충, 취미교양, 기타항목 가운데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전문대학은 13.8%가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8.6%가 전공보충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4년제 대학은 20.8%가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7.8%가 전공보충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된다. 첫째, 대학에서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학이 기업의 요구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별도의 취업준비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

제, 취업분야와 대학전공의 불일치이다. 대학의 전공이 주로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기업의 수요는 경상계열이나 공학계열 등 특정분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I-4] 사교육을 받는 목적



3. 사교육 이외의 취업준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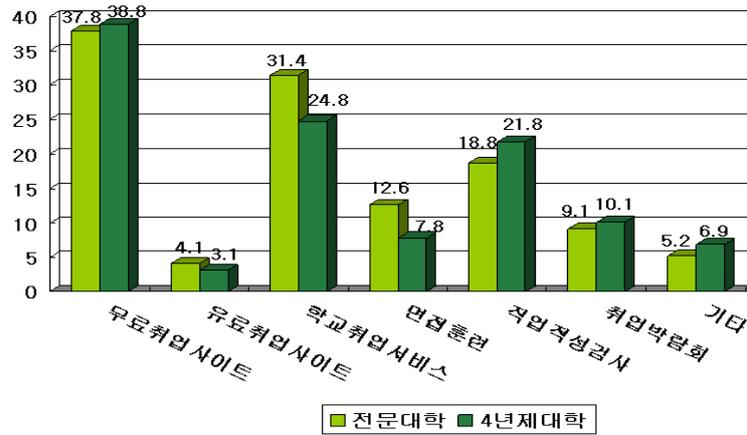
가. 취업준비활동의 참여유형

사교육 이외의 취업을 위한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무료취업사이트 가입이 37.8%로 가장 높았고,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가 31.4%로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도 무료취업사이트 가입이 38.8%로 가장 높았고,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가 24.8%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직업적성검사 참여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학생들이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지방대학의 경우, 취업과 관련한 외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

기 때문에 보인다. 계열별로는 전문대학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학교의 취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⁶⁾

[그림 III-5] 사교육 이외의 취업준비



전체적으로 무료취업사이트와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적성검사의 이용이 많았다. 특히,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의 활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이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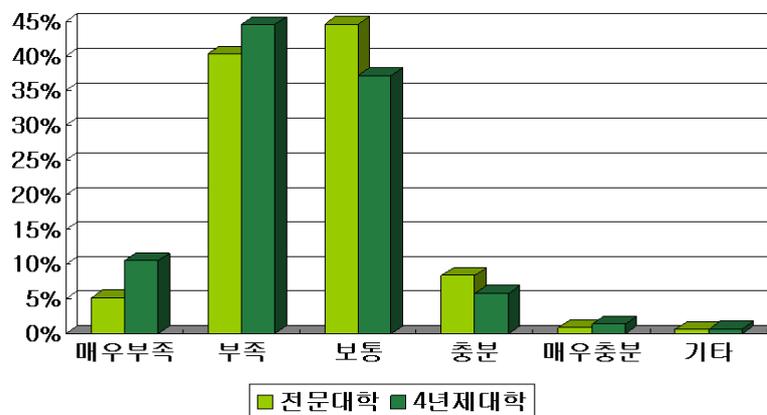
나. 취업준비도 자기평가

취업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45.5%가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4년제 대학

6) 부록표 참조

의 경우 56.0%가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취업준비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6] 취업준비 정도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보다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계열별로는 인문, 사회, 자연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취업경쟁에서 불리한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취업경쟁의 치열함에 따라 취업준비를 더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III-8> 취업준비도 자기평가(전문대학)

구분		취업준비도 자기평가						전체
		매우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기타	
성별	남자	12 3.6%	114 34.7%	166 50.5%	30 9.1%	4 1.2%	3 0.9%	329 100.0%
	여자	31 6.3%	217 44.0%	201 40.8%	39 7.9%	3 0.6%	2 0.4%	493 100.0%
지역	수도권	16 5.4%	139 47.0%	122 41.2%	15 5.1%	1 0.3%	3 1.0%	296 100.0%
	비수도권	27 5.1%	192 36.5%	245 46.6%	54 10.3%	6 1.1%	2 0.4%	526 100.0%
전공계열	인문계열	1 3.7%	17 63.0%	9 33.3%	0 0.0%	0 0.0%	0 0.0%	27 100.0%
	사회계열	6 4.7%	59 45.7%	51 39.5%	9 7.0%	2 1.6%	2 1.6%	129 100.0%
	교육계열	8 9.2%	31 35.6%	39 44.8%	9 10.3%	0 0.0%	0 0.0%	87 100.0%
	공학계열	6 3.3%	69 37.9%	88 48.4%	16 8.8%	2 1.1%	1 .5%	182 100.0%
	자연계열	1 1.4%	36 48.6%	29 39.2%	8 10.8%	0 0.0%	0 0.0%	74 100.0%
	의학계열	6 3.7%	55 34.0%	85 52.5%	15 9.3%	1 0.6%	0 0.0%	162 100.0%
	예체능계열	15 9.3%	64 39.8%	66 41.0%	12 7.5%	2 1.2%	2 1.2%	161 100.0%
	전체	43 5.2%	331 40.3%	367 44.6%	69 8.4%	7 0.9%	5 0.6%	822 100.0%

<표 III-9> 취업준비도 자기평가(4년제 대학)

구분		취업준비도 자기평가						전체
		매우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기타	
성별	남자	66 8.5%	323 41.7%	308 39.8%	51 6.6%	18 2.3%	8 1.0%	774 100.0%
	여자	96 12.5%	363 47.2%	266 34.6%	38 4.9%	3 0.4%	3 0.4%	769 100.0%
지역	수도권	68 12.0%	260 46.0%	193 34.2%	30 5.3%	6 1.1%	8 1.4%	565 100.0%
	비수도권	94 9.6%	426 43.6%	381 39.0%	59 6.0%	15 1.5%	3 0.3%	978 100.0%

<표 계속>

구분	취업준비도 자기평가						전체	
	매우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충분	기타		
전공계열	인문계열	29 14.0%	82 39.6%	73 35.3%	17 8.2%	3 1.4%	3 1.4%	207 100.0%
	사회계열	59 12.6%	203 43.5%	171 36.6%	24 5.1%	6 1.3%	4 0.9%	467 100.0%
	교육계열	12 8.5%	54 38.3%	62 44.0%	12 8.5%	1 0.7%	0 0.0%	141 100.0%
	공학계열	21 8.0%	126 48.1%	99 37.8%	9 3.4%	4 1.5%	3 1.1%	262 100.0%
	자연계열	14 8.3%	83 49.1%	61 36.1%	8 4.7%	2 1.2%	1 0.6%	169 100.0%
	의학계열	9 7.3%	57 46.3%	50 40.7%	5 4.1%	2 1.6%	0 0.0%	123 100.0%
	예체능계열	18 10.3%	81 46.6%	58 33.3%	14 8.0%	3 1.7%	0 0.0%	174 100.0%
	전체	162 10.5%	686 44.5%	574 37.2%	89 5.8%	21 1.4%	11 0.7%	1543 100.0%

다. 취업준비활동 참여 정도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는 취업준비활동 시간, 취업준비활동의 횟수, 취업준비활동의 소요비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문대학이 주당 4.74시간, 4년제 대학이 주당 6.36시간이었으며,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보다 취업준비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취업준비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었다. 계열별로는 전문대학의 인문, 사회계열과 4년제 대학의 사회, 교육계열의 학생들이 취업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표 III-10> 취업준비활동 시간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남자	5.38	321	6.128	7.24	764	9.425
여자	4.30	480	5.269	5.46	755	7.108
수도권	4.81	280	6.517	7.19	542	10.531
비수도권	4.70	521	5.130	5.89	977	6.902
인문계열	5.11	27	6.952	5.95	202	8.399
사회계열	5.30	127	6.016	7.63	460	10.420
교육계열	3.75	87	3.749	7.36	139	9.285
공학계열	4.66	175	5.140	5.51	259	6.956
자연계열	4.73	73	3.372	5.99	168	6.631
의약계열	4.58	158	5.474	5.11	122	5.694
예체능계열	5.02	154	7.341	5.12	169	5.902
합계	4.74	801	5.650	6.36	1,519	8.399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지난 1년 동안의 활동횟수와 활동비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참여활동횟수는 전문대학의 경우, 영어시험이 1.4회, 제2외국어 시험이 0.9회, 자격증 시험이 1.7회, 적성검사가 0.7회, 모의면접이 1.4회, 취업사이트 가입이 3.0회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전문대학의 경우, 영어시험이 7만 3,000원, 제2외국어 시험이 16만 원, 자격증 시험이 21만 8,000원, 적성검사가 2만 9,000원, 모의면접이 2만 7,000원, 취업사이트 가입이 1만 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영어시험이 8.7회, 제2외국어 시험이 10.0회, 자격증 시험이 15.2회, 적성검사가 1.5회, 모의면접이 0.8회, 취업사이트 가입이 0.3회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영어시험이 11만 1,000원, 제2외국어 시험이 9만 7,000원, 자격증 시험이 18만 6,000원, 적성검사가 1만 3,000원, 모의면접이 8,000원, 취업사이트 가입이 3,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표 III-11> 취업준비활동 횟수(전문대학)

구분		영어시험	제2외국어	자격증	적성검사	모의면접	취업 사이트
남자	평균	1.84	1.50	2.59	1.48	2.00	1.86
	사례 수	37	12	93	25	30	44
	표준편차	1.608	0.798	1.795	0.586	1.819	1.212
여자	평균	2.00	1.73	2.24	1.19	1.48	2.35
	사례 수	56	11	161	37	33	57
	표준편차	1.335	1.191	1.679	0.701	0.755	3.848
수도권	평균	2.24	1.73	1.81	1.17	1.71	3.38
	사례 수	34	15	75	18	21	16
	표준편차	2.016	1.163	1.216	0.383	0.902	7.145
비수도권	평균	1.76	1.38	2.60	1.36	1.74	1.91
	사례 수	59	8	179	44	42	85
	표준편차	0.953	0.518	1.856	0.750	1.578	1.109
인문계열	평균	2.40	1.90	2.00	1.00	1.67	1.25
	사례 수	5	10	5	1	3	4
	표준편차	1.140	1.287	1.000	0.0	1.155	0.500
사회계열	평균	1.73	1.33	2.23	1.50	1.33	1.82
	사례 수	15	3	35	12	9	17
	표준편차	1.163	0.577	1.646	1.168	0.707	0.951
교육계열	평균	1.86		2.58	1.25	1.33	1.60
	사례 수	7		26	8	6	15
	표준편차	1.464		1.604	0.463	0.516	0.507
공학계열	평균	2.19	1.50	2.40	1.56	2.29	2.10
	사례 수	21	4	58	16	17	29
	표준편차	2.015	1.000	1.498	0.629	2.312	1.448
자연계열	평균	1.33	1.50	2.71	1.20	1.75	1.80
	사례 수	9	2	34	5	8	5
	표준편차	0.500	0.707	2.067	0.447	0.886	1.095
의약계열	평균	2.17	1.00	2.36	1.00	1.44	1.94
	사례 수	30	1	44	10	16	18
	표준편차	1.416	0.0	2.232	0.000	0.629	0.938
예체능	평균	1.00	1.33	2.13	1.10	2.00	3.92
	사례 수	6	3	52	10	4	13
	표준편차	0.000	0.577	1.415	0.316	1.155	7.900
전체	평균	1.94	1.61	2.37	1.31	1.73	2.14
	사례 수	93	23	254	62	63	101
	표준편차	1.443	0.988	1.727	0.667	1.382	2.997

<표 III-12> 취업준비활동 횟수(4년제 대학)

구분		영어시험	제2외국어	자격증	적성검사	모의면접	취업 사이트
남자	평균	2.66	1.57	2.05	1.97	1.81	2.01
	사례 수	261	35	203	59	37	78
	표준편차	2.122	1.092	1.777	1.485	1.793	1.499
여자	평균	2.08	1.50	1.85	1.45	1.30	1.93
	사례 수	262	54	196	60	44	84
	표준편차	1.327	0.818	1.270	0.811	0.553	2.221
수도권	평균	2.28	1.43	1.78	1.36	1.62	1.56
	사례 수	213	37	133	25	13	32
	표준편차	1.695	0.765	1.163	0.757	1.193	0.914
비수도권	평균	2.43	1.60	2.04	1.80	1.51	2.07
	사례 수	310	52	266	94	68	130
	표준편차	1.854	1.034	1.706	1.300	1.321	2.066
인문계열	평균	2.13	1.87	1.76	1.45	1.23	1.92
	사례 수	60	31	49	22	13	26
	표준편차	1.268	1.284	1.128	0.963	0.439	0.891
사회계열	평균	2.53	1.30	2.05	1.42	1.54	2.04
	사례 수	176	20	145	36	37	56
	표준편차	1.994	0.571	1.604	0.874	1.016	2.873
교육계열	평균	2.28	1.00	2.30	2.73	1.33	1.93
	사례 수	29	3	27	11	3	14
	표준편차	2.086	0.000	3.303	1.489	0.577	1.072
공학계열	평균	2.54	1.43	1.98	1.36	2.71	1.70
	사례 수	111	14	59	11	7	23
	표준편차	1.930	0.756	1.320	.505	3.302	1.020
자연계열	평균	2.25	1.40	1.68	2.69	1.11	1.75
	사례 수	56	10	44	16	9	16
	표준편차	1.643	0.699	0.959	1.922	0.333	0.931
의약계열	평균	2.11	1.67	1.97	1.44	1.80	2.83
	사례 수	57	3	30	9	5	6
	표준편차	1.319	0.577	1.245	1.014	1.789	1.941
예체능	평균	2.12	1.25	1.87	1.36	1.29	2.10
	사례 수	34	8	45	14	7	21
	표준편차	1.629	0.463	1.014	0.633	0.488	1.261
전체	평균	2.37	1.53	1.95	1.71	1.53	1.97
	사례 수	523	89	399	119	81	162
	표준편차	1.791	0.930	1.550	1.217	1.295	1.903

<표 III-13> 취업준비활동 비용(전문대학)

구분		영어시험	제2외국어	자격증	적성검사	모의면접	취업 사이트
남자	평균	7.78	13.00	13.20	1.64	1.17	.14
	사례 수	36	12	93	25	29	43
	표준편차	5.383	21.541	12.613	3.026	3.733	0.774
여자	평균	9.40	6.73	16.44	1.47	0.33	0.51
	사례 수	53	11	148	32	30	53
	표준편차	8.317	5.387	25.941	2.794	1.155	2.250
수도권	평균	9.23	12.07	14.69	0.38	0.00	0.07
	사례 수	31	15	68	16	20	15
	표준편차	9.790	19.561	33.413	1.258	0.000	0.258
비수도권	평균	8.48	6.13	15.39	2.00	1.13	.40
	사례 수	58	8	173	41	39	81
	표준편차	5.589	3.357	15.123	3.194	3.334	1.902
인문계열	평균	6.80	8.10	5.60	0.00	0.00	0.00
	사례 수	5	10	5	1	3	4
	표준편차	6.834	5.953	2.966	0.000	0.000	0.000
사회계열	평균	7.67	4.67	14.95	0.64	0.44	0.00
	사례 수	12	3	30	11	9	16
	표준편차	6.184	4.619	18.702	1.567	0.882	0.000
교육계열	평균	7.43		15.00	1.00	0.40	0.07
	사례 수	7		24	6	5	15
	표준편차	6.604		18.285	2.000	0.894	0.258
공학계열	평균	8.80	25.00	9.50	1.88	1.35	0.90
	사례 수	20	4	58	16	17	29
	표준편차	5.699	36.869	8.834	3.462	4.834	3.004
자연계열	평균	6.22	7.00	13.39	0.25	0.38	0.00
	사례 수	9	2	33	4	8	5
	표준편차	4.549	4.243	9.407	0.500	1.061	.000
의약계열	평균	10.40	10.00	16.88	3.11	.85	.07
	사례 수	30	1	43	9	13	15
	표준편차	8.830	0.000	17.633	3.408	1.725	.258
예체능	평균	9.33	3.67	23.04	1.60	0.25	0.42
	사례 수	6	3	48	10	4	12
	표준편차	10.652	1.155	38.708	3.340	0.500	1.443
전체	평균	8.74	10.00	15.19	1.54	0.75	0.34
	사례 수	89	23	241	57	59	96
	표준편차	7.282	15.983	21.810	2.873	2.752	1.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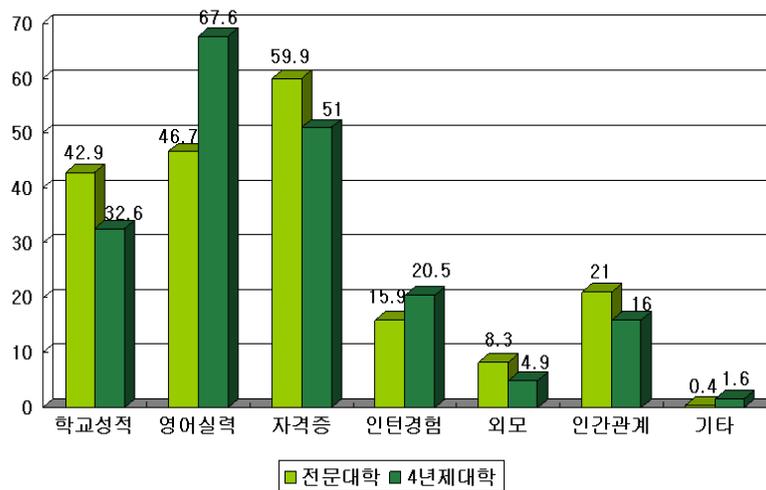
<표 III-14> 취업준비활동 비용(4년제 대학)

구분		영어시험	제2외국어	자격증	적성검사	모의면접	취업 사이트
남자	평균	12.28	13.69	14.69	1.63	1.29	0.27
	사례 수	256	35	193	57	35	73
	표준편차	11.736	13.547	28.456	3.389	3.259	1.367
여자	평균	9.90	6.98	22.52	0.91	0.36	0.21
	사례 수	251	52	187	54	42	78
	표준편차	11.510	7.550	39.087	2.490	1.322	1.262
수도권	평균	12.05	10.34	13.95	0.89	0.25	0.04
	사례 수	200	35	120	18	12	26
	표준편차	12.850	12.753	13.907	2.272	0.866	0.196
비수도권	평균	10.48	9.23	20.67	1.35	0.88	0.28
	사례 수	307	52	260	93	65	125
	표준편차	10.817	9.426	40.209	3.120	2.613	1.435
인문계열	평균	8.69	12.77	8.08	0.85	0.92	0.00
	사례 수	58	31	48	20	13	24
	표준편차	6.096	12.366	8.100	2.455	2.290	0.000
사회계열	평균	12.72	7.58	16.37	1.94	0.59	0.21
	사례 수	171	19	139	33	34	53
	표준편차	15.436	10.782	22.622	4.373	2.607	1.378
교육계열	평균	11.95	3.00	34.22	1.11	0.67	0.00
	사례 수	28	3	27	9	3	13
	표준편차	10.421	1.000	58.143	2.977	1.155	.000
공학계열	평균	11.60	7.86	8.67	0.55	0.50	0.05
	사례 수	105	14	54	11	6	20
	표준편차	10.184	5.051	9.167	1.036	1.225	0.224
자연계열	평균	9.64	6.40	31.84	0.88	1.33	0.63
	사례 수	55	10	43	16	9	16
	표준편차	9.320	3.239	61.300	2.500	3.640	2.500
의약계열	평균	8.63	11.33	18.62	1.78	2.00	1.83
	사례 수	57	3	29	9	5	6
	표준편차	6.581	16.166	25.419	1.481	2.739	2.858
예체능	평균	11.37	12.14	27.08	1.15	0.14	0.16
	사례 수	33	7	40	13	7	19
	표준편차	11.460	17.014	43.906	1.772	0.378	0.375
전체	평균	11.10	9.68	18.55	1.28	0.78	0.24
	사례 수	507	87	380	111	77	151
	표준편차	11.674	10.830	34.284	2.994	2.431	1.310

라. 취업의 성공요인

취업이나 창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은 자격증(60.5%), 영어실력(46.8%), 학교성적(40.7%), 인간관계(25.0%), 인턴경험(14.2%), 외모(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년제 대학 학생들은 영어실력(67.0%), 자격증(48.7%), 학교성적(34.5%), 인간관계(18.9%), 인턴경험(17.7%), 외모(4.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II-7] 취업의 성공요인



전반적으로 영어실력과 자격증을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턴경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4. 학과공부 및 부업활동

가. 학과공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는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과공부를 충실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다음은 학생들의 주당 학과공부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주당 학교수업을 제외하고 과제물 작성시간을 포함하여 학과공부를 수행한 시간이다.

<표 III-15> 학과공부시간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남자	8.50	403	8.367	10.01	1024	9.072
여자	7.46	583	8.024	8.79	971	8.682
수도권	7.96	394	8.263	9.60	759	9.244
비수도권	7.84	592	8.127	9.30	1236	8.688
인문계열	7.41	41	6.899	9.36	284	8.430
사회계열	6.32	149	6.558	8.71	595	8.302
교육계열	6.74	97	6.810	10.08	179	8.854
공학계열	6.76	219	7.242	10.41	341	9.265
자연계열	7.46	84	8.821	8.72	215	7.520
의약계열	10.48	184	10.287	11.02	151	10.264
예체능계열	8.69	212	8.064	8.91	230	10.383
합계	7.89	986	8.178	9.42	1995	8.903

전문대학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과공부시간은 7.89시간이었고, 4년제 대학 학생들의 학과공부시간은 주당 평균 9.42시간으로 4년제 대학 학생들의 학과공부시간이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학과공부시간이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열별로는 전문대학은 의약계열, 4년제 대학은 의약계열과 교육, 공학 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학과공부시간이 많았다.

나. 부업(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는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학등록금이 학기당 500만 원 가까이 하는 현실에서 스스로 취업준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부업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주당 학생들의 평균 부업 시간이다.

<표 III-16> 부업(아르바이트)시간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남자	17.66	225	12.908	13.73	591	11.319
여자	15.59	368	12.018	12.98	644	9.661
수도권	16.70	273	12.036	13.18	525	10.511
비수도권	16.10	320	12.703	13.46	710	10.480
인문계열	14.53	30	9.198	14.08	173	11.511
사회계열	16.51	89	11.746	13.81	353	10.886
교육계열	16.42	55	14.281	11.62	116	9.816
공학계열	17.99	143	13.154	12.73	215	10.350
자연계열	16.32	47	13.042	13.56	134	9.791
의약계열	15.10	105	12.028	12.76	98	9.161
예체능계열	15.96	124	11.830	13.77	146	10.411
합계	16.38	593	12.394	13.34	1,235	10.489

전문대학 학생들의 주당 평균 부업시간은 16.38시간이었고, 4년제 대학 학생들의 부업시간은 주당 평균 13.34시간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부업시간이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부업시간이 더 많았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열별로는, 전문대학은 공학계열, 4년제 대학은 인문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부업시간이 많았다.

5. 해외연수

최근 대학생들은 영어실력 향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학생들의 해외연수비용이다.

전문대학 학생들은 연간 약 406만 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사용하였고, 4년제 대학 학생들은 연간 약 861만 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사용하였다.

성별로는, 전문대학은 여자가 4년제 대학은 남자가 연수비용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연수비용이 많았다. 계열별로는 전문대학의 교육계열과 4년제 대학의 자연계열의 연수비용이 많았다.

<표 III-17> 해외연수비용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 수	표준편차
남자	294.07	27	336.352	929.09	127	1006.897
여자	509.41	29	804.145	786.41	117	901.219
수도권	511.79	24	850.256	1144.25	80	1083.585
비수도권	325.94	32	384.991	722.35	164	861.120
인문계열	201.00	5	112.938	945.87	52	889.509
사회계열	285.38	13	534.160	967.93	75	1080.739
교육계열	1506.67	3	2163.824	573.18	22	689.606
공학계열	470.83	12	474.389	714.86	37	693.357
자연계열	409.00	5	613.743	1116.36	22	1033.411
의약계열	381.43	7	154.642	779.69	16	1286.526
예체능계열	283.00	11	218.245	606.50	20	894.027
합계	405.59	56	628.070	860.68	244	958.391

제4절 대졸 청년층 취업노력성과 분석

1. 청년층 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앞 절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노력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노력이 실제 취업이나 임금 등 노동시장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의하면 완전경쟁 노동시장을 가정했을 때,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질의 차이가 생산량의 차이를 유발하고, 이러한 노동자의 질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게 된 인적자본량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자의 질은 생산량의 변화를 가져오고 질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본 획득을 통한 미래 보상에 대한 합리적 투자행위로 판단한다. 즉,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거두는 성과의 차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적자본투자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별, 학력, 연령 등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 역시 차별보다는 개개인이 선택과 능력의 결과로 설명한다(Becker, 1975).

이와는 다르게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분석하는 이론도 있다. 신호이론(Market signaling theory)에서는 구직자와 채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적자본 이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호'에 의해 노동시장성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Spencer, 1973). 구직자와 채용자 간의 정보보유량의 격차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호'로 학력을 이용하게 된다. 고용주는 구직자 상호 간 학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생산성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의 인적자본에 의해 노동성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학력이나 자격증 등의 요인들이 그들의 인적자본에 대한 대리변수로 고려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나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스펙쌓기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적극적 취업준비활동을 통해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신호'로서의 간판을 만드는 것이 보다 괜찮은 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우영(2002)에 따르면, 자격증, 직업훈련 및 아르바이트 경험 모두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박성재·반정호(2006)에서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줄여 주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재학 중 일경험이나 취업준비시기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능력, 면접횟수는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직업훈련시기를 통제하여 첫 직장 이전에 받는 직업훈련의 취업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강순희·박성재, 2002). 김안국·강순희(2002)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당해년도에는 취업확률을 높이지 못하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을 종료한 2~3년 동안에는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는 직업훈련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격증은 취업확률을 높이지만(이동임·김덕기, 2001; 강순희·박성재, 2002; 김우영, 2002; 이병희 외, 2004), 자격증 취득자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취업준비노력 중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다(박성재·반정호, 2006). 자격증 역시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취업효과도 자격증 취득년도가 아니라 이후 2~3년에 걸쳐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김안국·강순희, 2002). 뿐만 아니라 이동임·김덕기 연구에서 자격증은 취업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준(2006) 역시 자격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5.5%에서 9.9%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신선미·손유미(2008)은 자격증의 취득 및 직업훈련

경험의 여부가 하향취업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했다.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이행기간을 단축시켰다(이병희, 2003).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취업준비확률이 높고, 그만큼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채창균, 2003). 그러나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김우영, 2002; 김준영·전용석, 2004)함을 볼 때, 일자리 경험은 일자리 유형에 따라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박성재·반정호(2006)에서는 동일한 취업준비활동임에도 성·연령·학력별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재학 중 일 경험에서,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정규직과 시간제 취업경험이, 대졸자에게는 현장실습경험이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에도 직업훈련이 훈련참가자의 경제적 지위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Perry, Anderson, Rowan and Northrup, 1976; Ashenfelter, 1978),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LaLonde, 1995; Leigh, 1995). 재직근로자와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실업자, 전직희망자, 청년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다(Crouch, 1992; Bloom, Orr, Cave, Bell, Doolittle and Lin, 1994). 또한 과외활동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도 있다. 미국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Eide and Ronan, 2001)에서 민족적 배경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양한 운동에의 참여가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과외활동의 노동시장 이행, 즉 입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Tchiboza, 2007)는 대학에서의 과외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활동을 했던 경우보다 취업기간이 거의 3배 이상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자료 및 기술통계량

가. 분석자료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실제 취업이나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GOMS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3년간 패널조사를 실시했으나 2008년에 패널조사를 마감하고 코호트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여 조사를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에 같은 GOMS 자료라 해도 조사대상이나 설문이 동일하지 않아 자료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코호트조사로 조사방법을 바꾼 2006년 8월과 2007년 2월에 국내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만 8,050명(4년제 대학 졸업생 1만 2,696명, 전문대 졸업생 5,354명)를 대상으로 2008년 12월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 및 노동이동의 조사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했다.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개인의 인적사항 및 학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분석에 필요한 주요변수가 빠진 사례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기준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 중 2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의 조사자는 분석사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 1만 4,881개의 조사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기초통계⁷⁾

분석에서 사용한 사례의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다. 전체 1만 4,881개의 자료 중 전문대 졸업자가 4,110명(27.6%)이며,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만 771명(72.4%)이다. 전공계열은 '자연/공학계열'이 6,179명(41.5%)으로 가장 많으며, '인문/사회계열(4,948명, 33.3%)', '예체능계열(1,893명, 12.7%)', '교육/의학계열(1,861명, 12.5%)'의 순이다.

7) 부록표 참조.

졸업 후 1년 반 혹은 2년 정도 기간 후의 조사에서 현재 취업 중인 자가 1만 1,346명(76.2%)이며, 미취업자는 3,535명(23.8%)이다. 현재 취업자 중 절반 이상(8,483명, 57.0%)이 첫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취업자 중 직장경험이 있는지는 남성보다 여성,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대 졸업자가 그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첫 취업은 이루어졌으나 자신이 생각한 수준의 직장이 아니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성공적으로 이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대졸자들의 취업준비노력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면, 졸업자 대부분이 대학평점이 3~4점대의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들이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영어시험, 취업사교육,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수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을 위한 많은 스펙쌓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어성적이나 취업사교육, 그리고 자격증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나 아직 그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37.8%였으며, 취업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 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은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이행기간, 취업 여부와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 여부, 그리고 임금효과이다.

이행기간은 졸업 후 첫 일자리로의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개월)으로 정의하며, 첫 일자리로의 취업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졸업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하였고, 졸업 이전에 취업한 자의 이행기간은 0으로 처리하였다. 졸업 후 첫 취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취업 여부와 어떤

일자리에 취업했는가가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첫 직장의 취업 여부는 현재 미취업상태이지만 첫 취업의 경험이 있거나 첫 직장에 취업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괜찮은 일자리’는 정규직, 종사자수 300인 이상의 기업체,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9세 이하의 월평균임금(144만 원)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1, 아니면 0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효과는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로그변환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자료들과 취업준비노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독립변인 중 영어성적은 설문 문항에서 토익뿐만 아니라 토플, 텡스 등 여러 가지 시험제도의 응시 여부와 성적을 질문하고 있었으나,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토익이었으므로 토익을 기준으로 토익 700점에 상응하는 각 시험제도의 성적을 가지고 그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험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점은 학교마다 그 만점 기준이 상이하므로 취합하여 4.5만점을 기준으로 재점수화 하였다. 직업훈련 수강 여부에서는 여러 번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으므로 여러 직업훈련 중 가장 최종적으로 받은 수업의 종료일자와 학교의 졸업일자를 비교하여 그 이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와 이후에 수강한 경우,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3. 연구모형 및 분석결과

가. 이행기간

이행기간은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미취업기간으로 이는 정규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므로 조사시점까지 일자리를 경험

하지 못한 우측 절단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준비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관찰되지 못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한 사항들을 중도절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정의하고, 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한다. 비례위험모형은 다양한 공변량(covariate)들의 영향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콕스비례위험모형에서는 계수추정에 있어 관측된 생존기간의 순위만을 사용하는 비모수적 추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비례위험모형은 독립변수인 개별 공변량들이 생존기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생존기간 자체를 예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표 III-18> 취업준비노력에 따른 미취업기간의 탈출효과(콕스비례위험모형)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대학지역	서울	0.186 **	0.011	0.079 **	0.024
	수도권	0.090 *	0.078	0.146 ***	0.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165 **	0.018	-0.061	0.206
	자연/공학계열	0.028	0.673	-0.026	0.586
	교육/의학계열	0.173 **	0.032	-0.035	0.568
취업사교육	있음	-0.125 **	0.031	-0.056 **	0.046
어학연수	있음	-0.029	0.766	0.089 **	0.008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0.250	0.116	-0.295 ***	0.000
	TOEIC 700점 미만	-0.321 **	0.001	-0.252 ***	0.000
자격증수		0.001	0.935	0.005	0.530
직업훈련	졸업전 직훈경험	0.110	0.207	0.196 ***	0.000
	졸업후 직훈경험	-0.201 **	0.015	0.019	0.687
취업준비	졸업후 취업준비	-0.520 ***	0.000	-0.452 ***	0.000
	4학년부터	0.307 ***	0.000	0.499 ***	0.000
	4학년이전부터	0.301 **	0.001	0.502 ***	0.000
<i>N</i>	2,264		6,205		
<i>-2LL</i>	29,974.4		91,052.3		
χ^2	258.6		926.3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 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보면 대학지역, 취업사교육 여부, 취업준비 여부, 그리고 부모님 동거 여부, 그리고 현재 가구소득이다. 대학지역은 지방대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취업준비 역시 하지 않는 것보다는 4학년 혹은 그 이전부터 준비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가구소득 역시 소득이 많을수록 취업 이행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사교육과 영어성적은 높을 수록 그 이행기간이 길어지며, 부모님과 동거 역시 이행기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펙쌓기’의 주 타깃이 되는 사교육이나 영어성적이 취업으로의 시간을 늘이는 것은 취업 자체보다도 더 나은 일자리로의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취업에 대한 눈높이, 즉 유보임금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만을 더 살펴보면, 전공계열은 교육/의학계열은 이행기간을 줄이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대학지역에서 지방대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의 졸업자가 이행기간을 줄이나 전문대와는 달리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그 기간을 상대적으로 더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학평점, 어학연수, 졸업 이전의 직업훈련 수강이 취업으로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첫 취업으로의 이행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은 취업준비, 전공의 선택 그리고 졸업대학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사교육이나 영어성적, 어학연수, 그리고 직업훈련 역시 이행기간을 단축시키지만 그 영향력은 언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유보임금을 올려 오히려 이행기간을 지연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형에서 각 요인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스펙쌓기’는 졸업 후 구직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 취업효과

대졸자들의 취업을 위한 많은 노력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대졸자들의 취업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첫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첫 취업과 질을 고려한 첫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으로 분석했다.

<표 III-19>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취업준비노력의 효과(로지스틱회귀분석)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대학지역	서울	-0.161	0.297	0.166 **	0.029
	수도권	-0.059	0.581	0.144 *	0.07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350 **	0.016	0.237 **	0.017
	자연/공학계열	0.305 **	0.024	0.477 ***	0.000
	교육/의학계열	0.268	0.114	0.163	0.202
취업사교육	있음	-0.008	0.950	-0.022	0.718
어학연수	있음	0.000	0.999	0.079	0.281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0.578	0.131	0.120 *	0.096
	TOEIC 700점 미만	-0.112	0.557	-0.092	0.302
자격증수		-0.034	0.188	0.018	0.299
직업훈련	졸업 전 직훈경험	0.028	0.880	0.333 **	0.005
	졸업 후 직훈경험	-0.252	0.122	0.094	0.353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준비	0.405 **	0.020	0.071	0.528
	4학년부터	0.415 **	0.005	0.192 *	0.051
	4학년 이전부터	0.480 **	0.011	0.422 **	0.001
<i>N</i>		2,264		6,205	
<i>-2LL</i>		2,779.466		7,278.391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형에서 모두 첫 번째 취업에 대하여 전공계열과 취업준비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전공계열은 예체능계열과 비교해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의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준비는 졸업학년 이전부터 준비한 이들의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사

교육과 어학연수 경험, 그리고 저득점의 영어성적은 첫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준비 활동이 첫 번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문대는 취업준비기간 만이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반면, 4년제 대학은 취업준비기간뿐만 아니라 토익성적, 직업훈련경험 등 소위 스펙쌓기와 관련된 항목들이 실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관찰은 일자리로의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로지스틱 분석)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대학지역	서울	0.265	0.267	0.854 ***	0.000
	수도권	0.018	0.915	0.324 ***	0.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772 **	0.005	1.308 ***	0.000
	자연/공학계열	0.591 **	0.025	1.784 ***	0.000
	교육/의학계열	1.070 ***	0.000	1.117 ***	0.000
취업사교육	있음	0.252	0.162	0.032	0.641
어학연수	있음	0.002	0.995	0.318 ***	0.000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0.583	0.148	0.581 ***	0.000
	TOEIC 700점 미만	0.340	0.179	-0.035	0.753
자격증 개수		-0.019	0.642	0.012	0.557
직업훈련	졸업 전 직훈경험	0.107	0.695	0.534 ***	0.000
	졸업 후 직훈경험	-0.245	0.413	0.219 **	0.046
취업준비기간	졸업 후 취업준비	-0.163	0.634	-0.328 *	0.054
	4학년부터	0.498 *	0.076	0.648 ***	0.000
	4학년 이전부터	0.699 **	0.030	0.838 ***	0.000
<i>N</i>	2,264		6,205		
<i>-2LL</i>	1,405.649		5,768.203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 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다음은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으로의 취업과 취업준비노력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지표로 Jencks et al.(1988)에서는 임금수준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접근법, 일이 가지는 위세를 강조하는 사회학적 접근법, 그리고 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강조하는 심리학적 접근법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 역시 다루고 있다. 아직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정규직, 종사자수 300인 이상의 기업체,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9세 이하의 월평균임금(144만 원)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괜찮은 일자리로의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취업준비노력에 대한 분석에서 성별, 전공, 취업준비 여부, 현재 가구소득, 그리고 부모님 동거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남성, 그리고 비예체능계열의 전공이 유리하고, 특히 교육/의학계열이 상대적으로 취업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졸업 이후의 취업준비보다는 졸업 이전 재학시절에서의 취업준비가 취업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사교육은 이번 모형에서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동거는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을 고려한 취업효과 역시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유의하게 영향을 보이는 요인이 많았는데, 특히 학점과 어학연수, 그리고 직업훈련은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성적 역시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높은 성적의 영어성적에 대해서만 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노력이 전문대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층 대졸자의 대부분이 4년제 출신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 임금효과

임금효과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준비노력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임금 역시 ‘괜찮은 일자리’를 구분 짓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전문대보다는 4년제 대학의 취업준비노력들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도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과 상당부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표 III-21> 첫 일자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회귀분석)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대학지역	서울	0.060	0.343	0.149 ***	0.000
	수도권	0.065	0.128	0.055 *	0.09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089	0.140	0.204 ***	0.000
	자연/공학계열	0.057	0.322	0.287 ***	0.000
	교육/의학계열	0.078	0.266	0.256 ***	0.000
취업사교육	있음	-0.053	0.289	0.002	0.933
어학연수	있음	0.203 **	0.014	0.066 **	0.025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0.205 *	0.094	0.086 **	0.003
	TOEIC 700점 미만	0.029	0.711	-0.062	0.103
자격증 개수		-0.006	0.549	0.006	0.410
직업훈련	졸업 전 직훈경험	0.007	0.929	0.110 **	0.012
	졸업 후 직훈경험	0.160 **	0.025	0.053	0.194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준비	-0.014	0.858	-0.021	0.682
	4학년부터	0.088	0.182	0.105 **	0.017
	4학년이전부터	0.073	0.364	0.101 *	0.060
<i>N</i>		1,530		4,389	
<i>adj-R</i> ²		0.040		0.064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 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어학연수경험, 고득점의 영어성적, 현재 가구소득이 첫 일자리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님과의 동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형에서도 취업사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문대 졸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적게 나타났다. 대학성적이 좋은 것, 졸업 이후의 직업훈련경험이 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효과를 보면,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서울/수도권 소재의 대학출신일수록 졸업 이전의 직업훈련경험, 졸업 이전의 취업준비가 고임금과의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소결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의 실태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활동의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실업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취업준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하여, 사교육을 포함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전문대학생 가운데 20.0%, 4년제 대학생 가운데 27.7%가 취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즉, 전체 대학생의 약 4분의 1이 취업을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비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위주의 사교육에 비하여 작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학에서까지 별도의 사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주로 취업에 불리한 계층-여성이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으로, 취업이 어려울수록 다른 의존수단을 강구하며, 그 의존수단이 사교육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 사이의 불일치를 사교육시장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연간 지출하는 사교육비용은 전문대학 학생이 약 92만 2,000원 정도였으며, 4년제 대학 학생이 약 98만 4,000원 정도였고, 월평균 1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중고등학교의 입시 중심 사교육에 비하여 사교육비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연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여러 모로 학생과 가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나 가족에게 사교육비를 의존하고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사교육으로 인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 가운데 영어에 대한 사교육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교육도 상당한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와 자격증 취득을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목적에서도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보충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전공의 불일치 등이 취업사교육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 준다.

사교육이외의 취업준비활동으로는 무료취업사이트 가입과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직업적성검사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무료취업사이트와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주로 직업을 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입사시험에 대비하는 직업적성검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사교육과 여타의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취업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이 취업에 대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전문대학 학생이 주당 평균 4.7

시간, 4년제 대학생이 주당 평균 6.4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학교수업이나 공부와는 별도로 취업을 위하여 소모하는 시간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취업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학생들은 자격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 학생들은 영어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체로 자격증, 영어실력, 학교성적이 성공적인 취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업경험인 인턴활동은 성공적인 취업에서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유추하여 보면, 전체 대학생 중 약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은 주로 취업에 불리한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과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취업준비활동이 실제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취업으로의 이행기간의 단축이나 첫 취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과 관찮은 일자리나 임금효과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이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즉, 취업률을 높이고 이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요인으로 공통적인 요인으로 수도권 또는 서울의 대학,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점, 어학연수경험, 장기에 걸친 취업준비, 그리고 직업훈련의 경험 등은 정의 효과를 보인다. 전공계열의 경우에는 취업과의 관련이 높은 교육/의학계열 혹은 자연/공학계열은 이행기간은 늦추지만 그 성공률과 관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는 높은 성과를 보인다. 그러나 '스펙쌓기'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은 고득점이거나 확실한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이 효과 역시 전문대 졸업자

보다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사교육과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나 자격증 역시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학 중 일자리가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실질적인 숙련을 쌓을 수 있는 사전 준비기능으로 취업에 작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용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숙련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역시 자격증의 내용과 일자리와의 연계점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들이 다양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준비는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취업의 성과요인으로 학교의 위치, 전공, 학점, 고득점의 영어성적, 그리고 어학연수경험이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취업사교육이 유의하지 않거나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취업을 결정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기초통계결과에서처럼 현 노동시장의 상황이 첫 직장의 경험을 통해 숙련을 쌓음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장기간을 투자하면서 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스펙을 쌓음에 있어서 확실한 결과물을 성취해야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의 노동수요가 서울 소재의 4년제의 좋은 학교, 그리고 한정된 전공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벽이 첫 직장 이후 이직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편입을 막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 경우,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실제 일자리는 그만큼 주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취업경쟁과정에서 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한 방식인 학원과 같은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스펙쌓기'로 대변되는 이러한 취업준비활동은 학교 소재지역, 전공계열, 성별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취업준비를 미리 준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업준비활동의 내용과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활동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이 기업이나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제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 분석

한상근

제1절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의 선별

본 연구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우수하게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의 성공요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란, 1) 구직처 개척,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 인턴십,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 기업체와 원활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며, 3) 직업진로 관련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취업지원 우수대학의 사례를 선별하였다. 사례선별을 위해서 했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의의, 우수사례, 관련쟁점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추천받기도 하였다. 전문가협의회에는 대학 취업지원조직의 실장 혹은 팀장,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확충 사업 담당자 등이 참가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우수대학을 선별하였다. 대학의 우수사례를 객관적으로 선별하기 위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실장 혹은 팀장(관련 전문인력 포함),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취업지원 확충사업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1>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를 추천한 전문가 명단

	성명	소속	직책
1	강○○	가 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실장
2	정○○	나 대학교	취업마케팅팀 팀장
3	김○○	다 대학교	취업정보실
4	신○○	라 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센터장
5	최○○	마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센터장
6	이○○	바 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연구실장
7	황○○	사 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8	권○○	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9	서○○	○○지방노동청	취업기능 확충사업 담당자
10	강○○	○○지방노동청	취업기능 확충사업 담당자
11	이○○	○○지방노동청	취업기능 확충사업 담당자
12	주○○	○○지방노동청	취업기능 확충사업 담당자
13	박○○	한국○○개발원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사업의 수행 및 연구
14	변○○	자 대학교	취업지원팀 차장

마지막으로, 문헌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학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취업기능 확충사업의 평가등급, 개별대학의 취업률과 정규직 비율,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문헌조사는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IV-2>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

범주	우수사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서울여대, 영남대 한국외대, 서강대	대림대, 인하공전 공주영상대
산학협력 우수사례	한양대, 경북대, 동국대	영진전문대, 두원공과대,
직업진로교육 우수사례 (커리큘럼 등)	경희대, 이화여대 인제대, 건양대	명지전문대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핵심적 연구방법은 심층인터뷰이다. 본 연구의 목적상 양적 데이터의 확보보다 우수사례에 관한 심층탐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심층인터뷰가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연구진은 결론 내렸다.

연구자는 심층인터뷰 항목을 구성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유의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사업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개별대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째, 우수사례의 기획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고난)은 무엇이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극복과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대학이 우수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셋째, 취업지원 우수사례에서 기관장, 보직교수, 취업담당인력 등 대학 주요 구성원들의 역할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넷째, 취업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기관장의 리더십, 교수와 취업 담당자의 열성, 보직교수와 취업담당자의 관계설정, 학교의 종류와 특성 등에 특히 유의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각 대학이 직면한 문제점, 정부지원사업의 문제점 등을 탐색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심층인터뷰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인터뷰는 한 대학별로 3시간 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자는 대학에서 취업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 즉 팀장급 혹은 실장급으로, 취업 관련업무를 수년 동안 수행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책임자는 행정직일 수도 있고 교수직일 수도 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수사례로 인정된 17개

대학 가운데 15개 사례의 담당자들이다. 세 대학교에서는 복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에 인터뷰 참여자는 15개 대학의 18명이다.

인터뷰 내용은 크게 7가지 주제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산학협력(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지원, 구체적 사례 탐구, 직업진로교육(커리큘럼), 취업지원조직, 쟁점, 향후 과제 등이다. 그러나 모든 사례별로 모든 주제에 관하여 인터뷰하지는 않았다. 대학별로 특성을 볼 수 있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장점이나 특징이 아닌 사업에 관하여는 대학담당자와 인터뷰하지 않았다. 특히 취업지원 프로그램, 산학협력(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지원, 직업진로교육에 관해서는 특징을 보여주는 대학담당자와 집중적인 인터뷰를 하였다.

<표 IV-3> 대학의 취업지원 우수사례 탐구를 위한 심층인터뷰 항목(안)

주제	소주제
취업지원 프로그램	-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 극복한 과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반
산학협력 (인턴십 및 현장실습)	- 산학협력사업 전반 - 대표적인 산학협력사업 -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 극복한 과정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구체적 사례 탐구	- 대표적 사례
직업진로교육 (커리큘럼)	- 직업진로 교과목 - 교과목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과정 - 이상적인 직업진로교육
취업지원조직	- 조직과 인원 구성 - 강점 -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업지원팀의 서비스
쟁점	- 취업지원사업의 주체 -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 - 정부지원사업 평가
향후 과제	- 현재 직면한 문제점 - 대안

제3절 취업지원 우수대학의 조건

1. 우수 취업지원조직의 조건

취업지원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수한 취업지원조직에는 일반 대학과는 차별되는 것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대학 내 취업지원조직의 위상 확보

우수대학의 경우 취업지원조직은 대학 내에서 위상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총장 직속의 처 혹은 실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취업진로지원처, 인적자원개발실, 취업마케팅실, 인력개발처 등의 명칭으로 총장 직속에 위치해 있었다.

독립된 처나 실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취업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학총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많으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취업업무를 맡아보지 않겠느냐. 전 그당시 노라고 했죠. 당시 학사 행정처 산하기관 부속기관이었어요. 나는 부속기관장은 안 한다. 그리고 취업정책이라는 것이 장애요인이 없어야 하는데 이거 뭐 내가 만들었는데 학사 행정처장에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다음에 총장님에게 물어야 된다. 그랬더니 총장께서 씩 웃으시면서 누가 부속기관장 하라고 했냐. OOOO처로 승격을 하고 독립부서로 나가서 하여튼 취업에 대한 정책을 입안을 하고 대신에 그것에 대한 결과도 책임져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중략) 그렇게 해서 제가 맡게 되었어요.

(K 대학교 참여자 하)

대학 내에서 취업지원조직의 위상이 높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학생들을 위한 취업스터디 룸, 기업의 취업 설명회 상설부스 확보 등으로 공간도 사업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나.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취업지원 우수대학은 취업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었다. 전문인력의 유형은 다양하다. 먼저, 행정직 가운데 취업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행정직은 순환보직제이다. 그래서 전문성을 쌓기가 힘든 구조인데, 우수대학의 경우는 취업전담인력에 한해 순환보직제에서 예외 적용하는 사례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O 대학교의 경우는 취업지원실장이 10년째 장기근속을 하고 있었다. H 대학교의 경우는 취업부서에 한하여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서 이곳의 담당자들은 6~10년의 경력자들이었다. 이들 경력자들은 취업지원 분야에서 지식과 활동의 수준이 전문가급에 이르고 있다.

우리 O 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순환보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부서에 한해서요. 제가 10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O 선생님이 6년 정도 되었고요. O 선생님도 6년 되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입사하고 난 이후에 계속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O 대학교 참여자 러)

두 번째 유형은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이다. 학교에 따라서 상담컨설턴트, 취업지원관, 잡매니저, 직업상담원 등으로 불리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학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다. B 대학교의 경우 상담컨설턴트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학에 전속되지는 않았고 특정요일을 정해 저녁에 상담을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기업에 있는 분들이신데 HRD, HRM 등에 관계없이 HR 파트에 있는” 분들이다(B 대학교 참여자 나).

세 번째 유형은 취업전문가를 교수 신분으로 선발하는 경우로, 이러한 전문가는 취업전담교수로 불린다. 취업전담교수는 취업 관련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조직에 소속되어서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진행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네 번째 유형은 취업업무를 지원하는 연구원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취업지원조직의 연구원은 취업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행정직의 업무와 절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취업전담교수나 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직들이 순환보직제로 수시로 이동을 해도 이들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연구원과 행정직의 업무는 “탁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행정인력들이 바뀌더라도 고정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결되는” 측면이(D 대학교 참여자 마) 있어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 취업지원조직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취업지원조직이 능력과 열성이 있는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은 우수 취업지원조직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에 인터뷰를 수행한 대다수 대학에서는 취업지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성과 열의가 넘치는 적극적 태도의 취업전담자를 갖추고 있었다. 다수의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능동적인 태도로 취업 상담과 취업지도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인재(人才)가 있는가가 중요했다.

모 대학은 10여 명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일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그 사람들의 열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이 되겠지요. 저는 아이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I 대학교 참여자 타)

취업지원 우수 대학 대부분은 전체 인원과 관련 없이 전문성과 열성을 함께 갖춘 인력을 학교별로 한 명 정도 갖추고 있었다.

2. 취업지원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가.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

주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지도를 하는 대학은 사업 운영 시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운영 시 문제점은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 산학협력 중심형 대학, 취업프로그램 중심형 대학 등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첫째, 취업교과목 적격교수 찾기

대학교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다수의 교수가 필요하다. 취업교과목을 실효성 있게 강의할 수 있는 적격교수를 찾는 일은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취업교과목을 지도하는 외부인력(멘토 교수)을 모시는 D 대학교의 경우 인사담당자 섭외가 어려웠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2005년에 개설이 됐는데 멘토교수를 모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취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D 대학교 참여자 마)

힘들게 외부 전문가를 섭외했다고 해서 강의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별로 수준과 특성이 있어 외부의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인사 관계자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이다. 그런 분이 와서 “토익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는 영어 역량이 필요합니다. 회화능력을 키

우십시오.” 애들 그 얘기 들으니까 토익을 안 해요. 회화만 하지요.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 회사에 지원하는 애들은 토익점수가 최소 750, 800점, 900점인 애들인데 그것보다는 회화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건 다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그 전제를 얘기를 안 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당신 입장에서만 얘기하니 까 애들 입장에서는 진로가 어떤 면에서 호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취업교과목의 운영이 많은 대학에서 일반화되고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애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을 잘못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그 교과목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I 대학교 참여자 타)

둘째, 학과교수의 무관심과 무지

취업교과목 운영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교수가 왜 학생들 취업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학과교수들의 무관심 혹은 반발이다.

제일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우리 학교 안에 구성원들, 특히 교수조직들, 교수들과 부딪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니 왜 교수가 학생들 취업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참 많았습니다. 지금에도 간혹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H 대학교 참여자 카)

학교 당국에서는 외부인력보다는 내부인력, 다시 말해서 교내교수를 강의에 활용하라고 하나, 취업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수를 찾기를 힘들다. 교수들의 주 관심은 자기 전공분야이기 때문이다. 외국어와 컴퓨터와 같은 경우는 강의는 가능하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문제이다.

셋째, 바른 직업관 교육이 아닌 취업스킬 연마

취업교과목 강의에서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취업스킬만 연마하는 강의이다. 취업스킬은 취업 성공에 있어서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직업과 취업에 관한 의식을 바꾸는 교육이 아니라 취업에 관한 스킬 교육으로 전락되는 사태는 문제이다.

취업은 교과목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단순히 스킬만 쌓으면 된다. 면접스킬, 자기소개서 스킬, 이런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근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인생설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뤄진 결과가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별로 없다. 그게 결국은 취업교육의 실패이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I 대학교 참여자 타)

넷째, 취업교과목 담당자의 업무 집중

대부분의 대학에서 취업교과목을 운영하는 인원은 소수이다. 취업교과목의 수강인원이 많은 대학의 경우 취업교과목 담당자는 교육 자체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교과목을 연구원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목 수강인원이 1천 명 정도가 되면서 교과목만 운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경력개발센터라는 공간이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상당히 업무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D 대학교 참여자 바)

나. 산학협력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

첫째, 전공과 적합한 인턴기업체를 찾는 문제

인턴십과 주문식 교육과 같이 산학협력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대학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한 협력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점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평소 학생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어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기업체 협조를 학교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C 대학교 참여자 라)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적합한 기업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전공 관련성이 없는 기업에서 실습을 하겠다고 아는 기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둘째, 산학협력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인식수준

협력기업체가 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보는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에서는 인턴십을 기업이 값싼 아르바이트생을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기회로 생각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대학이 취업에 관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화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대학도 현장실습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대학은 그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랄까 껌데기만 보면 대동소이하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실제로 움직이냐는 것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현장실습을 나갔지만 현장에서는 산재라는 이유로 위험한 것을 절대 맡기지 않고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가서 청소만 하다가 왔어요.

(L 대학교 참여자 거)

기업들은 자신들의 맘에 안 들면 맘에 안 든다고 할 거예요. 대학의 어떤 아카데미즘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 아카데미즘이 진짜 우리 기업에 필요로 한 부분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대학이 그런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교육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업은 또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중략) 기업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이거든요 그 수혜자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네 주장만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취업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의 상부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과 취업부서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도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대학교 참여자 가)

셋째, 학과교수의 비협조

전공적합성이 있는 기업체를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과교수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다수의 학과교수들은 산학협력사업에 무관심하고 일부 교수들은 현장실습을 통해서 수업은 안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데 대하여 반발을 하기도 한다.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수한테 수업을 안 들었는데 학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지요. 총장선거 할 때 되면 총장후보들한테 교수들이 이야기를 하나까. 총장의 입장에서는 되고 나서는 이거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가서 얘기 들어 보면 존치시켜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많이 받아 조건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C 대학교 참여자 라)

현장 실습 학생을 모집할 경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애들을 직접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깐 단과대학으로 팀을 분배해주고 단대에서 애들을 모아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서”(C 대학교 참여자 다) 사업 수행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넷째, 인턴십 전담인력의 부재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대규모 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나 대다수 대학에서는 전담인력 없이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의 외형만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대학이 우수대학을 벤치마킹하지만, 실패하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전담인력의 부재이다.

(다른 대학의 총장이) 직원을 보내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OO대에 가서 보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인력이나 투자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나면 직원 하나 아니면 다른 직원 하는 업무에 묻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내 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세 명이고 이 사업의 실습생이 한 명 붙어 있어요. 실제 네 명이 하고 있는 셈이지요. (C 대학교 참여자 다)

다. 취업프로그램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

정규교육과정 외의 취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을 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외부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한 일회성 사업 추진

현재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취업 관련 전문 업체에 의주를 주고 있다. 취업 관련예산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내부에 전문인력이 없는 대학 입장에서는 아웃소싱을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웃소싱 업체가 수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벤트성 행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개별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특수법인 형태의 일부 기관이 아웃소싱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아웃소싱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다른 민간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1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850만 원에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에서 할 때는 강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최고 8만 원 수준 최하 3만 원 수준의 강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실적은 많이 부풀려 봤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쪽이 굉장히 공신력 있고 좋은 기관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쓸데없는 자격증만 자꾸 따게 만들고 어떤 불필요한 취업교육만 시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J 대학교 참여자 타)

교과부와 고용부로부터 제공된 재정지원사업을 쉽게 사용하는 방편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아웃소싱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인터뷰에 응한 한 전문가는 “저는 그런 아웃소싱을 절대 반대해요. 아웃소싱 준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돈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J 대학교 참여자 파)라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떠넘기기식으로 아웃소싱업체에 일을 맡겨버리는 태도는 사업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둘째,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

정규 교과과정 외부 프로그램으로서 학생 모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성공한 프로그램도 학생 모집에 부담이 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딱 이 프로그램을 들어서 취업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중략) 왜냐하면 아무리 학생들의 호응이 좋고 잘되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제한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200명도 딱 차네 그래서 내년엔 500명을 해볼까 그러면 안 돼요. (F 대학교 참여자 자)

특히 미취업졸업생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수강생 모집이 아주 어렵다.(G 대학교 참여자 차) 졸업생들은 미취업상태라도 학교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순응하기 어려운 심리적 기제도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제공되는 마일리지 형태의 인센티브제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F 대학교 참여자 자).

셋째,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의 문제

외부 용역업체에 사업을 아웃소싱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대학이 아웃소싱을 선호하는 원인은 프로그램을 담당할 인력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관리담당자가 그 업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프로그램의 승패를 좌우한다. 우수 프로그램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停滯)하기 때문에(O 대학교 참여자 리) 프로그램 담당자의 기획과 관리 능력이 문제시된다.

저희가 이것을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업체를 끼고, 전문가들을 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하고 실행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해주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끝까지 잘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제가 보기엔 힘든 것 같았어요. (E 대학교 참여자 사)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더라도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어려운 과제가 된다.

라. 공통적인 어려움

이러한 유형별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다수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어려움도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인력의 문제

인터뷰 참여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전문성 결여, 상담 전문인력의 부족, 순환보직으로 온 취업지원 보직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둘째, 학과교수들의 비협조

우리나라의 다수의 대학교수들은 취업문제에 무관심하며 교수가 취업을 책임지어야 하느냐의 문제에 회의적이다.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과교수들의 비협조는 장애요인임에 틀림없다.

셋째, 복잡한 예산 사용절차

이번 인터뷰에 참가한 다수의 취업지원 담당자들은 취업 관련 수행에 있어서 복잡한 예산사용절차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나치게 경직된 예산 사용방식, 빈번한 감사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적했다.

넷째,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부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의 취업상담을 할 때 적절한 공간이 부족한 것은 다수의 취업지원조직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번에 인터뷰에 응한 일부 우수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찾아오기 어려운 곳에 취업상담실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

3. 취업지원 우수대학의 성공요인

앞서 살펴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학의 경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업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역시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 산학협력 중심형 대학, 취업프로그램 중심형 대학 등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가. 교육과정 중심형

정규 커리큘럼에서 진로교육, 취업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중심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인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첫째, 취업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들은 교내의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취업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우리학교는 다른 전문대학에서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해요. 교양이 8학점이면 졸업 인데요. 진로취업과 관계되는 교양과목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취업지원조직이 운영하는) 학점이 4학점이예요. 50%이예요. 영어가 필수거든요. 영어 필수 있지. 이거 듣는 애들은 인성지도세미나도 필수로 있지 이런 거 빼면 다른 과목은 들을 수가 없어요. (J 대학교 참여자 파)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대학들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교육과정을 통한 취업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 박람회하고 캠프하고 그런 양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최소한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주된 것은 첫 번째

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과목의 운영, 물론 교과목을 많은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양필수화하고 있어서 1학년들에게 진로교과목이 필수화되어 있고요. 1학년 2학기 때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이라는 교과목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들 올해부터는 3학년 2학기 때로 올해까지는 확대를 해서 앞으로 3학년 1학기 때로 옮길 예정인데 취업전략과 경력관리라는 교양필수 교과목이 1학년 때와 4학년 때 있습니다. (I 대학교 참여자 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취업교과목이 이처럼 자리 잡기까지에는 CEO나 대학본부의 의지와 지지가 있었다(B 대학교 참여자 나).

둘째, 취업전담교수의 확보

이번에 인터뷰를 한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 가운데 일부는 취업전담교수를 확보하여 취업 교과목 강의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전담교수는 적지 않은 취업 강의를 책임지고 강의의 질을 높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조직의 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보직을 맡으신 분이 (중략) 2~3년 동안 좌충우돌하다가 이제 알만 할 때쯤 되니까 보직을 놓거든요. 모든 대학이 보직교수의 처장이나 센터장이 그러지 팀장, 과장 그러지 직원들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모든 대학에서 그 중심을 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교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사회에서는 교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I 대학교 참여자 타)

셋째, 내부인력을 교원으로 최대한 활용

취업 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아웃소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내부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내부인력은 자기 대학의 사정과 학생들의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강의를 제공한다. D 대학교의 경우는 취업지원조직에 교육연구 분야에 5명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원들은 취업교과목을 담당한다.

강의나 여러 가지 학생 관리나 상담이란 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하고 싶어도 인적 구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외주를 많이 주는 형태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저희 학생 특성에 맞춰서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수사례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D 대학교 참여자 마)

넷째, 취업교과목의 양적 확대보다 내실화

우수대학은 취업 교과목의 양적 확대는 물론 강의의 질을 제고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또,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B 대학교 경우는 수강인원을 제한하여 취업교과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우리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70명으로 묶어 놔어요. 다른 대학은 막 인원을 엄청 많이 늘리는데 우리는 이제 질까지 고려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70명 x 10과목이니까 840명이 한 학기에 듣고 있어요. (중략) 한 학기에 840명이 취업진로 마인드가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B 대학교 참여자 나)

I 대학교는 취업 교과목의 일환으로 취업 면접 컨설팅을 기획했는데, 실효성 있는 면접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우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애들이 복장을 갖춰 입고 미리 서류를 내고 와서 모의면접을 봤을 때 전부 캡코더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올려서 자기가 한 것은 애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면접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자가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요. (I 대학교 참여자 타)

다섯째, 학생들의 취업인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교육

우수사례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취업의 현실을 스스로 인식케 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했으며, 이는 졸업 후 취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니네들 눈높이를 조절하려고 하지 마라. 눈높이 내려 하향취업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대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니네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그것을 냉정하게 데이터를 갖추고 애들한테 제시해요. (중략) 취업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주의를 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들이 눈높이 조절이라고 해서 하향 취업이 아니라 내 여건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도록 저는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I 대학교 참여자 T)

나. 산학협력 중심형

인턴십이나 주문식 교육 등으로 기업체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취업지도를 하는 대학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턴십 제도의 제도화

인턴십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교수는 물론 학생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학점이나 졸업요건 등의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실습 우수대학인 C 대학교는 현장실습을 18학점까지 인정하고 있다. 현장실습으로 유명한 전문대학인 L 대학교는 2주 이상 현장실습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원(1)과 투(2)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 공과계열 학생들은 무조건 3주수를 해야지 졸업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3주 이수율 하지 않으면 아무리 80학점을 뺐다고 했더라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결요건이 되지요. (L 대학교 참여자 거)

둘째, 적극적으로 협력업체 발굴

현장실습을 하려는 학생들이 전공에 맞는 기업체에 가기 위해서는 기업체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우수사례의 대학은 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고 있었다. C 대학교는 현장실습을 전담하는 인력을 3명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기업체 확보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일단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홍보 리플릿을 보내고 한번 읽어보고 원하는 기업은 전화도 오고 한 10년 넘으니까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잘 따라서 잘되고 있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C 대학교 참여자 라)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산업체 방문을 의무화하고, 개인별로 기업체 방문횟수를 할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전공별로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산학협력 우수대학의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는 전공별로 기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대학은 이미 산학협력을 체결한 다수의 기업을 확보하고 있으며(A 대학교 참여자 가), 주기적으로 산학협동회의를 개최하였다(M 대학교 참여자 너).

특히, 전공별로 기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의 취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3가지 정도의 관심 있는 사이트를 지정해 그 사이트의 관리상태를 한 6개월 정도 체크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사이트의 문제점은 물론 개선방안까지 만든 후 해당 CEO를 모아 설명회를 갖죠.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피드백을 얻고 해당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L 대학교 참여자 거)

교수들이 기업체를 방문 할 경우 해당기업의 대외협력 브로슈어를 2개씩 가지고 오게 합니다. 하나는 교수가 가지고 하나는 산학협력처에 두고 계속 모으죠. 이렇게 모아진 브로슈어를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수정해 보라는 과제를 줍니다. 나중에 해당 CEO를 모셔놓고 전시회를 엽니다. 기업 CEO들은 그 자리에서 맘에 드는 브로슈어를 만든 학생을 채용하기로 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기도 하죠.

(L 대학교 참여자 거)

넷째, 참여학생을 위한 인센티브제 확립

우수대학은 인턴십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점 인정뿐만 아니라 실습수당과 경력을 연계 하고 있다. 실습수당 자체가 인턴십의 본래 목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턴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기업체 취업이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참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학점이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실습수당을 받으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실습이 필요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도로 나뉘었어요. 이것을 하면서 기업이라는 현장 느낌이 아마도 안 갔다 온 학생들하고는 다를 것이라 생각해요.

(C 대학교 참여자 라)

구미의 삼성이나 엘지 뭐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습생을 뽑아갈 때 채용과정을 통해 실습을 해보고 채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C 대학교 참여자 라)

다섯째, 마케팅 기법의 도입

성공한 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한 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의 작명과 홍보, 내용구성 등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런 실패를 한번은 해봤는데 영어프로그램이었는데 애들이 지레 겁을 먹고 오지 않았어요. 영어캠프라고 하니까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마케팅의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캠프라고 하면 애들이 영어만 사용하는데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배우고는 싶은데 영어로만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학생들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유인책을 마케팅 부분에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타이틀이나 작명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제가 작명했던 것은 '영어면접을 부탁해' 그런 식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애들한테 와 달게 했더니 확실히 이전과 차이가 많이 났어요.

(A 대학교 참여자 가)

다. 취업프로그램 중심형

첫째, 프로그램의 창조적 기획

우수사례의 대학은 취업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매너리즘을 탈피하고 일회성 행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였다. O 대학교의 경우는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의 명칭과 내용을 3년 주기로 변경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하나의 성공요인으로 판단된다. E 대학교의 경우는 다양한 기존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풀코스의 서비스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명칭은 뭐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략) 보통 특강은 일회성 특강으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직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해서 세부 직무에 대한 교육, 취업준비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면접법, 기업분석법 이런 것은 다 같이 진행을 하고 동시에 학생개별 상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에 지원할 때 그때마다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어떤 풀 서비스 코스라고 보시면 되요. (E 대학교 참여자 사)

둘째, 자기문제를 인식케 하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

성공사례를 보면 프로그램 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문제를 건드려줌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하여 개별 프로그램의 규모를 20~30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하여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많은 수를 놓고 듣거나 말거나 하는 거보다는 소수로 가는 것을 좋아하고, 소수도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로 선배가 주축이 되어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 대학교의 경우 “소규모로 적은 분야는 6~7명, 많은 분야는 20~30명 그렇게 해서 선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코칭을 해주고” 있었다. (E 대학교 참여자 사)

학생들 개개인들에 대한 관심과 상담은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결국엔 취업률을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린 이유는 첫 번째 관심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지속적인 상담. 거기에는 비전제시라든지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해가면서 애들이 스스로가 해보겠더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를 했지요. (K 대학교 참여자 하)

셋째, 프로그램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

프로그램 담당자의 책임감과 헌신은 취업프로그램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수사례의 담당자들은 철저한 강의평가로 강사를 선별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부업체에 프로그램을 맡길 경우에는 보다 세밀한 관심과 관리가 있었다.

외부업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취업지원조직의 담당자가 학생처럼 강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였다(O 대학교 참여자 러). 외부 업체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할 경우 담당자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외부업체가) 강의 이외에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다 저희 방에서 했고요. 정 안 되면, 동시에 3~4건이 이뤄져야 한다면 이 근처의 강의실을 저희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E 대학교 참여자 사)

넷째,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수대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F 대학교는 취업스터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도하였다.

취업스터디 사업은 영어회화스터디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실 텐데요. 학생들이 영어회화스터디를 원하는 애들이 모이는 것처럼 취업스터디도 모집을 학생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요. (중략) 취업과 관련해서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입사서류라든지 아니면 기업분석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학습하는 스터디를 너희들이 알아서 조직해라. 멤버를 너희가 뽑아라. 그 대신 우리가 승인해 줄게라고 합니다.

(F 대학교 참여자 아)

학생들 스스로가 조직한 모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였다.

다섯째, 학생들과의 긴밀한 인간관계 형성

취업지원조직과 학생들이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우수대학의 한 특징이다. 학생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손쉽게 수요조사를 할 수 있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각 대학의 취업부서의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거 했을 때 학생들이 과연 몇 명 올까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취업동아리 학생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다음 달부터 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라고 물어보고 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면 그 학생이 동아리에 가서 몇 명이 들을 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상인원이 70명인데 취업동아리 애들이 100명 정도 한다고 한다면 일반학생 참가도 고려해 130명 정도 늘려서 하고 아니면 70명 그냥 하거나 그래요.

(F 대학교 참여자 아)

학생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는 효과적인 취업지도의 기초가 된다. 인간관계에 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다.

결국엔 밀접한 인간관계가 기본이 되는 상담이 되어야 하지요. 서로의 약간의 신뢰도 없으면 듣는 사람도 '피상적으로 또 얘기하나 보다'하고 말하는 사람도 '야 이 자식 대충 알아들어야지'는 식으로 상담이 되다 보니까 교수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고 생각하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학생은 교수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결국은 신뢰가 밑에 깔리고 나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았죠.
(K 대학교 참여자 하)

라. 취업지원 우수사례의 공통적인 성공요인

유형별로 취업지원 우수사례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인터뷰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공통적인 성공요인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CEO의 적극적인 취업 마인드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대학 기관장의 마인드와 역할은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임 혹은 현 대학총장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지원 우수대학이 될 수 있었다. 취업 관련 학교예산 지원, 취업 관련 전문인력의 배정 및 확보, 취업지원조직의 위상 확보 등 대학총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우수사례 대학의 경우는 대학총장이 취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생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대학의 경우는 대학총장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

둘째, 전담자의 장기근속과 헌신

취업지원 우수대학에서는 헌신적이고 유능한 취업지원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대학 당국의 배려로 순환보직제에서 열외가 되어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우수 대학의 장기근속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셋째, 학과교수의 적극적 참여

일부 대학이지만 학과교수가 졸업생의 취업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은 그 성과가 좋았다. 유형과 관계없이 학과교수의 참여는 취업지원사업의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신생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넷째, 교풍을 취업전략으로 활용

대학들은 각기 고유한 교풍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지원 우수사례의 경우 교풍을 취업전략과 연결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글로벌 지향의 교풍을 가진 G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해외 관련직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틈새시장이기도 하다. 취업경쟁 시 인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듯 인성을 강조하는 H 대학교의 교풍은 취업 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4절 향후 개선방향

1. 취업지원의 주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지원을 하는 주체가 대학본부인가, 아니면 학과단위의 교수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 본 결론은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의 규모와 종류, 학교별 전통,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학과교수 중심

앞으로 대학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과교수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인터뷰 참여자들이 주창하였다. 학생들에 대하여 내밀하게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학과교수이고, 학과교수가 학생들을 멘투맨식으로 관리하면서 취업지도를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취업은 학과교수가 주도하고, 취업부서는 도와주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점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취업지원조직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취업지원조직에 전문상담원이 소수이거나 없는 상황에서(M 대학교 참여자녀) 취업지원조직이 상담 등 학생취업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나. 취업지원조직 중심

인터뷰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는 학과보다는 대학본부 차원의 취업지원조직이 취업지원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 절충형

제3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절충형이다. 즉, 대학본부의 역할, 학과교수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단과대학 수준에서 진로상담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 대학의 정책

가. 문제접근의 진정성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문제를 대학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

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정부의 대학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과교수가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학술논문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에서 취업은 구호에 불과하다. 취업과 관련된 순수한 교비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사업에서는 큰 규모의 지출을 감행하지만 대다수 대학은 자체 교비로 취업 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는 데는 인색하다. 또한 다수의 대학은 국고지원비를 아웃소싱 업체에 넘겨서 쉽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대학은 그동안 있었던 취업교과목을 폐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진정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의 취업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대학은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나. 이제는 취업의 질

이제는 대학이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일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을 높이는 데 몰두하고 있으나, 그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대학교육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것에 걸맞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력을 대학이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다. 학과교수의 적극적 참여

본 연구에서 취업의 핵심적인 주체로 언급된 학과교수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 모든 교수를 취업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과별로 '경력개발 책임지도교수' 혹은 '취업지도교수'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학과·전공별로 교수들이 취업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의 경우 교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교육의 질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라. 취업전담교수제 확대

취업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전담교수는 대학사회에 취업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취업 관련 교과목 운영, 취업상담, 취업지원조직 관리 등 취업전담교수가 대학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막중하다. 향후 취업전담교수제의 확대 여부는 우리나라 대학이 취업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마. 취업교과목의 확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교과목의 확대가 절실하다. 학년별로 진로 및 취업 교육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자기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직업선택 등 진로선택이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업교과목은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다.

바. 취업지원조직에 대한 투자확대와 역할정립

이번에 인터뷰를 한 대학은 취업지원 우수대학인 관계로 취업지원조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우수대학 내에서도 조직구성이나 전담인력의 규모, 인력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선진국 대학의 취업지원조직과 비교할 때, 취업 전담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하였으며, 서비스 공간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상당 인력의 확충, 기업·산업별, 단과대학별 담당자 지정 등은 이번 인터뷰에게 중요하게 제시된 정책적 지향점이기도 한다.

사. 기업정보의 생성과 활용

대다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에 관한 정보가 빈약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아 취업문제를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취업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직장선택을 할 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정보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정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이 연합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기업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3. 국가정책

가. 취업에 관한 일관된 정책목표 설정

본 연구에서 정부는 대학의 취업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그리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의 대학이 취업지원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확충사업'이 실행되고 나서부터이고,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 '인적자원개발처'로 관련 기능을 통합하였다. B 대학교의 사례는 정부정책이 대학교의 조직구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보다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 대학에서 핵심적 문제라면, 여기에 걸맞게 대학과 교수평가의 기준 또한 변화해야 한다. 교과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취업률과 충원률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다. 여기에 덧붙여 대학과 교수평가에도 취업과 관련된 요소들이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

나. 재정지원사업의 합리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취업 관련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취업 관련 용역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예산사용과 관련된 과도한 개입에 따라 대학담당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대학의 취업지원 담당자들은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기본적인 진로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성격 이해부터 새롭게 진로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는 것이 대안이다. 이를 위한 종합적 진로교육계획안이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된다.

제5절 소결

지금까지 취업지원 우수대학 담당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사업의 어려움, 성공요인, 향후 과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중심형 대학의 사업상 어려움은 ① 취업교과목 적격교수 찾기, ② 학과교수의 무관심과 무지, ③ 바른 직업관 교육이 아닌 취업스킬 연마, ④ 취업교과목 담당자의 업무 집중 등이었다. 산학협력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은 ① 전공과 적합한 인턴기업을 찾는 문제, ② 산학협력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인식 수준, ③ 학

과교수의 비협조, ④ 인턴십 전담인력의 부재 등이다. 마지막으로, 취업프로그램 중심형 대학의 어려움은 ① 외부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한 일회성 사업 추진, 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 ③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의 문제 등이었다.

취업지원 우수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유형별로 성공요인을 탐구한 작업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부분이다. 그리고 유형과 관련 없이 공통적인 성공요인도 도출했다. 그것은 ① CEO의 적극적인 취업 마인드, ② 전담자의 장기근속과 헌신, ③ 학과교수의 적극적 참여, ④ 교풍을 취업전략으로 활용 등이다.

그러면 앞으로 대학의 취업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학과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하였다.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핵심은 취업문제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문제를 우리나라 대학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학술논문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제도에서 취업은 구호에 불과하였다. 취업과 관련된 순수한 교비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다수의 대학은 취업 관련 국고지원비를 아웃소싱 업체에 넘겨 주었다. 이번 연구대상인 우수사례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취업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적지 않았다.

취업 문제를 대학의 중요한 문제로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이 향후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번 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학 가운데 다수의 사례는 취업에 관한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취업 관련대책을 세우려는 대학들은 우수 프로그램을 모방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 취업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즉 전담인력 확보, 취업지원조직의 강화, 교비투입 등과 같이 학교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대학졸업자의 직업 관련 재교육 선택과정과 과제

이영대

제1절 머리말

청년들의 취업의 어려움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을 위해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학의 과잉교육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나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폴리텍과 전문대학에 재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규모만 밝혀졌을 뿐 그 주체인 폴리텍 학생이나 전문대학생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발표된 바 없다.

이에 대학졸업자의 폴리텍과 전문대학 과정으로의 유턴 선택이 대졸 청년 노동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폴리텍이나 전문대학으로 유턴한 대학생들의 실제 선택과정과 입학 후의 적응과정 등을 심층 면담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유턴 학생을 실제로 교육하는 폴리텍과 전문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한 경로인 대학 졸업 후 폴리텍과 전문대학으

로의 유턴을 선택한 학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폴리텍과 전문대학이다. 폴리텍법인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의 협조를 받아 준비된 조사표를 2010년 10월 초에 발송하였다. 설문내용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 혹은 전문대학에 유턴 입학한 자들의 유턴 입학동기, 입학과정, 입학 후 학교생활, 애로사항, 정부에 대한 건의 등으로 구성된 50문항이다. 설문대상은 34개 폴리텍 캠퍼스와 전국의 162개 전문대학 캠퍼스 재학생으로 총 폴리텍 272명, 전문대학생 1,296명에게 설문문항을 발송하여 2010년 10월 18일까지 회수된 14개 폴리텍 캠퍼스 100명, 42개 전문대학의 3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및 독립변인에 의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폴리텍 학생 4명과 이들을 지도하는 폴리텍 대학교수 4명에 대해 그룹집중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FGI)를 2010년 10월 15일 폴리텍 I 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간호, 유아교육, IT, 치기공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에 대한 FGI가 2010년 10월 23일 개최되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유턴한 직업전문학교 학생에 대한 FGI는 2010년 10월 22일에 실시되었다.

<표 V-1> 폴리텍과 전문대학생, 직업전문학교학생 대상 FGI 내용

영역	항목
기준에 졸업한 4년제나 전문대학에 대한 정보	- 졸업한 대학에서의 전공학과 - 재학시 전공학과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증
기준의 전공을 살리려는 노력 정도	- 구직활동 여부 - 구직활동기간 - 구직활동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 - 면접을 본 횟수 - 일자리에 지원한 후 합격하여 제의를 받았는지 여부 - 일자리를 거절한 경험 여부 - 구직과정에서 어려운 점 - 구직활동기간 중 취업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 경험 여부

<표 계속>

영역	항목
폴리텍 진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한 이유 - 현재 폴리텍 대학과 기존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과의 관련성 - 동일전공을 선택 여부 - 전공변경 시 전공변경 이유 -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만족 여부 - 학과선택에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 학과선택에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만족 여부
앞으로의 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의 계획 - 희망직업명 - 희망직업과 현재의 전공과의 관련성 - 미래직업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 - 미래희망 직업결정 여부 - 희망직업 이유
교과부, 고용노동부, 대학에 대한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에 대한 건의 - 고용노동부에 대한 건의 - 대학당국에 대한 건의

<표 V-2> 폴리텍과 전문대학 교수에 대한 내용

영역	항목
재입대학생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중 유턴 학생의 비율과 추세 - 전공별 유턴 학생 추이(보건계열 등)
재입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한 이유 - 현재 재입대학과 기존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과의 관련성 - 동일전공선택 여부 - 전공변경 시 전공변경 이유 -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 학생이 선택한 대학에 만족 여부(일반학생과 비교) - 학과선택에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 학과선택에 입학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 학생이 선택한 학과에 만족 여부(일반학생과 비교)

<표 계속>

영역	항목
재입학대학생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경험 여부에 따른 유턴학생의 구직활동기간 - 취업을 못하여 유턴하는 학생의 특징 - 직업 부적응에 따른 유턴 학생 특징 - 다른 학생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데 따른 대책 - 학비와 생활비 부담문제 - 재입학대학생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
재입학대학생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입학대학생의 학습동기 - 재입학대학생의 진공에 대한 자세 - 재입학대학생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재입학대학생의 졸업후 희망진로 - 재입학대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재입학대학생을 위한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의 역할 - 노동부의 역할 - 특별 프로그램 도입 - 인성교육

제2절 대졸 미취업자 규모의 증대

최근 대학 졸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진학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학생의 기대 수준 가운데 대학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97.2%에서 2008년 98.6%로 높아질 정도로 매우 높으며, 최근에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왜 이렇게 대학 이상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는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에 의하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20.5%, 그런 편이다가 42.5%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63%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같은 조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3.7%, 그런 편이다가 48.1%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81.8%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조사에서 나타나듯 학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상

급학교 진학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청소년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에 진학한 비율이 1980년의 27.2%, 1990년 33.2%, 2000년 69.0%, 2008년 83.8%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2006년 이전만 하여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고등교육 진학률이 3% 이상 높았으나 2006년 이후로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2009년 84.9%(2003년의 경우 90.2%로 가장 높았음)이며, 전문계 고교의 경우 73.5%로 나타나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1985년 13.3%에서 1995년 19.2%, 2005년 67.6%, 2009년 73.5%로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대학원 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을 포함한 대학생이 1995년 189만 여 명에서 2000년 283만 여 명, 2009년 307만 명으로 증대하고 있다. 교육통계 DB에 의하면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가 1985년 309명에서 1995년 419명, 2005년 625명, 2009년 631명으로 증가되고 있다. 아마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의하면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 졸업 후 취업을 하려는 비율은 전문대학 재학생의 81.2%, 4년제 대학생의 62.2%로 취업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편이다. 대졸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2005년 67.7%에서 2009년 70.2%로 변화되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2005년 84.8%에서 2009년 86.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건강보험DB를 연계한 취업률을 발표하게 되면서 취업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53만 9,996명 중 건강보

험DB연계 취업자는 26만 7,003명으로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은 55.0% (전문대학 55.6%, 대학 51.9%, 일반대학원 70.7%)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학졸업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대상자인 50만 여 명 중 20만 여 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학교 소재지별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은 수도권 55.1%, 비수도권 54.9%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0.2%p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은 전문대학 53.7%, 대학 53.0%, 4년제 대학학원 67.0%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은 전문대학 56.9%, 대학 51.3%, 4년제 대학학원 75.2%로 나타났다. 남·여 성별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 58.3%, 여성 51.9%로, 남성 취업률이 여성보다 6.4%p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률은 전문대학 55.2%, 대학 47.9%, 4년제 대학학원 58.3%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0.8%p, 7.8%p, 20.6%p 낮게 나타났다. 여성 취업률이 높은 전공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농수산 92.1%, 토목 77.1%, 특수교육 76.1% 순이며, 대학은 의학 94.3%, 치의학 80.6%, 한의학 7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2010년 2월 조사에서 대졸 여성 실업자 수가 19만 6,000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대졸 학력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도 2010년 2월 실업자가 역대 최대였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10만 7,000명,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실업자 수는 8만 8,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여성 실업자 45만 9,000명 가운데 4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어학연수 등을 마친 대졸 여성들의 취업연령기라고 볼 수 있는 25~29세 여성 실업자는 8만 8,000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대졸 이상 여성의 실업률은 5.6%로 2004년 4월의 5.7% 이래 6년 여 만에 가장 높았다. 전문대 졸업 여성의 실업률은 6.6%, 대졸 여성의 실업률은 5.0%로 각각 전월에 비해 0.9%p와 2.3%p가 늘었다. 7대 계열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교육계열이 74.1%, 대학과 일반 대학원은 의약계

열이 각각 73.9%, 8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3절 대졸 청년 미취업자의 진로와 각종 정책

대졸 미취업자 중 상당수는 시간이 경과한 후 취업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 GOMS 자료에 의하면, 졸업 후 취업을 한 자들의 첫 일자리 소요기간이, 졸업 전이 47.3%이나 3개월 미만이 17.7%, 3~6개월 미만이 10.6%, 6개월~1년 미만이 10.6%, 1년 이상이 11.8%로 각각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갖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긴 편이고, 2~3년제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이 더욱 오래 걸렸으며, 학교 소재지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욱 오래 걸렸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특히 교육계열이 가장 긴 편이었다. 이것은 아마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졸업 후의 진로 가운데 두 번째는 대학원 진학이나 외국유학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의하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4년제 대학생이 12.1%이다. 세 번째 진로는 편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 의하면 전과나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전문대학생의 22.8%, 4년제 대학생의 14.0%나 되었다.

전문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학사편입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4년제 대학생은 같은 대학에서 다른 학과로의 전과와 졸업 이전에 다른 학교로의 편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편입하려는 이유로 전문대학생은 편입을 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함이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생은 적성고려, 취업전망, 대학평판, 학력상승(대학원 진학)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진로는 유학이다. 외국유학을 희망하는 4년제 대학생은 6.5%, 전문대학생은 2.6%로 각각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이나 폴리텍으로 유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교 전역 후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여섯 번째는 취업준비, 국가고시준비, 진학준비, 기타(전업주부) 등이다. 2010년 5월 통계청의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관련시험 준비자는 54만 명이다. 시험준비 분야는 기능분야 및 기타(25.5%), 일반 기업체 (16.8%) 등이다. 30~34세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관련시험 준비자는 8만 7,000명이다. 통계청 취업통계조사의 평균을 기준으로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생은 12만 8,984명,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 3만 3,031명, 기타(전업주부 포함) 다른 분야를 준비하는 인원은 2만 357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선임연구위원은 9~10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7일 공개한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란 논문에서 “대학 졸업 뒤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취업하기 힘들다는 낙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는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당시 전국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 2만 여 명이 얼마동안 취업자 또는 실업자로 있었는지 추적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2007년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분석결과 2005년에 일자리가 없었으나 2006년에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58%에 그쳤다. 반면 2005년에 취업한 사람이 2006년에도 취업한 경우는 85.1%에 달했다.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05년 취업자 중 2007년에도 취업해 있는 사람은 76.8%에 달했지만 2005년 실업자였다가 2007년에 취업한 사람은 63.7%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번 미취업 상태면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또 지난해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취업상태였을 때보다 이듬해 미취업기간이 3~4개월 늘고 전년도 취업하지 않은 시기가 1개월 늘면 다음해 미취업 기간은 0.2개월가량 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각종 정책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미취업 대졸생 지원 프로그램 사업’ 지원 대상에 지정됐다. 이 사업에는 대졸 미취업자 인턴조교 등 대학 내 채용지원사업과 대졸 미취업자 대학 내 교육

훈련지원사업이 있다. 노동부는 2010년 말까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3만 명에게 유급 직업훈련을 시켜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4월 말 현재 훈련을 받은 사람은 1,056명(목표치의 3.5%)에 그쳤다. 한국금융연수원은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명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텔러 과정' 등 4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이번 강좌는 연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전 과정을 원격연수(사이버연수, 통신연수)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인턴 438명을 모집하였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29세 대졸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근무기간은 7월 26일~12월 25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현장 체험과 직업탐색의 기회제공을 위해 정원의 1% 수준인 72명을 교육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다. 교육인턴은 만 35세 이하의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청년 취업준비생은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취업이 결정된 자,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여성 비중이 높은 인문계열 출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3월까지 훈련희망자와 훈련희망직종을 조사한 뒤 개인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훈련과정을 제공하며, 교육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구직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다.

제4절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 관련 재교육 선택

1.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선택현황

대졸 미취업자 중 일부는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 직업전문학교로 진학

하고 있다. 그 중 4년제 졸업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전문대학 학과인 간호학과, 보건학과, 유아교육과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 학생이 지원하고 있다. 전문대학 모집방법 중 졸업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4,766명(원래 모집정원은 3만 2,534명임)이나 졸업자 입학정원 이외 일반모집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수가 입학하는데, 정확한 파악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표 V-3> 전문대학 입학전형유형별 정원과 등록인원(2008학년도)

전 형 유 형	모집인원	등록인원
기회균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8,821	1,420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32,534	4,766
일반전형	137,469	132,402
전문계 고교 출신자(정원외)	8,986	5,909
취업자	104,556	90,555
특수교육 대상자(정원외)	573	50
합 계	292,939	235,102

주: 2009학년도의 경우 2만 4,645명의 모집정원이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인데, 17.3%인 4,267명만이 등록하였다.

폴리텍 대학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산업학사학위과정, 2년제로 정규 전문대학 과정과 동일), 그리고 기능사과정(1년 혹은 6개월 과정)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2010년 융합형 교육훈련시스템(이하 '크로스오버 과정') 9개 학과를 시범운영하는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학문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으로, 크로스오버 과정 도입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융합형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것이다. 크로스오버 과정은 한 분야의 전공능력 취득자가 한국 폴리텍 대학에 입학하여 현장 중심의 전공능력을 추가로 습득 후 융합형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훈련모델이다. 크로스오버 시범운영학과의 고학력자 입학률 평균은 77.5%, 총 9개 학과 중 3개 학과는 100%가 고학력자로, 융합형 교육에 대한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V-4> 2010년 융합형 학과별 고학력자 입학비율 현황

(6개 캠퍼스 9개 학과)

대학 (캠퍼스)	학과	직종	고학력자 입학률
서울강서 원 주	컴퓨터출판디자인	컴퓨터출판디자인	94.3%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기계	100.0%
	의용공학	의료기기제작	97.0%
익 산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기계	57.6%
	산업설비	자동화용접	29.0%
창 원	컴퓨터응용기계	머시닝센터	100.0%
	산업설비	특수용접	100.0%
진 주	산업설비	플랜트설비	54.5%
	산업설비	비파괴시험기기운용	61.8%
순 천	비파괴검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61.8%
계	9개 학과		77.5%

주: 고학력자 입학률=(2년제 전문대 이상 입학자/입학자)×100.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맞춤훈련과정도 운영된다. 한국 폴리텍 대학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지원의 일환으로 맞춤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졸 포함)를 대상으로 2개월~6개월, 주간 또는 야간으로 입체영상 제작 등 17개 과정을 한국 폴리텍 I 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등 12개 캠퍼스에서 2010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훈련비는 전액 국비지원, 교통비 월 5만 원이며, 훈련과정이 우선선정직종일 경우 훈련수당이 월 20만 원 지원(단, 훈련기간 중 출석일수가 80% 이상인 자에 한함)된다.

대졸 미취업자 중 폴리텍 대학으로 재입학한 청년들의 현황이 <표 V-5>와 <표 V-6>이다. 산업학사학위과정에는 전문대 중퇴자, 전문대 졸업자가 2010년의 경우 203명, 대학중퇴자 혹은 대학졸업자가 546명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가 174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30명으로, 약 304명이 기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 다기능기술자 과정에 입학하고 있었다. 기능사과정에는 전문대 중퇴자, 전문대 졸업자가 2010년의 경우 1,409명, 대학중퇴 혹은 대학졸업자가 1,441명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대졸업자가 1,063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946명으

로 2,009명이 기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 기능사 과정에 입학하고 있었다.

<표 V-5> 산업학사학위과정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경험자의 학력('08~'10년)

연도	정원	등록	학력별			
			대학졸	대학중퇴	전문대졸	전문대중퇴
2008	7,895	232(2.8)	58(0.7)	28(0.4)	123(1.6)	15(0.2)
2009	7,595	303(3.9)	95(1.2)	34(0.4)	140(1.8)	34(0.4)
2010	7,745	416(5.1)	130(1.7)	63(0.8)	174(2.2)	29(0.4)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표 V-6> 기능사과정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경험자의 학력('08~'10년)

연도	정원	등록	학력별			
			대졸	대학중퇴	전문대졸	전문대중퇴
2008	6,090	2,532(41.6)	802(13.2)	449(7.3)	1,091(17.9)	190(3.2)
2009	5,805	2,686(46.3)	871(15.0)	421(7.3)	16(0.3)	1,378(23.7)
2010	5,930	2,850(48.1)	946(16.0)	495(8.3)	1,063(17.9)	34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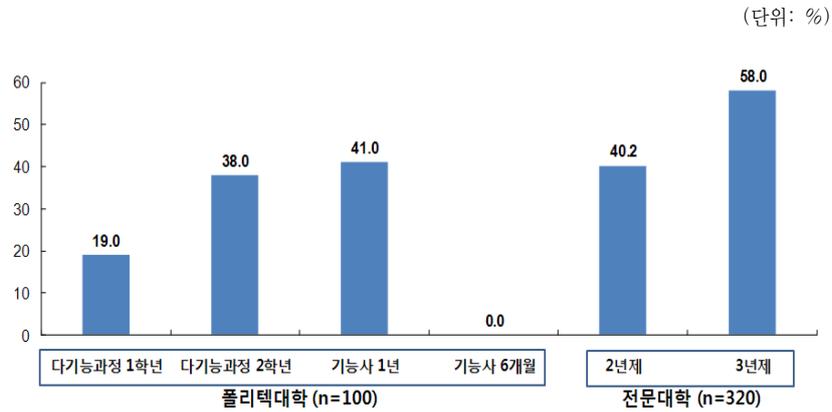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2. 대졸 미취업자 중 폴리텍과 전문대학으로 재입학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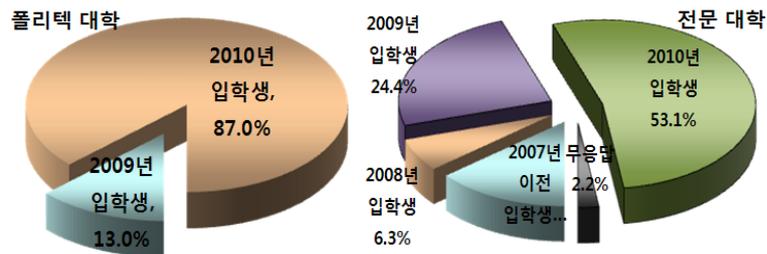
설문에 응한 폴리텍 대학 재학생 100명은 전국 14개 폴리텍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산업학사학위과정(다기능과정) 1학년 과정이 19%, 산업학사학위과정(다기능과정) 2학년 과정이 38%, 직업능력개발과정(기능사 1년)이 41%, 직업능력개발과정(기능사 6개월)은 응답자가 없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대학 재학생 320명은 전국 48개 전문대학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2년제가 40.2%, 3년제가 58.0%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V-1] 폴리텍과 전문대학 학생의 학년 및 과정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입학년도는, 2009년 입학생이 13%, 2010년 입학생이 87%였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입학년도는, 2010년 입학생이 53.1%, 2009년 입학생이 24.4%, 2008년 입학생이 6.3%, 2007년 이전 입학생이 14.0%, 무응답이 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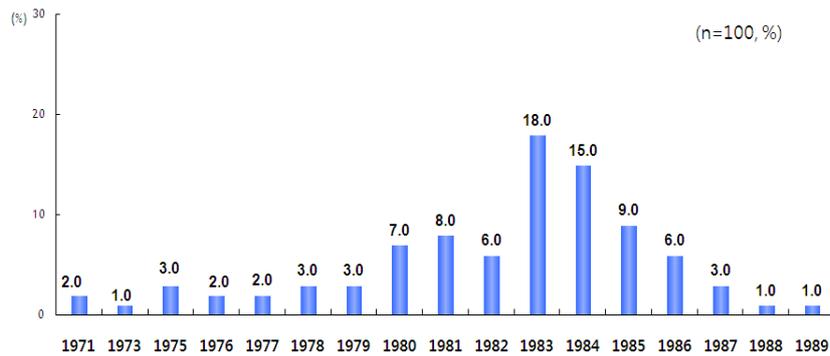
[그림 V-2] 전문대학과 폴리텍 학생의 입학년도



폴리텍 대학 재학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971년생부터 1989년생까지 다양하였는데, 1983년생이 18%, 1984년생이 15%, 1985년생이 9%,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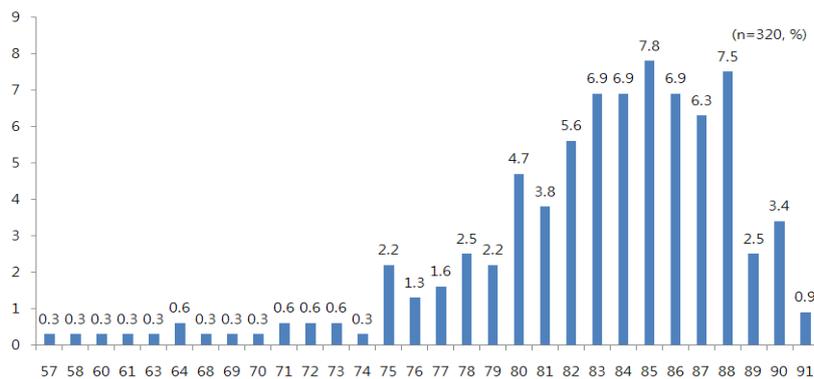
생이 8%, 1980년생이 7%, 1982년생이 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V-3] 폴리텍 학생의 출생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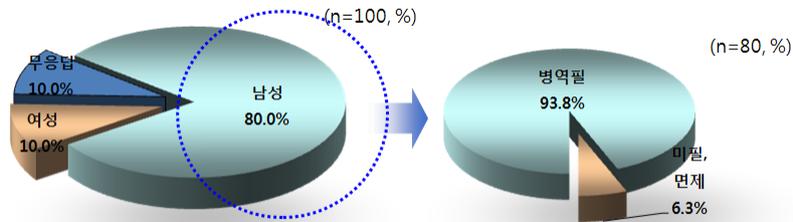


전문대학 재학생을 연령별로 보면 1957년생부터 1991년생까지 다양하였는데, 1985년생이 7.8%, 1988년생이 7.5%, 1986년생이 6.9%, 1987년생이 6.3%로 나타났다. 폴리텍 및 전문대학 재학생의 연령별 편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 연령층은 20대 중후반~30대 초중반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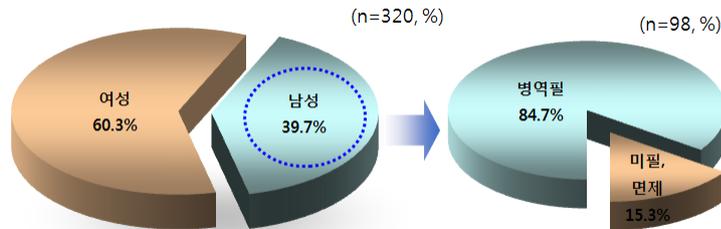
[그림 V-4] 전문대학생의 출생년도



[그림 V-5] 폴리텍 학생의 성별 및 병역필 여부



[그림 V-6] 전문대학생의 성별 및 병역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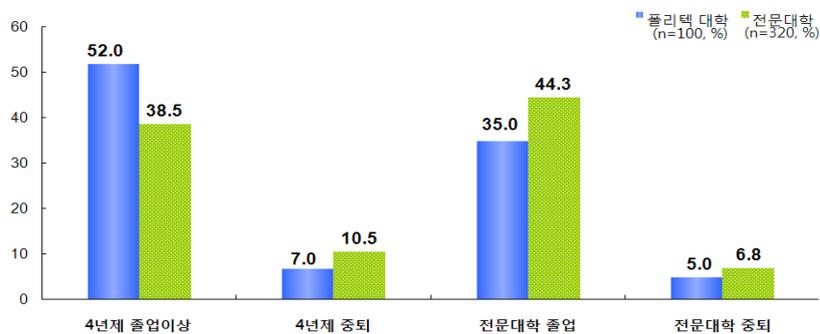


폴리텍 대학 재학생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0%, 여성이 10%, 무응답이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성 응답자의 93.8%(75명)가 병역을 필한 상태였다. 전문대학 재학생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39.7%, 여성이 60.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자 응답자의 84.7%가 병역을 필한 상태였다. 폴리텍과 전문대학의 성비를 보면, 성비의 차이가 크고 이것이 학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학력을 살펴보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52%, 4년제 대학 중퇴가 7%, 전문대학 졸업이 35%, 전문대학 중퇴가 5%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38.5%, 4년제 대학 중퇴가 10.5%, 전문대학 졸업이 44.3%, 전문대학 중퇴가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폴리텍 대학과 전문대학을 비교해 보면, 폴리텍 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13.5% 더

많았고,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이 폴리텍 대학에 비해 9.3% 많았다. 이는 폴리텍의 과정이 전문대학보다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재입학자들의 주 목적이 취업을 위한 재교육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 선택시 학위보다는 기술 습득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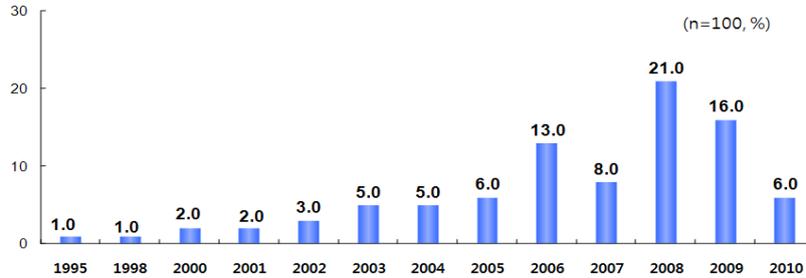
[그림 V-7]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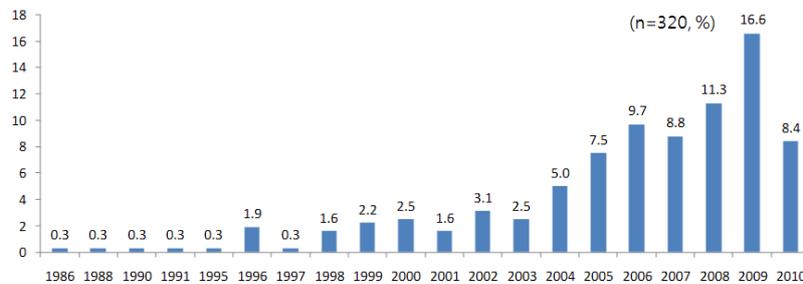
폴리텍 대학 재학생 중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들의 졸업년도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다양하였는데, 2008년 졸업생이 21%로 가장 많았으며, 2009년 졸업생이 16%, 2006년 졸업생이 13%, 2007년 졸업생이 8%이며, 이번에 막 졸업한 2010년 졸업생도 6%나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폴리텍 신입생들이 대학 졸업 후 1~2년간 직업생활을 하면서 폴리텍 대학으로 입학하고 있었다.

전문대학 재학생 중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들의 졸업년도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다양하였는데, 2009년 졸업생이 16.6%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졸업생이 11.3%, 2006년 졸업생이 9.7%, 2007년 졸업생이 8.8%, 이번에 막 졸업한 2010년 졸업생도 8.4%나 되고 있었다.

[그림 V-8] 폴리텍 학생의 입학전 학교 졸업년도



[그림 V-9]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학교 졸업년도



폴리텍과 전문대학으로의 재입학자들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V-7>와 같다. 폴리텍과 전문대학 재입학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비슷하지만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과 전문대학 재입학자들의 이전학력이 2년제 이상의 학력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폴리텍의 경우, 남성인 4년제 졸업자의 유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여성이 상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년제 졸업자보다는 2년제 졸업자의 유턴이 많았다. 이들 재입학자들의 최대목적이 '취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4년제 졸업자들의 폴리텍 대학의 선호는 산업사학사, 기능사과정, 그리고 크리소버 등 다양한 과정으로 학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배우고 숙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반면, 전문대학

은 이전 전공학과와 다른 학과를 입학·졸업함으로써, 직업 취득시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에 주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폴리텍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가 자동차, 건축, 산업설비 등 남성 위주의 학과에 치중되어 있는 것 또한 여성의 진입의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자대학이나 섬유패션대학 등이 존재하지만, 여성고학력자의 실업이 남성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과정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표 V-7> 폴리텍 및 전문대학별 재입학자들의 특성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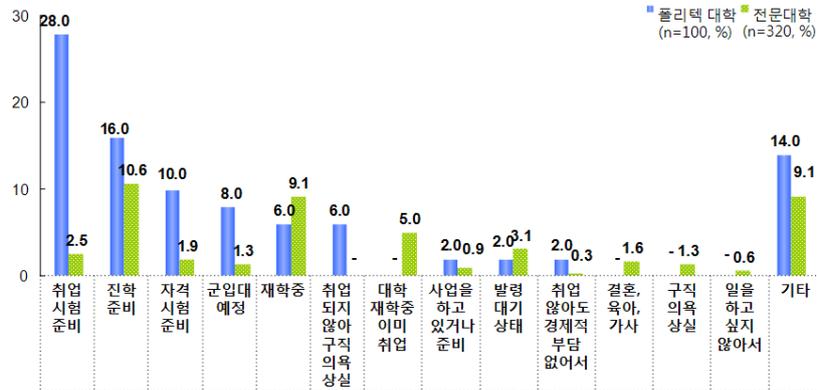
구분	폴리텍	전문대
성별	남성이 절대 다수 차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	1980~1986년생이 다수 (27~31세)	1982~1988년생이 다수 (23~29세)
입학전 학력	- 대학졸업자가 전체의 87% - 4년제 졸업자의 재입학이 상대적으로 많음.	- 대학졸업자가 전체의 82.8% - 전문대 졸업자의 재입학이 상대적으로 많음.
입학전학교 졸업연도	2006~2009에 상대적으로 집중	2005~2010에 상대적으로 집중

나. 폴리텍이나 전문대학 입학 이전의 직업활동

응답한 폴리텍과 전문대학 학생들의 이전 직업활동을 살펴보면, 응답자들 중 50%가 직업활동을 경험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업활동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는 표집 당시 직업활동을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50:50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이다.

폴리텍 대학 학생들 중 미취업경험자들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28%,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16%,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10%, 군 입대 예정이어서 8%, 재학 중이어서 6%,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서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 폴리텍과 전문대학생이 입학 전 직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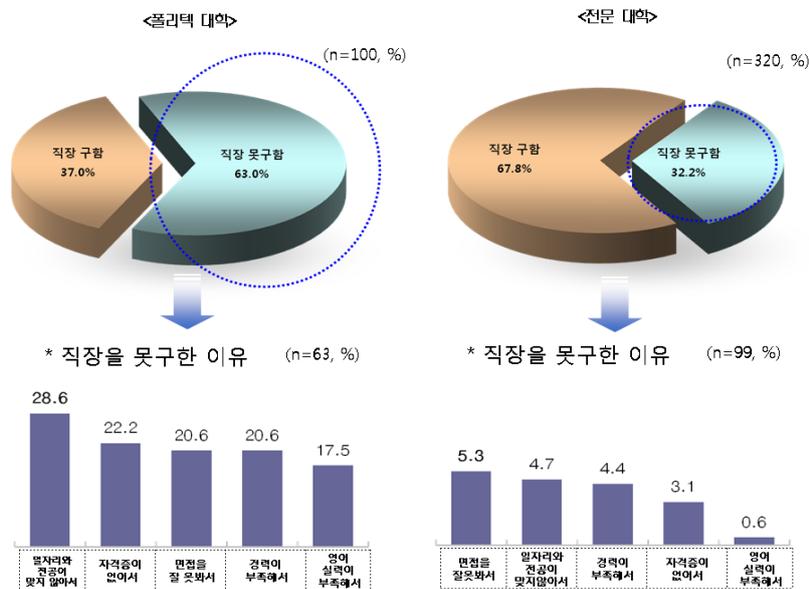


전문대학 학생들 중, 미취업경험자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10.6%, 재학 중이어서 9.1%, 대학 재학 중 이미 취업하여서 5.0%,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 대기 상태여서 3.1%,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2.5%,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1.9%, 군 입대 예정이어서 1.3%,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어서 0.9% 등으로 나타났다. 폴리텍 대학과 전문대학을 비교해보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군입대 예정이어서'에서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응답률이 전문대학 재학생의 응답률에 비해 많았다.

폴리텍 대학 재학생 중에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3%나 되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유로는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 28.6%, 자격증이 없어서 22.2%, 면접을 잘 못봐서 20.6%, 경력이 부족해서 20.6%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폴리텍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대 대학 재학생 중에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2.2%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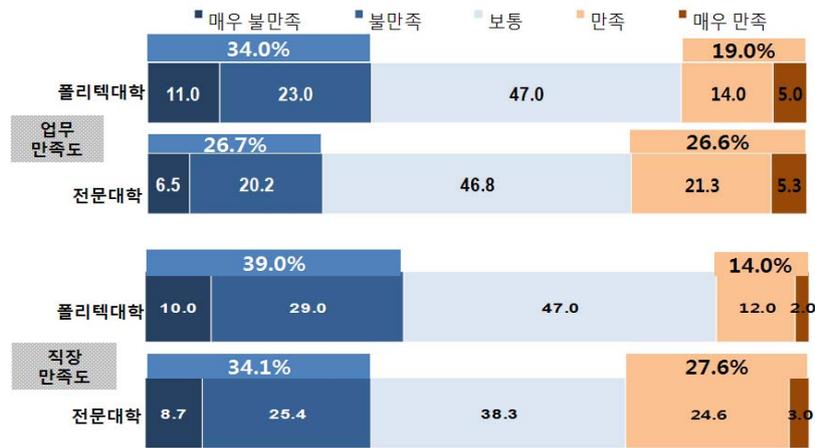
되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유로는 면접을 잘 못봐서 5.3%, 자격증이 없어서 3.1%,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 4.7%, 경력이 부족해서 4.4%,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0.6%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V-11]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이 직장을 못 구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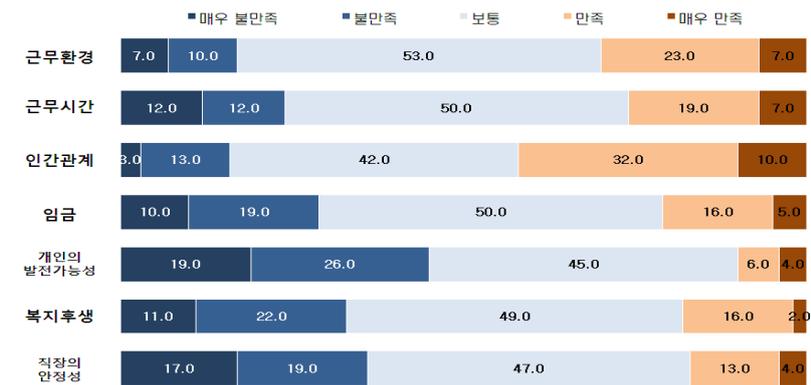
폴리텍 대학 재학생 중,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전문대학 입학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일자리는 평균 2.8개였다. 그 직장에서의 일(업무)에 대한 불만이 34%, 만족이 19%이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 39%, 만족이 14%였다. 전문대학 재학생 중,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전문대학 입학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일자리는 평균 2.8개였다. 그 직장에서의 일(업무)에 대한 불만이 26.7%, 만족이 26.6%이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 34.1%, 만족이 27.6%였다.

[그림 V-12]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업에 대한 만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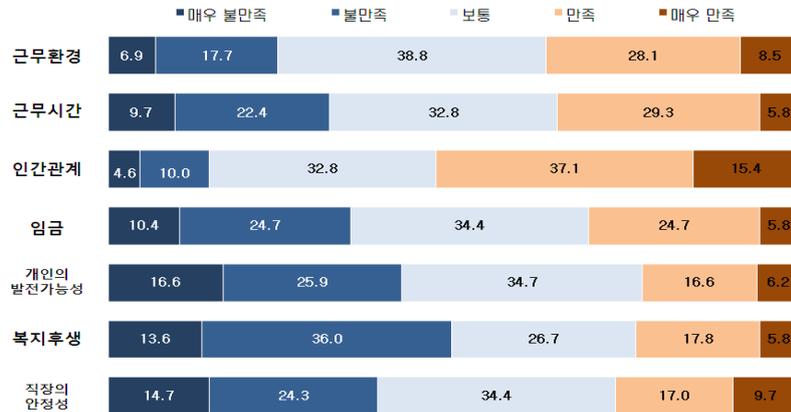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장의 근무환경별 만족 정도를 보면 만족도는 근무환경 30%, 근무시간 26%, 인간관계 42%, 임금 21%, 개인의 발전가능성 10%, 복지후생 18%, 직장의 안정성 17%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발전가능성(45%)과 직장의 안정성(36%)에서 불만이 많은 편이었다.

[그림 V-13] 폴리텍 학생의 입학 전 직업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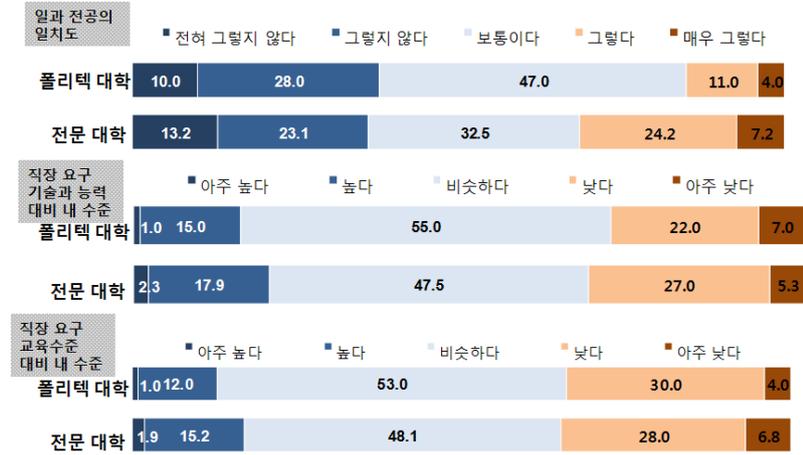
[그림 V-14]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장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정도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장의 근무환경별 만족정도를 보면 만족도는 근무환경 36.6%, 근무시간 35.1%, 인간관계 52.5%, 임금 30.5%, 개인의 발전가능성 22.8%, 복지후생 23.6%, 직장의 안정성 26.7%로 각각 나타났다.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장일이 자신의 전공과 잘 맞는다는 의견이 15%정도 수준이었으며, 직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자신이 가진 수준보다 낮다는 의견이 29%, 직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자신의 수준보다 낮다는 의견이 34%로 각각 나타나 과거의 직장과의 여러모로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장일이 자신의 전공과 잘 맞는다는 의견이 31.4% 정도 수준이었으며, 직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자신이 가진 수준보다 낮다는 의견이 32.3%, 직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자신의 수준보다 낮다는 의견이 34.8%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V-15]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장의 전공직무일치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직장의 발전전망이 없어서 24%, 고용상태가 불안해서 10%, 적성에 맞지 않아서 8%, 보수가 적어서 6%,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직장의 발전전망이 없어서 20.0%, 적성에 맞지 않아서 6.0%, 보수가 적어서 5.0%,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6]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입학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



폴리텍이나 전문대학 입학 이전의 직업활동을 비교하면 <표 V-8>과 같다. 취업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가 폴리텍 재입학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경험 없는 폴리텍 대학 재입학자 중 44.0%가 입학전 취업관련준비-취업시험, 자격시험준비, 구직실망-중이었고, 입학전 직장이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문대학 재학생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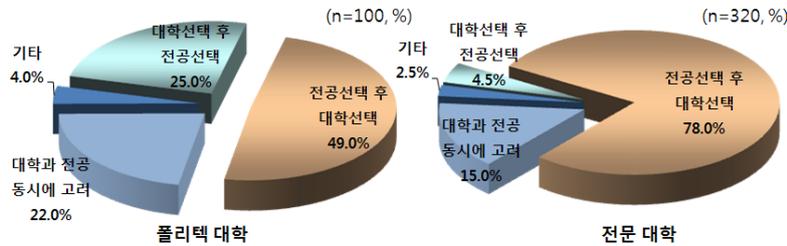
<표 V-8> 폴리텍과 전문대학 입학이전의 직업활동

구분	폴리텍	전문대
실업정도	직장못구함 > 직장구함	직장구함 > 직장못구함
구직활동 하지않은이유	미취업경험자중 취업관련준비 44.0% (취업시험준비+자격시험준비 +실망실업)	미취업경험자중 취업관련준비 5.7% (취업시험준비+자격시험준비 +실망실업)
입학전 직장만족도	업무만족도: 불만족>만족 직장만족도: 불만족>만족	업무만족도: 불만족>만족 직장만족도: 불만족>만족
입학전 전공직무일치	일과전공일치도: 그렇지않다(38.0%) > 그렇다(15.0%) 직장숙련요구수준 대비 내 수준: 높다(16.0%) < 낮다(29.0%) 직장요구 교육수준대비 내 수준: 높다(13.0%) < 낮다(34.0%)	일과전공일치도: 그렇지않다(36.3%) > 그렇다(31.4%) 직장숙련요구수준 대비 내 수준: 높다(20.2%) < 낮다(33.3%) 직장요구 교육수준대비 내 수준: 높다(17.1%) < 낮다(34.8%)

다. 폴리텍과 전문대학으로의 입학과정과 대학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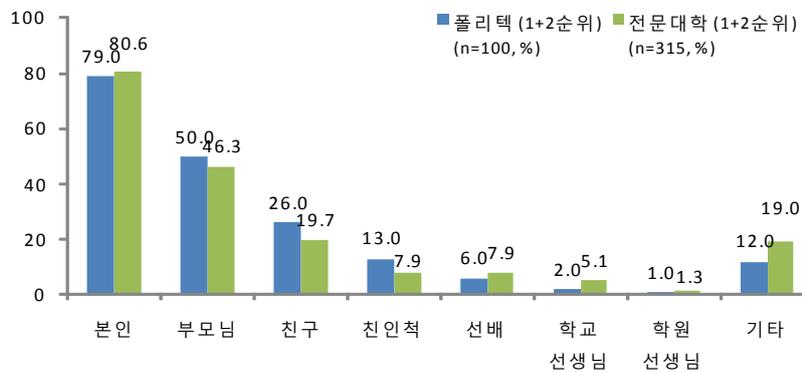
대학과 학과(계열, 학부, 전공)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폴리텍 대학 재학생은 대학을 먼저 선택한 후 전공을 선택 25%, 전공을 먼저 선택한 후 대학을 선택 49%,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려 22%, 기타 4%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은 대학을 먼저 선택한 후 전공을 선택 4.5%, 전공을 먼저 선택한 후 대학을 선택 78.0%,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려 15.0%, 기타 2.5%로 나타났다.

[그림 V-17]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에 대한 선택방법



대학선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경우, 본인 79%, 부모님(혹은 보호자) 50%, 친구 26%, 친인척 13%, 선배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본인 80.6%, 부모님(혹은 보호자) 46.3%, 친구 19.7%, 친인척 7.9%, 선배 7.9%, 학교 선생님 5.1%, 학원(과외) 선생님 1.3%, 기타 1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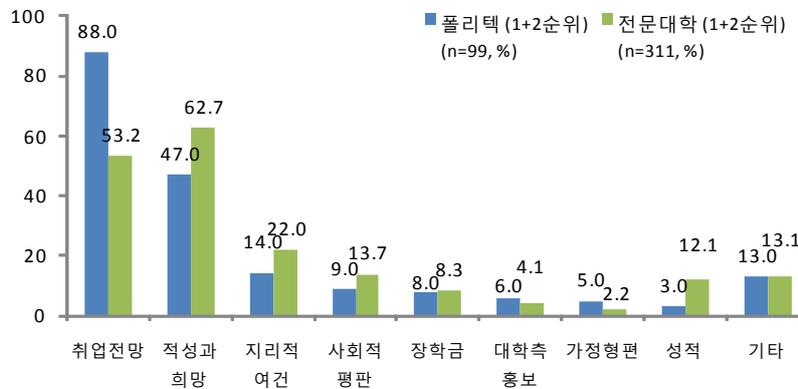
[그림 V-18]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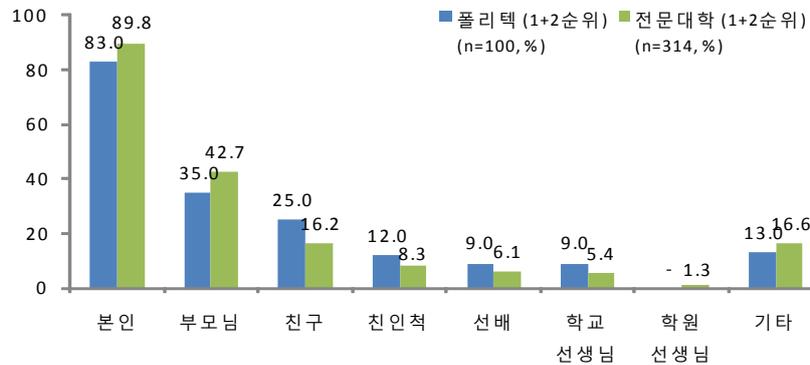
대학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폴리텍 대학 재학생은 취업전망 88%, 본인의 적성과 희망 47%, 지리적 여건(통학 편리성)

14%, 대학의 사회적 평판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희망 62.7%, 취업전망 53.2%, 지리적 여건(통학 편리성) 22.0%, 대학의 사회적 평판 13.7%, 장학금 8.3%로 나타났다.

[그림 V-19]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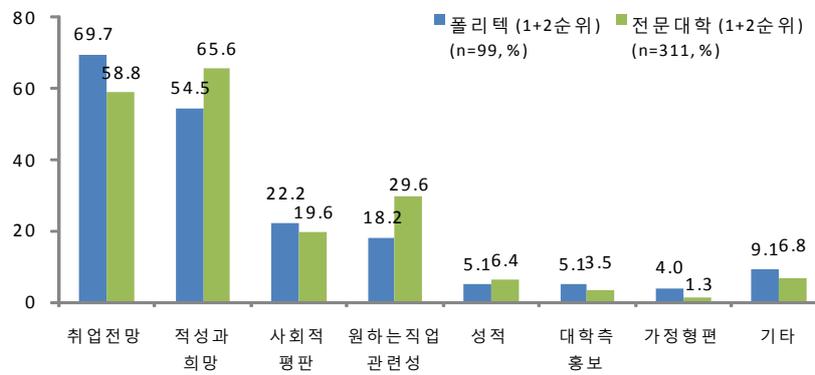
[그림 V-20]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과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본인 83%, 부모님(혹은 보호자) 35%, 친구 25%, 친인척 12%, 학교선생님 9%, 선배

9%, 기타 13.0%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은 학과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 본인 89.8%, 부모님(혹은 보호자) 42.7%, 친구 16.2%, 친인척 8.3%, 선배 6.1%, 학교 선생님 5.4%, 학원 선생님 1.3%, 기타 16.6%로 나타났다.

[그림 V-21]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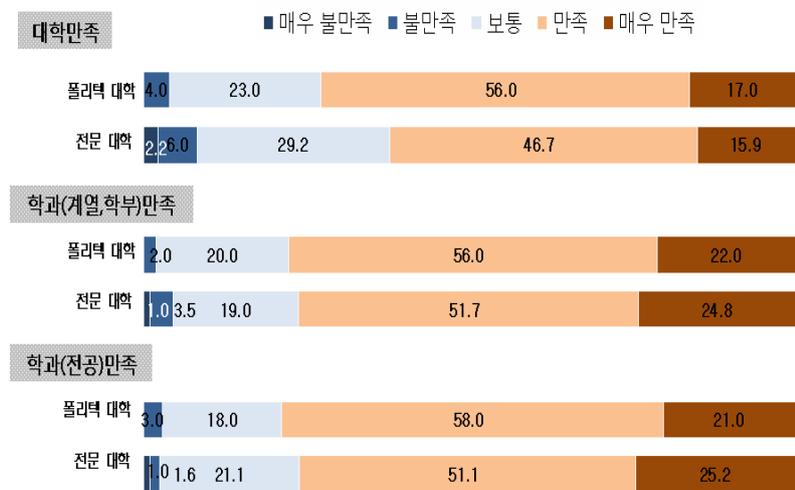


학과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서 폴리텍 대학 재학생은 취업전망 69.7%, 본인의 적성과 희망 54.5%, 전공에 대한 사회적 평판 22.2%,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18.2%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적성과 희망 65.6%, 취업전망 58.8%,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29.6%, 사회적 평판 19.6%의 순으로 응답했다.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대학에 대한 만족은 73%, 보통이 23%이며 불만은 4%에 불과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학과(계열, 학부)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 78%, 보통이 20%, 불만이 2%에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과(전공)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 79%, 보통 18%, 불만 3%로 각각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대학에 대한 만족이 62.6%, 보통이 29.2%이며 불만은 8.2%에 불과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학과(계열, 학부)

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 76.5%, 보통이 19.0%, 불만이 4.5%에 지나지 않았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과(전공)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만족이 76.3%, 보통이 21.1%, 불만이 2.6%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V-22]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에 대한 만족 정도



입학과정과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에서 그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 대해서 폴리텍과 전문대학 재입학자들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폴리텍 대학 재입학자들이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주관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선택에 있어 취업과 사회적 평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9> 폴리텍과 전문대학 입학과정과 학교만족도

구분	폴리텍	전문대
재입학 대학 선택	전공선택후 대학선택(49.0%) > 대학선택후 전공선택(25.0%) > 대학과 전공 동시에 고려(22.0%)	전공선택후 대학선택(78.0%) > 대학과 전공 동시에 고려(15.0%) > 대학선택후 전공선택(4.5%)
대학선택 영향준사람	본인(79.0%) > 부모님(50.0%) > 친구(26.0%)	본인(80.6%) > 부모님(46.3%) > 친구(19.7%)
대학선택 영향요인	취업전망 (88% > 적성 (47%) > 지리적 여건(14.0%)	적성 (62.7%) > 취업전망 (53.2%) > 지리적 여건(22.0%)
학과선택 영향준사람	본인(83%) > 부모님(35%) > 친구(25%)	본인(89.8%) > 부모님(42.7%) > 친구(16.2%)
학과선택 영향요인	취업전망 (69.7%) > 적성 (54.5%) > 사회적 평판 (22.2%)	적성 (65.6%) > 취업전망 (58.8%) > 원하는 직업 관련성 (29.6%)
대학만족도	만족(73.0%) > 불만족(4.0%)	만족(62.6%) > 불만족(8.2%)
학부만족도	만족(78.0%) > 불만족(2.0%)	만족(76.5%) > 불만족(4.5%)
학과만족도	만족(79.0%) > 불만족(3.0%)	만족(76.3%) > 만족(2.6%)

전문대학 재학생의 현재의 대학생활에서의 고민에 대한 조사결과 전문대학으로 유턴한 학생들은 공부·학교성적문제, 진학·진로문제, 취업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민 등 걱정이 없는 경우보다는 고민이나 걱정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사항인 부모님(또는 가족)과의 불화, 사귀는 사람(애인) 문제, 친구와의 관계, 나의 성격 문제, 나의 외모·신체 문제에 대하여는 고민이나 걱정이 없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0> 전문대학생의 고민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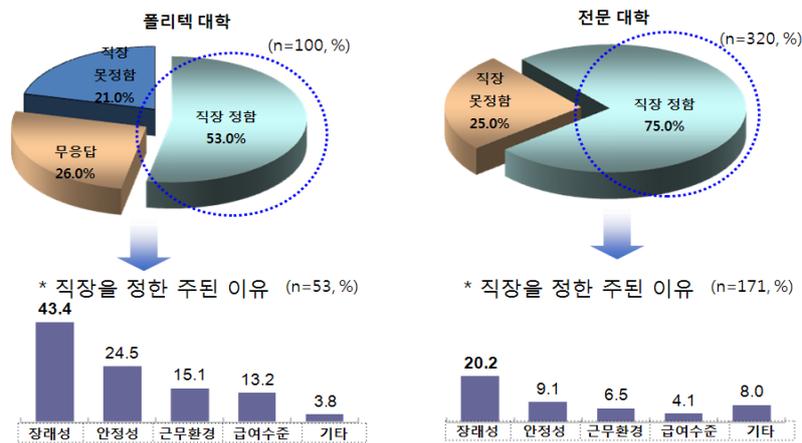
(단위: %)

항 목	고민이나 걱정이 없다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			전체
		보통	심각	매우 심각	
공부·학교 성적 문제	19.5	47.1	23.3	10.0	100.0
진학·진로 문제	15.1	46.7	25.9	12.3	100.0
가정의 경제적 형편	22.6	56.7	13.5	7.2	100.0
부모님(또는 가족)과의 불화	66.2	27.1	3.4	3.4	100.0
사귀는 사람(애인) 문제	67.6	25.1	4.3	2.9	100.0
친구와의 관계	60.6	34.1	2.9	2.4	100.0
나의 성격 문제	47.1	43.2	8.3	1.5	100.0
나의 외모·신체 문제	44.2	42.3	10.1	3.4	100.0
취업 또는 실직에 대한 문제	17.2	46.4	26.3	10.0	100.0

라. 전문대학 졸업 후 희망진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가라는 질문에 폴리텍 대학 재학생의 경우, 예가 53%, 아니오가 21%, 무응답이 26%로 나타나 졸업 이전에 직장이 정하여진 것이 특별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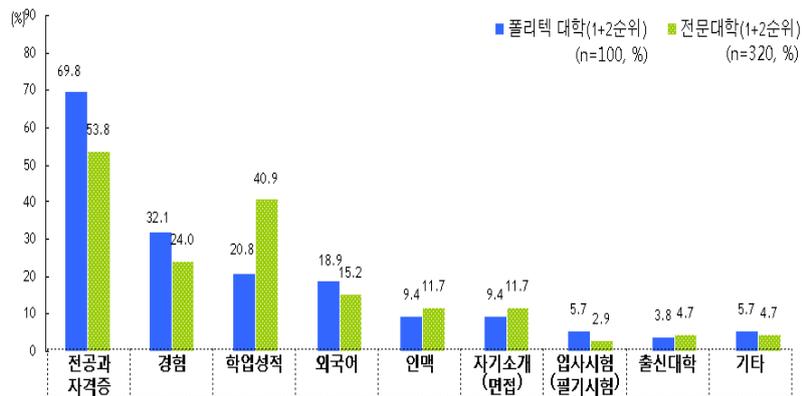
[그림 V-23]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재입학대학 졸업 후 희망진로



그 직장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장래성 43.4%, 안정성이 24.5%, 근무환경(근로시간, 복지후생) 15.1%, 급여수준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예가 75.0%, 아니오가 25.0%로 나타나 졸업 이전에 직장이 정하여진 것이 특별하게 나타났다. 그 직장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장래성, 안정성, 근무환경, 급여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폴리텍 대학 재학생이 직장에 취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전공과 자격증 69.8%, 경험 32.1%, 학업성적 20.8%, 외국어 18.9%의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장에 취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공과 자격증, 학업성적, 경험, 외국어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V-24] 폴리텍 학생과 전문대학생이 판단하는 취업의 중요요인



4. 대졸 미취업자의 폴리텍과 전문대학으로의 재입학자와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에 대한 FGI 분석

대졸미취업자의 폴리텍과 전문대학으로 재입학자와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에 대한 FGI 결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며, 폴리텍 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차이가 나고 대학교수와 학생들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가. 폴리텍

폴리텍 대학에 진학한 이유로 학생들은 ①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② 분야를 바꾸기 위해서, ③ 10~20년 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려고, ④ 재정적인 부담이 적고 신뢰성도 있어서, ⑤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서, ⑥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를 들은 반면 교수들은 ① 점점 학력이 높아지고, ②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③ 4년제 대학학 중 인문/사회/어문 계열의 경우 학문적이기는 해도 실질적이지 않아서, ④ 이미 배운 학문에 전문적인 스킬을 플러스 시켜서 융합형 인간이 되기 위해, ⑤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인생을 재시작하고자, ⑥ 경기가 나쁠 때는 취업이 어려워서 늘어나는 추세임을 들고 있다.

대학과 학과(계열, 학부) 선택요인으로 학생들은 폴리텍 대학은 과를 보고 왔고, 해당과가 폴리텍 대학에 있어서 이 학교를 선택하였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수들은 유턴 학생이 폴리텍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로 ① 취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② 전문적인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 ③ 취업률을 높일 수 있어서, ④ 취업스펙을 키울 수 있어서(크로스오버: 학력도 좋고 기술도 겸비해서 활용가치가 높아져서)를 들고 있다.

폴리텍 대학 입학에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학생들은 ① 실무경험, ② 장래전망, ③ 교수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④ 본인이 하고 싶은 꿈 ⑤ 경제적 문제를 들은 반면, 유턴한 폴리텍 대학생들은 폴리텍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교수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턴학생들의 경우는 대체로 폴리텍 대학이 타이트하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하거나 더 타이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대학교수들도 폴리텍 대학의 수업은 하루 8시간 수업으로 타이트한 편이라고 하였으며, 유턴학생의 경우 목표의식이 있어서 타이트한 수업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다.

유턴한 학생들은 연령이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생활에는 누님이나 형님처럼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어린 학생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학생들은 제시하였으며, 교수들도 유턴학생의 경우 연령대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하여, 목표가 없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는 편이었고, 누나나 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유턴학생의 경우 학비 부담은 없는 반면, 생활비는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전에 모아 놓은 돈을 아껴서 사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대학교수들은 재입학대학생의 생활비 해결방법으로 폴리텍 대학의 경우는 학기 중에 수업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편이었으며, 일부는 부모님이 해결하기도 했으나 유턴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오는 편이라고 하였다.

유턴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동기나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더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하며, 대학교수들도 유턴한 학생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학습동기가 명확한 편이라고 하였다.

유턴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부담감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꼽았으며, 교수들은 재입학대학생들은 나이가 많은데 공부하려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재입학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학교에 와서 창피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본 결과 예전에는 이력서에 폴리텍 대학을 나왔다고 안 썼는데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당연한 편이라고 하였다.

유턴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으나, 폴리텍 대학 전체적으

로 소그룹 제도가 있어서 교수 1명당 7~12명 정도를 맡아서 지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교수들은 제시하고 있다. 유턴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나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었고, 업체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원할 경우만 유턴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차이는 있다고 교수들이 제시하고 있었다.

교과부, 노동부, 대학 당국에 바라는 점으로 유턴한 학생들을 위해 대출한도의 상향조정, 굳이 유턴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 체계 관리, 대학과 연계되는 기업체 증대, 폴리텍 대학교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수들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크로스오버형 학생을 위한 인력풀을 만들어서 기업과 학교의 매칭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크로스오버형 인재에 대한 풀을 만들어서 알맞은 기업과 연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폴리텍 대학은 나이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사원의 경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 폴리텍 대학의 경우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 학생들이 예절이 바른 편이기는 하나, 유턴으로 들어오는 고학력자들의 경우 매우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서 인성교육이 강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유턴학생으로 들어온 경우 가정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등록금은 물론 생활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출제도를 도입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폴리텍 대학의 경우, 재입학자들의 목적은 '취업' 및 '숙련 형성'등으로 압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정 이므로 경제적인 압박이 학생들에게 큰 무리수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재입학자들이 기능사과정의 경우 5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학사나 다기능과정 등에서의 비중이 미미하므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혜택이나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전문대학 내에서의 재입학자들의 비중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특히 전문대학은 폴리텍 대학 재입학자들과는 다르게

취업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진학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의 요구사항 역시 목적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 역시 재입학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에 다니는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은 취업을 잘 하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질이 떨어져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대에 다시 다니려고, 4년제 대학 다닐 때 과에 대해 전혀 모르고 들어가서 졸업 후 진로가 막혀서,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하면 4학년 때 진로에 대해 또 고민할 것 같아서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 선택함, 4년제 대학에서 어문계를 나왔는데 직업이 한정적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전문대 다시 들어왔다거나 간호대에 입학하여 이민을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었다. 반면 교수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직업구하기 어려우니까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찾아서(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외국 가서 봉사하려고, 창업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직업을 찾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고 있었다.

전문대 입학 선택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학생들은 지리적요인, 장학제도, 취업률이 높은 곳, 정원 외 유턴학생 기회를 주는지 여부, 졸업한 동창들이 많은 곳을 들고 있다.

전문대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생들은 전문대 수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편이었으나 부차적인 부분에서 불만족하는 점이 있었다. 만족한 이유로는 4년제 대학에서는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은 능동적 자세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결과가 보이니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서이며, 불만족한 점은 학교가 고등학교와 비슷함, 대학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이 있는 곳인데 전문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편임, 교양에 대해 안

가르치는 점, 선택과목이 없고, 9~6시까지 취업 하나만 쫓아간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수들이 보는 전문대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유턴학생으로서 연령이 높은 점에 대하여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취업하는 시기에는 나이 많은 것이 단점이라고 하였으며 교수들은 유턴학생이 연령이 높아서 어린학생을 이끌어 주는 점은 좋으나, 서로 안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은 점이고 유턴학생들은 향후 진로선택에도 융통성이 있고, 더 큰 시야로 분야를 찾아가는 편이며, 4년제 유턴학생이 전문대 학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턴학생으로서 학비와 생활비 해결방법에 대하여 학생들은 부모님 의지 하기도 하고,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비부담 때문에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했으며,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유턴학생의 학습동기, 목표의식에 대한 의견으로, 학생들은 유턴학생은 진로가 정해졌으므로 고민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는 편이고, 일반학생은 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오는 경우가 있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했다. 즐기는 것을 자제하고 목표를 보고 매진하게 되며, 유턴학생이 더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으나 체력이나 머리가 안 따라 주는 것 때문에 뒤처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수들은 학습동기 및 목표의식은 뚜렷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유턴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으로 학생들은 4년 동안 돈과 시간을 허비했다는 좌절감,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를 들고 있으며, 유턴학생으로서 생활비 해결방법에 대하여 교수들은 부모님이 부담해 주는 편이라 하였다. 특히, 의료분야 등 국가고시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고시에 매진하도록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유턴학생을 위한 배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교과부, 학교 등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학생들은 장학금 제도의 경우 유턴학생과 일반학생으로 분리, 실습자재가 부족한 편인데, 이에 대해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고, 교수들은 4년제에서 이수한 과목은 추가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게 함, 선호학과외의 경우 너무 학교를 많이 개설해 주어서 문제(예: 간호과 파동)가 되거나, 유턴학생을 교육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생긴 사회적 문제라고 본다면 학비를 일부라도 보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5절 소결: 정책과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전문대학, 폴리텍, 직업전문학교)을 다시 선택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다. 2010학년도 의 경우 전문대학 수시모집에서 4,200여 명, 폴리텍 대학에서 2,850명 합계 7,05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전문대학의 정시모집인원과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을 합하면 상당한 인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대졸 미취업자들이 폴리텍이나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1회용이나 행사성 혹은 단기 일자리 정책이 아니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교육과학기술부, 각 전문대학, 폴리텍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여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1. 폴리텍

앞으로 폴리텍이 4년제 대학졸업자나 전문대학졸업자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졸 미취업여성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취업이 어려운 집단이 대졸 여성집단이다. 이들 집단에 대하여 폴리텍에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둘째, 폴리텍을 중심으로 하여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폴리텍이 가지는 정점 중의 하나인 취업에 강한 대학이 계속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좋은 일자리에 대한 DB 구축 등 취업루트를 늘리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한 후에도 교수와 학생 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진로교육과 취업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셋째, 이를 위하여 폴리텍 교육여건에 대한 시설투자가 강조되어야 하며, 실무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실습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확충하여야 하겠다. 넷째, 폴리텍 학생에 대한 자신감 증대가 필요하다. 폴리텍에 유턴한 대졸자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위의 부정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자신감 부족이라 생각한다. 폴리텍 교수와 당국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신경과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폴리텍에 대한 홍보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폴리텍의 장점, 전공에 대한 전망과 준비사항 제시,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안내 등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교육내용에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에 대한 전공공부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도가 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과 국제화 감각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2. 전문대학

유턴 전문대학생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4년제 대학생들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유턴한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는 취업과 관련된 것이다. 즉, 전문대학을 다시 입학하

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대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취업을 하거나 가업을 승계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이들 학생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한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전문대학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이 비교적 나이가 많은 만학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들 학생이 유턴을 하지 않는 정규학생들과 경쟁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체력이나 학습능력의 열세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나 각 대학에서는 이들 유턴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 기회를 늘리는 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유턴 학생에 대한 일정 비율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특별한 대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학생들이 유턴 후 갖는 고민 중의 하나는 이미 4년제 대학에서 배운 과목에 대한 인정 문제이다. 즉, 이전 대학 학점 중 현 대학에서 인정되는 교과목 학점이다. 현재 교과부의 지침에 의하여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능한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넷째, 유턴한 전문대학생이 취업과 관련하여 갖는 애로사항의 하나는 연령 제한에 따라 신입직원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 대학에서 만학도 유턴 학생의 연령제한에 따른 취업 애로사항을 극복하게 도와주어야 하겠다. 다섯째, 전문대학으로 유턴한 학생이 갖는 학습능력의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들은 연령이 높고 체력이나 학습능력에서 정규학생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더구나 이전 대학에서 학습한 전공과 현재의 전공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생소한 용어 등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들 학생을 위한 학습보충 프로그램(예: 멘토와 멘티를 활용한 멘토링 제도나 개인코치, 보충학습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운영하

여야 하겠다. 여섯째, 유턴한 전문대학생이 갖는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한 생활지도가 되어야 하겠다.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전문대학에 유턴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을 하기 쉽고 주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현재의 전문대학생을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고 기존 전문대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나름대로 이들 유턴 전문대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문대학 당국이나 전문대학 교수들은 유턴 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며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몇 년 내에 전문대학 입학가능 학생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만큼 기존에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들이 평생교육(미국의 Community College의 Open University)차원에서 전문대학으로 많이 입학할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들 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에 갈 수 없는 이유는 4년제 대학의 학사운영의 경직성과 4년제 대학 입학의 어려움 때문이다. 반면 전문대학생은 교육과정의 융통성에 의하여 이들 고학력 만학도들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에서 고학력 만학도를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취업지도 강화, 장학금 지원 강화, 특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 강화, 이전 학습내용에 대한 배려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직업전문학교

대졸 유턴자 교육과 관련하여 직업전문학교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직업전문학교는 평점도 좋고, 국비이고 무료이며, 지원비도 나오고, 시스템도 괜찮으며, 전문가가 가르쳐서 좋다는 것을 홍보하여야 하겠다. 둘째, 직업전문학교에 따라가기 힘들어서 불만족인 사람도 있었는데 불만족

이유는 기초부터 가르쳐 주지 않고, 기초를 모르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다른 학원에서 기초를 배우고 와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였으며, 수업 시간이 하루 6시간씩 주 5일로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따라가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유턴학생으로서 학비와 생활비 해결방법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직업전문학교 학비는 지원을 받는데,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며 계좌제 등록하면 자부담이 20%있는데 아르바이트도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턴학생에 대한 특별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유턴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은 연령이 낮은 사람을 선호해서 자괴감이 생기거나, 친구들은 취업해 있어서 뒤쳐진 느낌을 갖거나, 나이 들어서 신입으로 가야 하는데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특별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제 6 장

대학-노동시장 이행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장수명

제1절 머리말

한국경제는 빠른 경제성장의 속도와 함께 산업구조도 비교적 단시간 내에 크게 변화하여 농업 중심-제조업 중심에서 다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직업구성도 변화하여 농민에서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 직업군이 점차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화이트칼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산업 및 직업 변화와 더불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 또한 급속히 확대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고등교육은 1980년대의 대학졸업 정원제에 따라 일차적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1995년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규제완화 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수가 사회적 수요(특히 직업분류로 보았을 때)를 크게 넘치는 수준이 되었다. 전문대학과 대학졸업자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직업이 준전문가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준전문가 이상의 비율이 2000년에 18.6%에서 2009년에는 21.1%로 조금만 증가했다(통계청 자료)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하향취업과 취업과정상의 어려움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연령대별 취업자 비율에서 20대의 취업자 비율이 또한 2000년 21.08%에서 2010년 15.62%까지 줄었다. 이는 대학진학하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동시에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는 청년층 중 대졸자의 이행과 성과를 전공계열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되, 대학의 수준별 차이도 밝히고, 또 기타 인적자본 축적기제들(소위 스펙)의 효과를 분석하며, 계열선택의 결정요인도 분석한다.

고등교육의 인적자본특성의 경제적 성과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공계열과 대학의 수준(또는 선별성)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Dale and Krueger 2002; Thomas, 2000; Thomas, 2003; Thomas and Zhang, 2005; Kelly, O'Connell, and Smyth, 2010; 장수명, 2002; 이병희, 2004; 이병희 외, 2005). 대학의 수준 및 입학생의 성적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큰 것은 국내외 연구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들은 임금 또는 소득효과가 전공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여 주고 있는 반면 국내 연구들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수명(2002)과 이병희(2004)의 연구는 전공에 따른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이에 대해 이병희는 대학 전공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성고가 제한적인 것은 대학교육이 인적자본 형성의 역할보다 선별역할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 두 연구들의 결과를 확장하여 전공과 대학수준의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실행한다. 두 선행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매우 다양한 나이 코호트가 함께 존재하고, 연구들은 세대를 통합하여 분석하여 평균적인 전공효과를 살폈다. 또한, 전공의 중요성이 세대나 나이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다. 전공의 중요성이 세대 간에 달라졌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단계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우수한 잠재역량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현장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숙련(전문적 숙련)을 강

화시켰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의 성숙한 단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분화된 숙련을 입직단계부터 요구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역량을 형성하는 전공이 보다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 나이에 따라 전공의 중요성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경력의 초입단계에는 전공이 개인의 인적자본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 특수한 숙련이 누적됨에 따라 전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전공선택의 결정요인, 전공별 초기 노동시장성과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전공의 중요성이 높아 간다면 이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수준에서 분석한다. 좀 더 치밀한 분석은 이후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전공별 초기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전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아르바이트, 해외연수, 취업준비 등 전공에 비교하여 부수적인 인적자본 축적도 전공별로 어떻게 다르며, 그 효과는 어떤지를 분석한다.

또한 대학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전공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나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제2절 전공선택 및 대학수준과 인적자본의 축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대학의 수익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임금프리미엄에서 중요한 요소는 대체로 전공과 대학의 수준(품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진학을 결정하게 될 때 중요한 결정사항은 대학의 종류(전문대학, 산업대학,

4년제 대학 등), 같은 종류 내의 대학의 수준, 그리고 전공 등이 될 것이다. 기존의 인적자본론의 효과를 살피는 연구는 인적자본의 교육년수와 같은 양적 지수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학교와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 (대)학교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특성에 주목한다.

현장경험을 통한 숙련형성에 관한 인적자본이론은 사람이 가지는 숙련을 모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숙련과 한 특정한 기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특수적 숙련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과 직위에 따라 활용되고 활용할 수 있는 축적된 인적자본의 특성이 매우 다르고 이 특정한 인적자본은 고등학교의 계열, 대학의 전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학의 전공은 개인들의 인적자본의 특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전공은 장시간에 걸쳐 매우 다른 훈련내용을 의미하고 한 사람의 직업과 생애 경로마저 크게 규정할 수 있다. 4학기(전문대) 또는 8학기(4년제 대학)에 걸쳐 다른 전공을 선택한 사람의 인적자본의 내용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4년의 간호학 훈련은 4년의 초등학교 교사 훈련과 판이하게 다른 인적자본을 형성하게 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인적자본의 성격과 내용과 더불어 이들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와 전공자수라는 공급요인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동일한 전공(계열) 내에서 대학의 수준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대학수준에서 축적하는 인적자본의 질과 이후의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적자본은 소득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품질의 대학들은 생산성 높은 교수진,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동기가 있는 동료학생들, 대규모의 도서관과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어 낮은 품질의 대학보다 인적자본을 생산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대졸자 개인의 인적자본은 입학 당시의 역량, 역량과 입학전공의

상호 결합, 그 개인의 역량과 대학수준의 관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인적자본 축적은 다음의 식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h_{ijk} = h(\alpha_i, maj_j, u_k) + \epsilon_i$$

여기서 h_{ijk} 는 개인 i 가 k 대학에서 j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한 결과 축적한 인적자본이다. α_i 는 개인 i 의 입학 당시의 다양한 측면의 역량이고⁸⁾, maj_j 는 선택한 전공, u_k 는 k 대학의 수준이다. ϵ_i 는 단순 오차항이다. 따라서 h_{ijk} 는 자신의 역량, 역량과 전공의 일치수준과 관련이 있다. 개인의 역량과 전공이 일치되는 수준, 대학의 수준과 개인의 역량이 잘 조합되었을 때 개인의 인적자본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문제는 개인의 다양한 역량이나 대학의 수준을 현재의 자료로 관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백분위로 계산한 대학별 수능성적, 그리고 과별 수능성적이 있을 뿐이다.

인적자본투자 결정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결국 그 선택은 비용과 편익 함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편익은 그 전공의 예상되는 취업 가능성, 임금과 그 전공을 선택하는 개인이 특정전공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달려 있다. 개인들이 임금 등으로부터 효용을 얻게 된다면 특정전공선택은 그 전공 선택의 효용이 다른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용보다 클 때 가능하다. 이 전공선택의 효용은 특정전공에서 성공할 가능성과 예상되는 전공의 기대임금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공별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입학이 성적에 의해 제한된다. 이때 비용뿐 아니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수학능력 시험성과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이를 제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 관계없이 의학과 약학 전공의 경우 매우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

8) Gardner가 지적한 다중지능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통해 개발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육계열도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교육 전공은 매우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학교의 성적이 선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선택과 전공선택에는 금융제약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금융제약으로써 전공 및 대학 선택 이전의 대학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과 고등학교의 계열과 종류가 될 것이다. 중학교 때까지의 부모의 지원, 본인의 노력과 자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향력 및 주변의 영향력이 결합 등에 의해 고등학교의 종류와 계열이 결정되고, 이 결과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전공계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Kathy & Mahseredjian(1997)에 따라서 전공선택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개인 i 가 전공 j 를 선택하는 것은 전공 j 로부터 얻는 기대 효용이 다른 전공 k 를 선택하여 얻는 효용보다 클 때이다.

$$(2) \begin{aligned} C_{ij} &= 1, \text{ if } u_{ij}^* \geq u_{ik}^* \text{ for all } k \neq j, \\ C_{ij} &= 0, \text{ otherwise.} \end{aligned}$$

이를 통해 우리는 Probit 모형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 i 가 전공 j 를 선택할 확률은 P_{ij} 로 다음과 같다.

$$(3) P_{ij} = \text{Prob}(C_{ij} = 1) = \frac{\exp(u_{ij})}{\sum_{k=1}^m \exp(u_{ik})}$$

전공선택의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변수는 성별이다. 여성의 과학분야에 대한 기피는 오래된 분석대상의 하나로 나타났지만, 이 현상에서 여성의 본래적 과학적 자질의 부족 때문이라는 가설과 여성의 전통적

역할 때문이라는 대안적 가설이 대립되어 왔다(Ware, Steckler, and Leserman 1985). 인용한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전공을 선택한 여학생의 특징은 고학력의 부모, 높은 수학입학성적, 강한 통제 및 성취 지향 성향 등이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변수는 기대임금(소득)이다. 각 전공분야의 임금에 대한 개인들의 예상에 따라 소득이 높은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개인의 전공별 기대소득을 계산하기에는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개인들의 취향인데, 이는 개인별로 좋아하는 전공에 재능도 있고, 따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변수 외에 전공선택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인종, 부모의 교육과 직업, 가족의 소득, 형제자매의 수나 교육수준, 고등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의 이과, 문과의 분류와 고등학교의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의 이과와 문과의 선택과 고등학교의 선택이 대학의 전공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학의 전공이 임금과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중학교 단계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진로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 아버지의 직업, 입학 당시의 나이, 졸업한 대학 이전에 대학경험, IMF 이후 입학 여부 등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전공계열의 선택에 대한 제약 및 전공선택 결정요소로 고등학교 시절의 성적제약, 고등학교 이하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의 특성(고등학교의 이과, 문과 또는 계열과 종류로 나타나는), 전공을 제공하는 대학의 존재, 그리고 금융제약이 될 것이다. 한편 전공선택에는 취업가능성과 기대임금이 고려될 것이다.

개인들은 종국적으로 선택한 대학과 전공에서 본인의 기존의 역량을 활용하여 인적자본의 형성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 결과는 노동시

장의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임금)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취업상태와 일자리의 특성(4대 보험-가입여부) 등 일자리 관련 성과와 일자리가 있는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는 소득(임금)성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을 중심으로 대학의 수준(범주), 취업준비, 해외연수, 복수전공, 아르바이트, 개인들이 보고한 대학의 학점성적 등의 변수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로그변환한 월임금을 회귀분석하였다. 임금 회귀분석은 Thomas & Zhang(2005)가 활용한 Zellner의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으로 수행했다. 2008년과 2006년의 임금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각년도의 로그변환한 월임금의 회귀식을 분석할 수 있다[식 (4)와 식 (5)].

$$(4) Y_{i08} = X_{i08}\beta_{08} + \epsilon_{i08}$$

$$(5) Y_{i06} = X_{i06}\beta_{06} + \epsilon_{i06}$$

두 개의 오차항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오차항의 구성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 두 방정식을 분리해서 회귀분석하기보다는 하나의 구조방정식으로 연합하여 회귀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점근적으로 효율적이고 가능한 GLS'를 갖기 때문에 적어도 OLS의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식 (8)을 회귀분석한다.

$$(6) Y_{i06} = X_{i06}\beta_{06} + \theta_i + \mu_{i06}$$

$$(7) Y_{i08} = X_{i08}\beta_{08} + \theta_i + \mu_{i08}$$

$$(8) \begin{bmatrix} Y_{i06} \\ Y_{i08} \end{bmatrix} = \begin{bmatrix} X_{i06} & 0 \\ 0 & X_{i08} \end{bmatrix} \begin{bmatrix} \beta_{06} \\ \beta_{08} \end{bmatrix} + \begin{bmatrix} \epsilon_{i06} \\ \epsilon_{i08} \end{bmatrix}$$

제3절 GOMS 자료와 전공선택 및 대학수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를 추적조사한 GOMS이다. 2006도에 실시된 이 조사는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만 2,764명의 약 5%에 해당하는 2만 6,544명에 대한 조사이다. 2007년에는 현재 졸업 후 2년째인 2차 추적조사, 2008년에는 졸업 후 3년째인 3차 추적조사가 진행되었다. 더 이상의 추적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졸자만의 추적조사로서 '최장'의 패널인 셈이다.

이 조사에서 대졸자의 전공선택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선택은 정부나 대학의 전공계열 학생수의 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제약되어 있으나 학생들과 사회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공학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순으로 많았고, 인문계열을 선택한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습득을 강조한다는 전문대학의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역시 공학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전문대학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았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이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이 이후 학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가치(option value)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계열의 경우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선택가치와 더불어 또한 실용적 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VI-1> 대학종류별 전공계열 분포

전공계열	전문대	4년제	교육대
인문계열	419 (4.20)	2,134 (13.41)	653(100.00)
사회계열	2,400 (24.05)	4,146 (26.06)	
교육계열	424 (4.25)	880 (5.53)	
공학계열	3,574 (35.81)	4,577 (28.77)	
자연계열	753 (7.54)	2,238 (14.07)	
의약계열	932 (9.34)	645 (4.05)	
예체능계열	1,479 (14.82)	1,290 (8.11)	
Total	9,981(100.00)	15,914(100.00)	

설문에서 졸업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밝힌 것을 대학종류별로 살펴볼 경우, 전문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직업과 취업전망이 밝기 때문이라 응답한 비율이 35%를 넘어 섰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 10%p 정도 낮아 약 25%에 머물렀다. 전문대학과 교육대학과 같이 직업과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또 교육대학의 경우 주위의 추천이 전공선택의 이유로 밝힌 비율이 12%를 상회하여 전문대학(8%)과 4년제 대학의 경우(7%)보다 크게 높았다.

고등학교 종류와 계열이 전공선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기서는 표들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과를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들의 전문대학 선택은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문대학의 전공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문과의 선택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선택했던 보낸 졸업자들은 4년제 대학에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전공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했던 학생이 전문대학으로 진학했을 경우 공학계열, 의학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선택을 한 공학계열은 43.5%로 문과를 선택한 학생이 선택한 20.0%보다 크게 높았다.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했을 경우 대학전공은 사회계열(44%), 인문계열

(24%), 예체능계열(11%), 교육계열(7%)로 제한되었다. 또한 이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공학계열(51%), 자연계열(23%), 사회계열(9%)로 매우 제한되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68%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 진학했고, 그 외 다른 전공에도 약간씩 진학하였으며, 과학고의 경우 38%가 공학계열, 17%가 이학계열, 38%가 의학계열에 진학하였다. 따라서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가 그 학교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에 진학한다는 것의 근거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예체능고는 4년제 대학의 경우 91.4%가 예체능계열을 선택했고, 상업계고는 사회계열에 48%, 공업계고는 공학계열에 58%로 기본적으로 대학전공계열이 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관련이 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상관이 낮은 학과에 진학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문대학과 대학의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 진학하였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대학과 대학의 사회계열, 예체능계열에 진학하고 있다. 이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농업, 공업, 상업에 치중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광고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중간수준의 숙련이 필요한 전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계 고등학교의 숙련이 학생들의 대학 전공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전공선택은 본 연구의 또 하나의 관심사인 대학수준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GOMS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졸업자들이 졸업한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전공분야를 고려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성적에 맞춘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았으며 주변의 권유와 취업을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기관별(전문대, 4년제 대, 교육대)별로 전공별로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대학의 경우 주변의 권유와 취업을 고려한 경우가 매우 높았고, 의학전공의 경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공, 취업, 주변의 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성적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공분야와 성적에 맞춘 것이 가장 많았고, 또 주변의 권유와 취업도 상대적으로 중요했다. 이와 같이 실용적인 경우 전공분야의 고려, 취업가능성, 그리고 주변의 권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이 대학선택의 중요한 이유가 된 경우에도 자신의 수능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의 동일한 전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대학선택에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성적이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학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음 <표 VI-2>과 <표 VI-3>은 대학의 중요도를 보여 주기 위해서 2003년과 1994년도의 공학 계열 대학의 그룹별 평균점수를 지방사립대학과 비교한 것이다. 대학의 수능반영 영역이 달라 이를 따로 구분했으며, 지방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서울 소재 대학들과 경기도와 인천 소재 대학들의 입학성적이 지방사립대학과 비교하여 크게 높을 뿐 아니라 지방의 국립대학보다 대체로 높다. 그러나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경기도의 사립대학수준이다. 1994년과 비교할 때 지방대학의 위상이 크게 나빠지거나 수도권 대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팽창시기에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가 가속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변화가 본 표본의 졸업자들의 잠재적 역량이 대학별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대학그룹별로 전공효과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표 VI-2> 대학그룹별 공학계열 수능성적 비교(2003년)

지방	대학구분	수능반영영역	인원	점수	평균점수	지방사립 동영역과의 비율
서울	S대 (공립)산업	연수과외	102	36,210.0	355.00	1.69
		수과외	1,134	322,255.2	284.18	1.51
	(공립)특수	사과외	25	8,055.0	322.20	1.50
		수외	376	116,878.8	310.85	
	사립	수과외	132	41,834.1	316.93	1.68
		수과외	3,126	983,514.5	314.62	1.67
		연수과	461	131,282.7	284.78	1.24
		연수과외	3,043	958,852.4	315.10	1.50
		연수사외	26	8,244.6	317.10	
		연수외	263	76,832.1	292.14	1.47
	전영역	1,827	554,697.8	303.61	1.60	
수도권 (경기인천)	(공립)산업	전영역	107	28,679.1	268.03	1.41
		연수외	462	127,385.3	275.73	1.39
	(공립)특수 사립	전영역	774	194,586.2	251.40	1.32
		수과외	2,411	669,937.6	277.87	1.48
		수사과외	1,095	333,874.2	304.91	2.25
		연수과외	1,635	509,417.6	311.57	1.48
		연수외	410	88,188.7	215.09	1.08
전영역	2,629	672,422.4	255.77	1.35		
지방	(공립)거점	전영역	6,127	1,634,621.3	266.79	1.41
		수과외	1,010	272,516.3	269.82	1.43
	(공립)산업 (공립)주요	전영역	1,063	192,617.6	181.20	0.95
		전영역	4,566	1,060,653.1	232.29	1.22
		연수과외	763	154,018.9	201.86	0.96
	(공립)특수 사립	수과외	1,265	188,054.4	148.66	0.79
		수사과	198	55,618.0	280.90	1.46
		수외	373	88,740.7	237.91	
		연수과	462	88,732.8	192.06	0.84
		전영역	1,267	330,226.6	260.64	1.37
		전영역	14,787	2,807,369.6	189.85	1.00
		연수외	502	99,597.7	198.40	1.00
		연수과외	2,033	426,663.1	209.87	1.00
	연수과	475	108,981.3	229.43	1.00	
	지방	(공립)특수 사립	연사과외	45	7,411.5	164.70
수사과외			154	20,838.2	135.31	1.00
수사과			351	67,467.4	192.21	1.00
수과외			1,317	247,967.4	188.28	1.00

<표 계속>

지방	대학구분	수능반영영역	인원	점수	평균점수	지방사립 同영역과의 비율
		수+우수 3개 영역	201	31,880.7	158.61	1.00
		사과외	31	6,640.2	214.20	1.00
2003년 전체			57,028	13,753,765.1	241.18	

<표 VI-3> 대학그룹별 공학계열 수능성적 비교(1994년)

지방	재정구분	인원	점수	평균점수	지방사립 同영역과의 비율
서울	S대	1,360	237,453.0	174.60	1.54
	(공립)산업	540	70,498.8	130.55	1.15
	(공립)특수	540	85,335.0	158.03	1.39
	사립	9,892	1,483,704.9	149.99	1.32
	전체	12,332	1,876,991.7	152.20	1.34
수도권	(공립)산업				
	(공립)특수				
	사립	8,169	1,123,065.7	137.48	1.21
	전체	8,169	1,123,065.7	137.48	
지방	(공립)거점	8,340	1,188,075.5	142.46	1.25
	(공립)산업				
	(공립)주요	3,805	484,974.5	127.46	1.12
	(공립)특수	840	106,015.0	126.21	1.11
	사립	20,994	2,387,235.1	113.71	1.00
	전체	33,979	4,166,300.1	122.61	
1994년 전체		54,480	7,166,357.5	131.54	

제4절 전공선택 결정요인

다음 <표 VI-4>는 전공선택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다. 여성은 46.4%이고, 아버지의 교육은 평균 11.4년이다. 가계소득은 2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아버지가 전문직인 경우가 7.9%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약 77%에 이른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58.4%이고, IMF 금융위기 이후에 입학한 사람은 75%이다.

<표 VI-4> 전공선택 기술통계

변수	Mean (%, 년, 백분위)	변수	Mean (%, 년, 백분위)	변수	Mean (%, 년, 백분위)
여성	46.40 (0,50)	인문계고(문과)	39.40	기타(자립형사립고자 율학교 등)	0.40 (0,06)
아버지의 교육	11.38 (3,90)	인문계고(이과)	37.50 (0,48)	검정고시	0.90 (0,10)
아버지 교육 missing	1.30 (0,11)	외국어고	1.00 (0,10)	모름/무응답	0.20 (0,05)
가계소득 200 미만	24.60 (0,10)	과학고	0.10 (0,04)	지방고등학교	58.40 (0,49)
가계소득 200~500	62.80 (0,48)	예체능고	0.90 (0,10)	입학나이	20.92 (4,96)
가계소득 500 이상	11.80 (0,32)	상업계고	10.00 (0,30)	이전 대학경험	14.40 (0,35)
가계소득 missing	0.80 (0,09)	공업계고	8.90 (0,29)	IMF 이후 입학	74.90 (0,43)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7.90 (0,27)	농업·수산· 해양계고	0.70 (0,09)	대입성적	79.60 (14,80)
대입성적 missing	43.20 (0,50)				

전공선택은 실용전공에 대한 probit 모형과 전공계열에 대한 multinomial logit 모형을 통하여 전공선택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실용적 전공을 선택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취업과 임금에 보다 효과적인 전공을 실용적 전공으로 분류하고 사회계열(경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학계열, 교육, 의학계열 등을 포함하였다(몇 가지 구분을 시도하였으나 이들 전공을 모두 포함한 회귀분석결과만을 제시한다.) 실용전공에 어떤 전공을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다시 개별 전공계열에 probit 모형 결과와 MNL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VI-5>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실용적 전공을 덜 선택하였다.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학계열에서 남성의 선택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이 보다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

은 것을 보여 준다. 가정배경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대학의 경우 실용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인 경우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전문직일 경우 전문대학에서 실용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계열은 인문계 고등학교 문과학생에 비해 이과학생들이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학고의 경우 4년제 대학에서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체능계 고등학교는 인문계의 문과와 비교하여 모두 이 가능성을 낮추는데, 이는 이들 대부분이 예체능계열 쪽으로 진학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업계열과 공업계열의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 문과와 비교하여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농업·수산·해양계열은 이들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인문계 문과학생들보다 낮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고졸자들에 비해 지방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입학나이가 많을수록 실용적인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의 대학경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학 입학성적은 실용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표 VI-5> 실용적 전공(교육, 사회계열, 의학, 공학)선택(probit모형)

구분	전문대		4년제	
	dF/dx	z-statistics	dF/dx	z-statistics
교육, 사회, 의학, 공학				
여성	-0.095 ***	(9.04)	-0.166 ***	(14.07)
아버지의 교육	-0.004 ***	(3.17)	-0.001	(1.52)
아버지의 교육 missing	-0.049	(1.14)	-0.014	(0.41)
가계소득 200 이하				
가계소득 200 ~ 500	-0.016 ***	(1.64)	-0.029 ***	(3.00)
가계소득 500 이상	-0.021	(1.20)	-0.034 **	(2.44)
가계소득 missing	-0.037	(0.82)	-0.052	(1.18)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058 ***	(2.98)	-0.004	(0.37)

<표 계속>

구분	전문대		4년제	
	dF/dx	z-statistics	dF/dx	z-statistics
교육, 사회, 의학, 공학				
인문계고(문과)				
인문계고(이과)	0.061 ***	(4.97)	0.057 ***	(7.07)
외국어고	0.103	(0.97)	0.016	(0.56)
과학고	-0.19	(1.08)	0.159 **	(2.23)
예체능고	-0.381 ***	(5.93)	-0.545 ***	(11.23)
상업계고	0.023 *	(1.94)	0.057 **	(2.54)
공업계고	0.045 ***	(3.20)	0.057 **	(2.10)
농업·수산·해양계고	-0.140 ***	(3.91)	-0.405 ***	(4.12)
기타고	0.02	(0.39)	-0.03	(0.39)
검정고시	-0.035	(0.87)	-0.140 ***	(2.96)
모름/무응답	0.047	(0.50)	-0.009	(0.13)
지방고등학교	0.049 ***	(5.25)	0.063 ***	(7.98)
입학나이	0.002 ***	(2.67)	0.003 **	(2.31)
이전 대학경험	-0.006	(0.47)	0.012	(0.94)
IMF 이후 입학	-0.060 **	(1.97)	0.00009	(0.01)
대입성적			0.001 ***	(5.26)
대입성적 missing			0.031	(1.05)
Log Likelihood Ratio	383,58		1,487.7	
관측치	9,981		16,563	

주: 괄호 안은 z-statistics.

다음 <표 VI-6>은 전문대학 입학자를 Multinomial logit(MNL)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인문계열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전공을 선택한 요인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표 VI-6> MNL: 전문대학의 전공계열 선택(인문계열 기본)

변량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여성	-0.411 *** (3.14)	2.604 *** (8.78)	-1.864 *** (14.15)	-0.355 ** (2.37)	0.716 *** (4.76)	-0.216 (1.58)
아버지의 교육	-0.018 (1.07)	0.031 (1.35)	-0.037 ** (2.11)	-0.035 * (1.77)	-0.025 (1.27)	0.017 (0.97)
아버지의교육 missing	-0.171 (0.33)	0.439 (0.66)	-0.447 (0.85)	-0.505 (0.84)	-0.265 (0.45)	0.243 (0.45)
가계소득 200 이하						
가계소득 200~500	-0.031 (0.25)	-0.331 ** (2.04)	-0.099 (0.78)	-0.058 (0.40)	-0.258 * (1.81)	-0.0002 0.00

<표 계속>

변량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가계소득 500 이상	-0.139 (0.63)	-0.543 ** (1.96)	-0.111 (0.54)	-0.209 (0.86)	-0.459 * (1.90)	-0.049 (0.23)
가계소득 missing	-0.031 (0.06)	-0.461 (0.64)	-0.069 (0.13)	-0.14 (0.22)	-0.698 (1.09)	0.117 (0.21)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154 (0.68)	0.211 (0.75)	-0.097 (0.42)	-0.034 (0.13)	0.091 (0.36)	0.555 ** (2.45)
인문계고(문과)						
인문계고(이과)	0.227 (1.35)	0.396 * (1.87)	1.189 *** (7.19)	0.660 *** (3.51)	1.023 *** (5.88)	0.505 *** (2.92)
외국어고	23.101 *** (21.24)	-12.262 0.00	22.668 *** (19.89)	22.493 (19.89)	23.300 *** (18.87)	22.405 *** (18.24)
과학고	-1.66 (1.17)	-36.228 0.00	-1.27 (1.00)	-0.492 (0.34)	-1.569 (1.08)	-1.096 (0.77)
예체능고	20.881 *** (25.88)	21.950 *** (25.78)	20.424 *** (23.32)	20.838 (23.32)	20.500 *** (22.21)	23.088 *** (31.63)
상업계고	0.450 *** (3.48)	-0.438 *** (2.59)	0.728 *** (5.37)	0.135 (0.86)	-1.550 *** (8.70)	0.1 (0.73)
공업계고	0.519 ** (2.15)	-0.29 (0.60)	1.907 *** (8.13)	1.191 *** (4.62)	0.203 (0.74)	1.195 *** (4.89)
농업·수산·해양계고	0.727 (0.99)	0.411 (0.40)	1.702 (2.34)	2.549 *** (3.46)	-0.074 (0.08)	1.278 * (1.71)
기타고	21.285 *** (33.77)	21.926 *** (33.01)	20.891 *** (31.18)	21.040 *** (28.36)	19.702	21.296 *** (32.65)
검정고시	-0.637 * (1.72)	-0.921 * (1.70)	-0.27 (0.69)	-0.834 (1.55)	-0.872 * (1.79)	-0.388 (0.96)
모름/무응답	21.815 *** (26.81)	-13.495 0.00	21.417 *** (24.97)	22.041 *** (23.63)	21.191	20.923 *** (20.55)
지방고등학교	0.525 *** (4.58)	0.848 *** (5.67)	0.172 (1.50)	0.335 ** (2.56)	1.525 *** (11.49)	0.308 *** (2.59)
입학나이	0.040 *** (4.40)	0.013 (1.14)	-0.022 ** (2.37)	-0.023 ** (2.11)	-0.137 *** (8.60)	0 (0.08)
이전 대학경험	-0.102 (0.61)	0.031 (0.14)	-0.511 *** (2.94)	-0.142 (0.71)	0.487 ** (2.51)	-0.267 (1.48)
IMF 이후 입학	0.282 (0.56)	15.374 *** (29.65)	-0.098 (0.21)	0.527 (0.92)	-0.892 * (1.77)	0.097 (0.19)
상수	0.506 (0.86)	-18.425	3.191 *** (5.69)	0.774 (1.15)	3.531 *** (5.45)	0.696 (1.16)
관측치	9,981					
LR	4,454.69					

주: 괄호 안은 t statistics.

〈표 V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은 인문계열과 비교하여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을 기피하는 반면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의 특징은 고등학교 계열을 통제한 후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계열,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계열은 대체로 관계 있는 계열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예체능계열이

문과계열과 비교하여 다른 모든 전공계열을 선호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과거경험(입학나이, IMF 이후 입학, 지방고등학교 출신, 이전 대학경험)은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체로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IMF 이후 입학생들은 인문계열과 비교하여 교육계열 선택이 압도적이고, 지방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의학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에 대학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학계열을 더 기피하고 의학계열을 선호한다. 입학나이가 많을수록 인문계열과 비교하여 사회계열을 더 선호한다. 실용적 전공에 사회계열, 의학계열 및 공학계열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한 경우도 다소 다른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기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표 VI-7>은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표본을 합쳐 MNL모형을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문계열보다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을 기피하는데, 공학계열에 대한 기피가 가장 심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 계열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이과학생들이 문과학생들보다 공학, 자연, 의학계열을 더 선호할 뿐 아니라 교육계열, 사회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다. 문과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에 치중하여 계열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계열을 다소 덜 선호하고 예체능을 다소 더 선호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공학, 자연, 사회, 의학을 인문보다 크게 선호한다. 상업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학, 자연, 사회, 예체능 계열을 인문계 문과 졸업자보다 더 선호한다. 공업계열 학생들은 공학과 자연계열을 더 선호한다. 농업·수산·해양계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지방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문계열보다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순으로 선호하는 것 같다. 입학나이가 들수록 공학과 자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전의 대학경험은 교육과 의학계열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 이후에 입학한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과 의학을 선호하고, 사회계열도 인문계열보다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MNL 모형: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교 계열선택

변량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여성	-0.658 *** (7.51)	0.121 (1.11)	-0.219 * (1.86)
아버지의 교육	-0.014 * (1.75)	0.017 (1.64)	0.019 * (1.65)
아버지의 교육 missing	-0.134 (0.53)	0.140 (0.42)	0.219 (0.62)
가계소득 200 이하			
가계소득 200~500	0.021 (0.30)	-0.231 *** (2.62)	0.213 ** (2.02)
가계소득 500 이상	0.174 * (1.80)	-0.503 *** (3.96)	0.432 *** (3.22)
가계소득 missing	-0.297 (1.00)	-0.905 ** (2.17)	0.512 (1.42)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190 ** (2.06)	0.200 * (1.85)	0.053 (0.46)
인문계고(문과)			
인문계고(이과)	0.266 *** (3.31)	1.509 *** (17.26)	0.780 *** (7.76)
외국어고	-0.467 *** (2.95)	-0.079 (0.39)	-1.576 *** (4.45)
과학고	22.025 *** (17.94)	-21.848	22.741
예체능고	0.113 (0.18)	0.979 (1.51)	4.597 *** (9.05)
상업계고	0.838 *** (5.38)	-0.542 ** (2.13)	1.095 *** (5.73)
공업계고	-0.249 (1.10)	-1.418 *** (2.90)	0.764 *** (2.81)
농업·수산·해양계고	-1.118 (1.55)	-1.018 (0.90)	0.739 (0.94)
기타고	-0.197 (0.38)	-0.154 (0.22)	0.172 (0.24)
검정고시	-0.555 ** (2.13)	-1.960 *** (3.20)	0.123 (0.36)
모름/무응답	0.001 (0.00)	-1.108 (1.02)	0.124 (0.18)
지방고등학교	0.245 *** (4.35)	0.622 *** (8.50)	-0.187 ** (2.43)
입학나이	0.010 (1.01)	-0.009 (0.68)	-0.017 (1.21)
이전 대학경험	-0.130 (1.46)	0.421 *** (3.88)	0.148 (1.27)
IMF 이후 입학	-0.207 ** (2.19)	0.969 *** (7.19)	0.237 * (1.79)
상수	0.962 (4.02)	-1.826 *** (5.71)	-0.911 *** (2.65)
관측치	16,563		
LR	11,984.76		

<표 계속>

변량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여성	-1.640 *** (16.16)	-0.029 (0.26)	-0.374 *** (2.86)
아버지의 교육	-0.024 ** (2.52)	-0.013 (1.35)	0.052 *** (3.54)
아버지의 교육 missing	-0.336 (1.13)	-0.414 (1.25)	0.074 (0.14)
가계소득 200 이하		0.040	-0.203 *
가계소득 200~500	-0.109 (1.33)	(0.45)	(1.66)
가계소득 500 이상	-0.234 ** (1.99)	-0.045 (0.37)	-0.138 (0.83)
가계소득 missing	-0.230 (0.67)	-0.770 * (1.86)	-1.552 ** (2.03)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261 ** (2.32)	-0.271 ** (2.32)	0.089 (0.60)
인문계고(문과)			
인문계고(이과)	4.066 *** (45.34)	3.312 *** (37.68)	2.833 *** (24.28)
외국어고	0.225 (0.82)	-0.372 (1.26)	0.978 *** (3.61)
과학고	26.182 *** (25.16)	25.359 *** (23.62)	27.019 *** (26.01)
예체능고	-43.302	-44.693	-42.934
상업계고	1.991 *** (9.44)	1.083 *** (4.72)	0.088 (0.23)
공업계고	3.120 *** (14.72)	1.362 *** (4.67)	-0.646 (1.05)
농업·수산·해양계고	1.938 *** (2.58)	3.414 *** (5.19)	-44.805
기타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	1.992 *** (3.61)	1.553 *** (2.65)	1.314 * (1.81)
검정고시	1.164 *** (3.48)	0.447 (1.09)	0.094 (0.20)
모름/무응답	2.154 *** (4.01)	1.478 ** (2.53)	1.272 (1.53)
지방고등학교	0.282 *** (4.25)	0.153 ** (2.20)	0.573 *** (5.65)
입학나이	-0.095 *** (6.55)	-0.107 *** (5.87)	0.035 ** (2.40)
이전 대학경험	-0.046 (0.43)	-0.054 (0.45)	0.428 *** (3.12)
IMF 이후 입학	-0.121 (1.15)	-0.061 (0.52)	0.958 *** (5.81)
상수	1.402 *** (4.34)	0.087** (2.23)	-4.544 *** (11.38)

주: 괄호 안은 t statistics.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남녀의 차이가 개인이 가지는 특성과 관련된 문화나 사회적 의식 등과 관련된 것인지 노동시장의 차별과 관련된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전공계열 선택의 상당부분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계열 및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과보다 이과의 선택 폭이 넓으며, 과학고등학교는 관련분야인 공학, 자연, 의학계열의 진출이 많은 반면,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 선택은 다양하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계열 선택이 다양한 반면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체로 관련 분야의 계열을 선택한다.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의 소득 등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한다.) 또 과거의 경험 등은 다소 실용적 전공(특히 교육 및 의학계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수도권 이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향도 유사하다.

고등학교 종류와 계열의 중요성은 이를 결정하는 시기의 진로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뿐 아니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진로교육과 상담을 집중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문제는 이 시기에 과중한 학업부담과 부실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탐색과 상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절 전공계열 및 대학수준의 노동시장성과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취업성과와 임금(소득)성과로 나누어 본다. 취업성과는, 경제상태로 취업과 일자리의 특성 중 4대보험이 보장되는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임금(소득)성과는 월평균임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졸업 후 3년 이상을 경과한 상태에서의 취

업상태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반실업자'는 지난 한 달 내에 일자리를 찾은 경우가 있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규정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비경활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이 인문계열이고 그 다음이 예체능계열이다. 취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의학계열, 교육계열, 그리고 공학계열로 실용적 전공계열의 취업률이 높았다. 사회계열 역시 이들 전공계열과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열이 경영, 회계 등 매우 실용적인 학문들과 사회학, 정치학 등 다소 덜 실용적인 학문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비경활이 높은 인문계열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전문대학의 취업성고가 좋다는 것도 결국 인문계열의 비율이 낮아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의 비경활상태가 가장 높으며, 교육, 공학, 의학, 사회계열의 취업자 비율이 높았다.

<표 VI-8> 2008 대졸자 경제활동상태

구분	전공계열	취업자(%)	실업자(%)	반(半)실업자(%)	비경활(%)	총합(명)
전문대학	인문계열	57.8	5.7	1.0	35.6	419
	사회계열	70.1	3.2	0.3	26.4	2,400
	교육계열	72.4	0.5	0.7	26.4	424
	공학계열	72.1	3.8	0.3	23.9	3,574
	자연계열	68.4	3.7	0.3	27.6	753
	의약계열	73.1	1.9	0.1	24.9	932
	예체능계열	65.5	3.7	0.4	30.4	1,479
	총합(명)	6,970	338	0	2,638	9,981
4년제대학	인문계열	66.5	2.2	0.7	30.7	2,134
	사회계열	73.1	2.4	0.4	24.1	4,146
	교육계열	79.0	0.9	0.1	20.0	1,533
	공학계열	76.8	1.9	0.3	20.9	4,577
	자연계열	69.0	2.0	0.3	28.7	2,238
	의약계열	73.5	0.5	0.3	25.7	645
	예체능계열	66.7	1.9	0.3	31.1	1,290
	총합(명)	12,057	320	0	4,128	16,563

다음은 4대 보험이 모두 보장되는 일자리를 보유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가장 높은 의학계열이 66%이고 공학(62%), 사회(57%), 자연(56%), 교육(52%), 인문(45%), 예체능계열(39.4%) 순으로 낮아졌다. 전문대의 교육계열 졸업자들은 높은 취업률과 달리 4대 보험이 보장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대학과 비교하면 다소 높으나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공학(69%), 사회(61%), 의약(59%), 교육(57%), 자연(54%), 인문(44%), 예체능(37%)로 순으로 낮아졌다. 인문계열과 예체능의 취업가능성과 직장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비해 공학, 사회, 교육, 의학 취업률과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취업된 일자리가 대부분(80% 이상) 상용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취업자 중에도 높은 비율의 졸업자가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VI-9> 전문대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보유 여부 (2008)

구분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	
	有(%)	총합(명)	有(%)	총합(명)
인문계열	45.1	419	44.3	2,134
사회계열	57.2	2,400	61.1	4,146
교육계열	52.4	424	57.7	1,533
공학계열	62.2	3,574	69.2	4,577
자연계열	55.8	753	54.4	2,238
의약계열	66.6	932	59.4	645
예체능계열	39.4	1,479	37.4	1,290
총합(명)	5,631	9,981	9,613	16,563

다음 <표 VI-10>는 취업과 4대 보험 일자리 여부에 대한 probit 모형 결과이다. 일자리와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공계열은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이 인문계열과 비교해서

뚜렷한 양(+)³의 효과를 갖는다. 기타계열은 인문계열과 비교하여 취업과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부분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예체능계열은 4대 보험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학수준별로 보았을 때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방 사립대학교와 비교하여 교육대와 특수목적대학교가 높은 취업성과를 보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취업성과도 높다. 기타변수들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험준비는 부정적 효과를 복수전공은 제한적으로나마 양의 효과를, 자격증은 모든 열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성적 또한 일관되게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취업과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결정요인(probit모형)

구분	전문대		4년제 대학, 교육대	
	취업 여부	4대 보험 일자리	취업 여부	4대 보험 일자리
여성	-0.074 *** (7.46)	-0.086 *** (7.47)	-0.073 *** (9.80)	-0.106 *** (12.20)
인문계열				
사회계열	0.024 (1.09)	0.080 *** (3.04)	0.024 ** (2.15)	0.131 *** (9.93)
교육계열	0.076 *** (2.78)	0.055 (1.62)	0.018 (1.04)	0.039 * (1.90)
공학계열	0.013 (0.59)	0.104 *** (3.93)	0.045 *** (3.89)	0.207 *** (15.31)
자연계열	0.003 (0.15)	0.063 ** (2.11)	0.015 (1.20)	0.106 *** (7.09)
의약계열	0.087 *** (3.78)	0.186 *** (6.65)	0.075 *** (4.12)	0.142 *** (6.66)
예체능계열	0.023 (1.00)	-0.089 *** (3.17)	0.008 (0.55)	-0.064 *** (3.53)
취업준비기간	0.001 (0.64)	0.002 (0.94)	0.0004 (0.72)	0.0006 (0.90)
취업사교육비 지출 (100만 원)	-0.002 (0.46)	-0.012 * (1.72)	0.003 (0.88)	0.0008 (0.24)
시험준비	-0.079 *** (6.20)	-0.043 *** (3.00)	-0.089 *** (11.08)	-0.041 *** (4.52)
해외연수비 (100만 원)	-0.004 * (1.73)	-0.001 (0.49)	-0.0003 (0.57)	0.001 *** (2.73)

<표 계속>

구분	전문대		4년제 대학, 교육대	
	취업 여부	4대 보험 일자리	취업 여부	4대 보험 일자리
아르바이트	0.008 (0.82)	0.006 (0.55)	0.002 (0.37)	0.006 (0.72)
복수전공	0.049 ** (2.07)	-0.046 (1.63)	0.011 (1.30)	0.028 *** (2.82)
자격증수	0.015 *** (5.15)	0.018 *** (5.47)	0.017 *** (6.31)	0.028 *** (9.10)
대학 재학				
대학원 재학	-0.175 *** (11.66)	-0.079 *** (4.74)	-0.189 *** (19.65)	-0.171 *** (15.92)
성적 하위권				
성적 중위권	0.044 ** (1.97)	0.083 *** (3.17)	0.040 ** (2.49)	0.044 ** (2.34)
성적 상위권	0.053 ** (2.36)	0.084 *** (3.18)	0.063 *** (3.92)	0.080 *** (4.18)
성적 최상위권	0.036 (1.52)	0.077 *** (2.68)	0.045 ** (2.45)	0.079 *** (3.61)
등록금 학생 부담	-0.052 *** (5.64)	-0.029 *** (2.76)	-0.018 ** (2.36)	0.029 *** (3.18)
지방 사립대				
서울 사립대			0.031 *** (3.73)	0.072 *** (7.18)
경기 사립대			0.030 *** (3.02)	0.051 *** (4.26)
공립대			0.026 (0.83)	0.092 *** (2.45)
거점 국립대			0.011 (0.92)	0.025 * (1.74)
주요 국립대			0.028 * (1.88)	0.006 (0.36)
교육대			0.211 *** (11.97)	0.217 *** (8.98)
특목대			0.080 ** (2.45)	0.091 ** (2.30)
서울대 등			-0.051 (1.32)	0.024 (0.54)
관측치	9,894	9,894	16,486	16,486
LR	308.40	414.25	887.64	1,269.46

주: 괄호 안은 z statistics.

여기 보고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자리)의 업무내용과 전공의 일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교육 및 의학계열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학-사회계열-예체능계열이 뒤를 이었다. 이것은 직업 및 산업 관련 실용지식을 많이 공부할수록 전공일치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반면 대학의 전공지식이 직장(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대학의 경우 의학 및 교육 계열의 응답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다른 비율은 50% 이하로 크게 떨어져 졸업 후 3년이면 전공지식은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도 의학(85%), 교육(81%)을 제외하면 공학(53%)과 예체능(62%) 계열이 조금 높을 뿐 5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크게 낮아져 유효한 전공지식이 점차 현장의 숙련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1〉과 〈표 VI-12〉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계열별 평균임금(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두 표를 함께 참조하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임금이 계열별로 어떻게 다른지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임금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동시에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열별로 임금차이가 매우 크다. 전문대학의 경우 공학, 사회, 의약, 인문, 예체능, 교육 전공계열 순으로 낮아지는 반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의학-공학-사회계열이 높은 편이고, 인문-교육-자연은 그 다음 그룹이며, 예체능 계열이 가장 낮다. 둘째, 계열별로 임금성장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의학과 공학 전공계열의 임금상승 폭(2006년과 2008년 비교할 때 30만 원)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20만 원 후반), 나머지는 유사한 성장(20만 원)을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은 35만 원 이상 늘었고, 사회계열은 경우도 40만 원 늘었으며, 공학계열도 40만 원, 자연계열도 40만 원, 의학계열도 45만 원 늘었으며, 예능계열의 경우 약 40만 원이 늘었다. 그러나 교육계열은 30만 원 정도, 교육대학은 15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장기적인 성장은 앞으로 추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셋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평균임금의 차이가 초기부터 존재하지만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VI-13〉과 〈표 VI-14〉를 비교하면 인문

계열의 경우 2006년에는 평균임금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가 약 20만 원으로 증가한다. 사회계열의 경우에도 26만 원의 차이가 36만 원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교육계열의 경우에는 40만 원 미만의 차이가 60만 원으로 벌어졌고, 공학계열의 경우 30만 원 미만의 차이가 40만 원을 넘어섰다.

<표 VI-11> 전문대 임금평균

(단위: 백만 원, 표준편차)

연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2006	159.3	170.8	123	172.6	154.9	153.5	149.2
	(157.90)	(110.70)	(55.10)	(88.70)	(88.80)	(48.30)	(138.80)
2007	172.7	185.6	133.6	200	183	170.3	188.6
	(121.70)	(116.70)	(56.70)	(255.00)	(360.20)	(48.40)	(505.10)
2008	180.2	198.7	140.7	203.5	183.9	186.8	170.2
	(145.20)	(132.50)	(50.90)	(93.30)	(106.60)	(53.90)	(98.10)

<표 VI-12> 4년제 대학 대학교 임금평균

(단위: 백만 원, 표준편차)

연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교육대학
2006	161.7	196.5	171.2	204.7	162.6	219.9	147.1	203.8
	(83.3)	(96.3)	(61.1)	(76.4)	(87.3)	(126.3)	(80.8)	(68.1)
2007	181.2	228.9	190	237.1	190.4	274.6	168.1	213
	(102.9)	(315.5)	(55.0)	(249.5)	(225.1)	(533.0)	(81.6)	(69.8)
2008	197.9	234.2	201.1	246.4	204.3	265.6	186.9	218.2
	(99.3)	(123.3)	(60.8)	(82.7)	(94.2)	(129.0)	(134.0)	(27.5)

다음은 대학범주(수준)별 임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취업성과를 우선 파악해야 되나 대학범주별의 취업성과는 계열구성이 크게 달라 비교가 오히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살펴본 결과는 오히려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는 대학범주(수준)별 임금차이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사립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각 그룹의 임금은 크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의 규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06년의 평균임금은 서울 사립대, (서울) 공립대, 교육대학교, 경기 사립대, 지방의 거

점 국립대, 주요 국립대, 지방 사립대 순이다. 공립대학교가 서울시립대학이 유일함을 고려하면,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 소재 대학, 다음으로 거점 국립대학교, 주요 국립대학교, 지방 사립대학교 순으로 낮아진다. 또 그 규모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VI-13> 4년제 대학 대학종류별 임금평균

(단위: 백만 원, 표준편차)

연도	지방 사립대	서울 사립대	경기 사립대	공립대	거점 국립대	주요 국립대	교육대	특목대	서울대등
2006	170.3 (89.0)	206 (91.9)	185.3 (80.8)	205.8 (85.5)	177.7 (74.8)	176.9 (104.5)	203.8 (68.1)	197.9 (58.8)	225.3 (115.2)
2007	201.8 (305.9)	238.6 (254.8)	215.7 (213.9)	224.4 (71.7)	198.2 (83.0)	202.3 (320.6)	213 (69.8)	209.8 (68.9)	266.5 (117.2)
2008	206.8 (114.9)	250.8 (102.9)	228.9 (103.3)	240.4 (101.9)	215.2 (81.8)	208 (88.5)	218.2 (27.5)	222.3 (68.5)	255.4 (109.1)

다음은 SUR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여러 표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전문대학교 졸업생을 하나의 표본, 그리고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교 졸업생을 하나의 표본으로 나누어 전공계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는 4년제만을 제한하여 각 전공별로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았다. log 월임금(소득) 회귀방정식의 독립변수는 여성더미, 근속년수와 그 제곱, 잠재경력, 전공계열(개별전공의 회귀분석을 할 경우 이를 생략)을 포함하였다.

동시에 전공 이외에 인적자본 투자의 주요한 변수로 추정되는 다음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본인이 보고한 대학의 성적, 복수전공, 자격증 수 등이 우선 포함되었다. 대학의 성적은 개인이 대학수준과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후 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업에 임하였는가를 나타내며, 대학수준과 전공의 셀 내의 인적자본의 질을 나타낼 것이고, 복수전공은 보다 다양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비실용적 전공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격증의

보유 여부 또한 개인이 가진 매우 중요한 인적자본의 지표일 수 있다. 여기서는 자격증의 숫자로 상정하였으나, 이는 자격증의 인적자본 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자격증의 종류에 이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기타 인적자본 축적의 보조적 장치일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시켰는데, 졸업 전의 취업준비기간, 취업사교육지출비(100만원 단위), 공무원등 시험 준비, 해외연수 여부와 해외연수비용(1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교의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하는가 하는 여부 등 기타 인적자본 축적이나 취업준비와 관련된 사항이 그것들이다. 이외 일자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자영업 여부, 주당 근로시간, 대학(대학원)재학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우선 졸업 전의 취업준비기간이 길수록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임금(소득)도 높을 수 있고, 이것을 비용을 요구하는 인적자본 투자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은 취업사교육비 지출변수로 학교교육이 취업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못할 때(예를 들면 영어 시험성적이 취업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인데, 학교가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때) 개인의 사적 투자를 통해서 취업과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대학생들이 많이 투자하는 취업투자의 하나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다. 해외연수의 여부와 연수의 질과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수비를 포함한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 또한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왔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전공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할 때보다 인적자본 축적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지불할 경우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투자하는 열정과 노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변수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또는 개인의 역량의 잠재된 부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이는 해외연수 더미에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학에서의 성적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 이 교육과정과 결합함으로써 생긴 인적자본의 질을 직접적

으로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VI-14>는 전문대학 표본과 4년제 대학학(교육대 포함) 표본의 log 월소득에 대해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든 전공계열을 포함한 것이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20% 이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근속년수와 그 제곱은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잠재경력(졸업 후 햇수)은 유의미하지 않았다(그 제곱을 포함한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졸업 후 기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⁹⁾

전공계열을 살펴볼 경우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은 인문계열보다 7~8%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의학계열은 약 17%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공계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전문대학의 교육계열은 전공일치도나 전공지식의 도움이 매우 크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의학(보건)계열은 전공일치 지식의 유용성도 높고 또 임금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공학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대학교 공학전공은 일자리를 얻는 데는 실익이 있지만 임금을 높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4년제 대학학의 경우 2006년의 경우 의학, 교육, 공학, 사회계열의 순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2008년의 경우에는 의학, 교육, 공학, 사회계열의 순서는 지켜지지만 자연계열의 임금의 유의하게 인문계열보다 높아졌고, 예체능계열의 임금이 유의하게 낮아졌다.¹⁰⁾

4년제 대학수준별 임금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 명문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교육대학교의 졸업생이 지방 사립대학교 졸업생보다 크게 높은 임금을 받았다. 교육대학교과 서울대 등의 효과가 2008년에 다소 줄었다. 여기에 대학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계열별 수익률은 대학수준의 통제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

9) 근속년수의 경우는 개인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이 일을 시작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10) 여기서 의학계열 내에서 의학전공(한의학, 치과, 안과, 일반의)등의 임금은 매우 높고, 사회계열 중에서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와 임금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범주변수를 통제하였을 경우 대체로 전공계열별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 교육과정과 결합된 결과로 본 성적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006년의 경우에는 다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8년의 경우 이 효과의 규모도 줄고 유의성도 사라졌다. 이는 성적이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입직 당시 채용과정에서 선별(screen) 효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년제 대학학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도 여전히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고 성적에 따른 임금차이가 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여타변수들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경험과 등록금의 자기해결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4년제 대학학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과 등록금 자기해결 변수의 부정적 효과는 더 작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다른 변수들(취업준비기간, 취업사교육비, 해외연수와 연수비, 자격증수)이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준비는 2008년에 부(-)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공무원 시험과정이 전업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가 되어 인적자본 투자로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VI-14> 월소득 결정요인(회귀분석모형)

구분	전문대학		4년제	
	06년	08년	06년	08년
인문계열				
사회계열	0.017 (0.51)	0.029 (0.95)	0.111 *** (6.82)	0.117 *** (8.14)
교육계열	-0.071 (1.64)	-0.088 ** (2.23)	0.286 *** (14.03)	0.170 *** (9.45)
공학계열	0.032 (0.96)	0.026 (0.87)	0.149 *** (8.94)	0.143 *** (9.73)
자연계열	0.006 (0.16)	0.026 (0.75)	0.018 (0.97)	0.033 ** (1.96)
의약계열	0.165 *** (4.40)	0.177 *** (5.21)	0.250 *** (9.34)	0.260 *** (10.98)

<표 계속>

구분	전문대학		4년제	
	06년	08년	06년	08년
예체능계열	-0.060 *	-0.060 *	-0.035	-0.038 *
	(1.65)	(1.82)	(1.50)	(1.84)
취업준비기간	0.003	0.002	0.001	0.002 ***
	(1.18)	(0.83)	(1.42)	(2.64)
취업 사교육비 지출 (100만 원)	0.004	0.112	0.016***	0.011 ***
	(0.38)	(1.08)	(3.91)	(3.11)
시험준비	-0.016	0.001	-0.008	-0.029 ***
	(0.93)	(0.10)	(0.84)	(3.26)
해외연수	0.077	0.028	0.081 ***	0.077 ***
	(1.42)	(0.58)	(4.32)	(4.70)
해외연수비 (100만 원)	0.003	0.002	0.005 ***	0.003 ***
	(0.68)	(0.70)	(4.58)	(3.65)
아르바이트	-0.040 ***	-0.023 *	-0.022 **	-0.019 **
	(2.78)	(1.75)	(2.14)	(2.12)
복수전공	-0.023	-0.016	0.069 ***	0.059 ***
	(0.71)	(0.54)	(6.22)	(6.06)
자격증수	0.006	0.002	-0.013 ***	-0.019 ***
	(1.59)	(0.60)	(3.81)	(6.39)
주 노동시간	0.003 ***	0.003 ***	0.006 ***	0.004 ***
	(7.43)	(9.38)	(21.07)	(16.36)
자영업	0.232 ***	0.178 ***	0.138 ***	0.031 *
	(10.04)	(8.90)	(5.90)	(1.71)
대학 재학	-0.085 ***	0.016	-0.370 ***	-0.021
	(4.14)	(0.70)	(23.35)	(1.08)
성적 하위권				
성적 중위권	0.015	-0.008	0.021	0.008
	(0.45)	(0.25)	(0.98)	(0.41)
성적 상위권	0.061 *	0.029	0.088 ***	0.069 ***
	(1.72)	(0.90)	(3.95)	(3.53)
성적 최상위권	0.079 **	0.052	0.110 ***	0.100 ***
	(2.06)	(1.52)	(4.21)	(4.35)
등록금 학생부담	-0.111 ***	-0.084 ***	-0.039 ***	-0.037 ***
	(8.13)	(6.84)	(3.74)	(4.07)
관측치	3,842	3,842	6,901	6,901
LR	2,384.81	2,151.68	2,937.88	2,086.26

주: (1) 괄호안은 t statistics, (2) 근속년수, 그 제곱, 결측치, 잠재경력, 상수는 포함되었으나 보고 않음.

다음은 교육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학의 전공계열별 log 월임금 회귀 분석이다. 전공별로 인적자본의 다른 지표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VI-15>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표본을 회귀분석

한 것이다.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대학의 그룹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동일한 전공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역량, 동료 학생의 역량,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사립대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경기 및 인천 소재 사립대학교(경기사립대로 표기), 공립대(서울시립대), 거점 국립대(각 지역의 거점대학-부산, 경북, 전남, 전북, 경상, 충남, 충북, 제주) 등을 의미하며, 주요 국립대학교(안동대, 목포대, 충주대 등 거점도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국립대학교), 특수목적대(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 등(서울대, 포항공대 등)으로 나누었다.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와 서울대 등 가장 선호 대학의 효과의 2년에 걸쳐 유의미하게 지방 사립대학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고, 또 지방 주요 국립대학교의 경우도 지방 사립대학교 보다 크게 높은 임금을 받았는데 이 또한 유의미하다. 오히려 지방 국립대학교의 경우 2006년 한 해만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 이 두 국립대학교 효과는 이후 연도의 성과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전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의 비직업적 특성의 한계를 이 복수전공이 보충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연수비 또한 일정한 효과를 가지며 성적에 의한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계열의 경우 서울대학교 등 최선호 대학, 선호대학, 서울의 사립대학교와 공립대학교의 효과가 매우 높았고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도 또한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복수전공 또한 성적 등이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졌으나 공무원 시험준비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자격증 수 등은 때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육계열의 경우 대학 간 차이는 특이하게 나타났는데, 교육대학과 특수목적대학교의 계수가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계수보다 크고 또한 유의미하다. 교육계열은 지역 간 대학범주 간 차이가 지방 사립대학교들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표 VI-15> 4년제 대학 졸업자(인문·사회계열) 월임금 결정요인(회귀분석)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06년	08년	06년	08년
취업준비기간	-0.001 (0.52)	0.000 (0.14)	0.000 (0.27)	0.003 ** (2.43)
취업사교육 지출 (100만 원)	0.006 (0.48)	0.017 (1.46)	0.004 (0.60)	0.005 (0.77)
시험준비	-0.013 (0.37)	-0.024 (0.70)	-0.036 ** (2.17)	-0.035 ** (2.34)
해외연수	0.037 (0.76)	0.057 (1.22)	0.092 *** (2.90)	0.056 * (1.93)
해외연수비 (100만 원)	0.007 *** (2.91)	0.004 * (1.72)	0.001 (1.03)	0.001 (1.01)
아르바이트	-0.047 (1.21)	-0.017 (0.14)	-0.007 (0.40)	-0.035 ** (2.04)
복수전공	0.097 *** (2.81)	0.081 ** (2.47)	0.051 *** (2.71)	0.040 ** (2.37)
자격증수	0.007 (0.60)	-0.008 (0.71)	-0.002 (0.47)	-0.009 * (1.78)
주 노동시간	0.009 *** (8.98)	0.006 *** (6.30)	0.006 *** (9.76)	0.003 *** (6.31)
자영업	0.267 *** (3.33)	0.080 (1.36)	0.085 * (1.94)	0.164 *** (4.28)
대학 재학	-0.260 *** (5.31)	-0.025 (0.32)	-0.255 *** (7.10)	-0.008 (0.21)
성적 중위권	-0.025 (0.32)	-0.001 (0.03)	0.017 (0.42)	0.028 (0.74)
성적 상위권	0.022 (0.28)	0.045 (0.60)	0.118 *** (2.75)	0.103 *** (2.62)
성적 최상위권	0.164 * (1.77)	0.169 * (1.92)	0.107 ** (2.19)	0.100 ** (2.22)
등록금 학생부담	0.004 (0.11)	0.026 (0.69)	-0.051 *** (2.69)	-0.063 *** (3.65)
서울 사립대	0.215 *** (5.39)	0.244 *** (6.43)	0.293 *** (15.23)	0.287 *** (16.23)
경기 사립대	0.006 (0.13)	0.034 (0.73)	0.100 *** (4.07)	0.085 *** (3.79)
공립대	0.263 (1.36)	0.273 (1.48)	0.231 *** (3.26)	0.146 *** (2.24)
거점 국립대	0.162 ** (2.36)	0.089 (1.38)	0.162 *** (5.40)	0.113 *** (4.11)
주요 국립대	0.210 ** (2.02)	0.212 ** (2.15)	0.013 (0.35)	-0.060 (1.69*)
특목대	0.091 (0.21)	0.156 (0.39)	0.228 (1.53)	0.153 (1.11)
서울대등	0.483 ** (2.22)	0.588 *** (2.85)	0.526 *** (3.15)	0.355 *** (2.32)
관측치	715	715	1,853	1,853
LR	346.41	218.48	1,231.28	1,138.03

주: (1) 괄호안은 t statistics, (2) 근속년수, 그 제곱, 결측치, 잠재경력, 상수는 포함되었으나 보고 않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사교육비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2006년에는 준비기간이 2008년에는 취업사교육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시험준비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교사 공채시험준비가 정규직 교사가 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해외연수나 복수전공은 의미가 없었다. 성적 또한 별 의미가 없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교사 공채방식 등에 따라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공학계열의 경우 서울대 등, 공립대, 서울 사립대, 경기 사립대, 거점 국립대학 순서로 임금이 높았고, 나머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대의 경우 2008년에만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교육비 지출은 일부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해외연수는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자격증수는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또한 매우 유의미한 요소이다.

<표 VI-16> 4년제 대학 졸업자 월임금 결정요인(회귀분석)

구분	교육계열		공학계열	
	06년	08년	06년	08년
취업준비기간	0.003 ** (2.07)	-0.000 (0.15)	0.002 (1.44)	0.001 (1.42)
취업사교육비 지출 (100만 원)	-0.019 (1.40)	0.024 * (1.73)	0.017 ** (2.12)	0.007 (1.15)
시험준비	0.115 *** (4.88)	0.050 ** (2.14)	-0.028 * (1.74)	-0.049 *** (3.77)
해외연수	0.077 (1.50)	0.066 (1.30)	0.109 *** (3.48)	0.105 *** (4.25)
해외연수비 (100만 원)	-0.001 (0.37)	-0.001 (0.39)	0.002 (0.98)	0.000 (0.40)
아르바이트	-0.031 (1.64)	-0.022 (1.16)	-0.044 ** (2.53)	-0.008 (0.59)
복수전공	0.017 (0.94)	0.004 (0.24)	0.021 (0.91)	0.026 (1.45)
자격증수	0.009 (1.25)	0.001 (0.24)	-0.008 (1.45)	-0.012 *** (2.61)
주 노동시간	0.009 *** (9.27)	0.007 *** (8.86)	0.004 *** (8.61)	0.001 *** (3.46)

<표 계속>

구분	교육계열		공학계열	
	06년	08년	06년	08년
자영업	0.116 (1.00)	-0.256 ** (2.25)	0.107 * (1.95)	-0.088 ** (2.03)
대학 재학	-0.129 *** (4.26)	-0.005 (0.20)	-0.661 *** (21.23)	-0.061 (1.26)
성적 하위권				
성적 중위권	0.056 (1.44)	0.038 (0.98)	0.043 (1.21)	0.034 (1.21)
성적 상위권	0.063 (1.59)	0.041 (1.04)	0.125 *** (3.48)	0.109 *** (3.86)
성적 최상위권	0.061 (1.41)	0.067 (1.55)	0.164 *** (3.78)	0.171 *** (5.02)
등록금 학생부담	-0.023 (1.29)	-0.024 (1.36)	-0.040 ** (2.30)	-0.058 *** (4.22)
서울 사립대	0.124 *** (3.86)	0.078 ** (2.47)	0.191 *** (10.06)	0.191 *** (12.80)
경기 사립대	0.017 (0.28)	-0.040 (0.66)	0.119 *** (6.01)	0.127 *** (8.13)
공립대	dropped	dropped	0.231 *** (4.10)	0.161 *** (3.65)
거점 국립대	0.117 *** (2.78)	-0.044 (1.07)	0.074 *** (3.02)	0.077 *** (3.96)
주요 국립대	0.155 *** (3.05)	0.058 (1.16)	0.042 (1.52)	0.010 (0.48)
교육대	0.211 *** (7.80)	0.090 (3.29) ***		
특목대	0.139 *** (3.31)	0.046 (1.10)	0.083 (1.41)	0.100 ** (2.15)
서울대 등	0.172 ** (2.00)	0.162 * (1.91)	0.357 *** (4.13)	0.221 *** (3.26)
관측치	752	752	2,186	2,186
LR	290.86	162.64	1,024.89	688.47

주: (1) 괄호 안은 t statistics, (2) 근속년수, 그 제곱, 결측치, 잠재경력, 상수는 포함되었으나 보고 않음.

자연계열의 경우 수도권 대학과 서울대 등 대학교들이 유의미하게 양의 효과를 가졌다. 국립대학교를 포함하여 지방대학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복수전공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준비기간과 취업사교육비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또한 유의미한 의미가 없다.

의약계열은 서울 사립대와 경기 사립대의 경우 부분적인 양의 효과를 보

이고 있을 뿐 교육계열과 같이 학교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해외연수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이 2008년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줄 뿐이고 나머지 변수들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공계열별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표 VI-4>의 계열별 종합표를 보면 여러 변수들의 효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대학범주의 효과는 서울 소재 대학만 차이가 있는 경우(예체능계열), 대학범주별 차이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의약계열), 그리고 서열별로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공학계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계열별 대학의 수준분포, 그리고 수요의 한계 등이 이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적의 경우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계열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복수전공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학과의 경우 이를 추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격증수는 대부분의 계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준비기간은 몇몇 전공계열에서 유의미하나 제한된 연도에만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 취업사교육의 여부와 비용은 여러 전공계열에서 유의미하나 양 년도에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시험준비는 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계열에는 임용고사 시험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관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외연수비용은 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전공에서는 대체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등록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일부 계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17> 4년제 대학 졸업자(자연·의약·예체능계열) 월임금 결정요인
(회귀분석)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06년	08년	06년	08년	06년	08년
취업준비기간	0.002 (1.28)	0.002 ** (1.91)	-0.008 (0.94)	-0.003 (0.55)	0.003 (0.87)	0.001 (0.34)
취업사교육비 지출 (100만 원)	0.029 *** (3.63)	0.002 (0.44)	0.062 (1.26)	0.072 * (1.81)	0.013 (0.93)	0.017 (1.23)
시험준비	-0.023 (0.81)	-0.016 (0.66)	-0.071 (1.05)	-0.103 * (1.87)	0.139 * (1.91)	0.013 (0.18)
해외연수	0.055 (0.85)	0.071 (1.33)	0.175 (1.04)	0.232 * (1.71)	0.025 (0.21)	0.054 (0.47)
해외연수비 (100만 원)	0.005 (1.35)	0.003 (0.97)	-0.007 (0.43)	-0.017 (1.26)	0.011 (1.51)	0.008 (1.17)
아르바이트	0.018 (0.56)	0.014 (0.55)	0.065 (1.14)	0.008 (0.19)	-0.065 (1.30)	-0.024 (0.49)
복수전공	0.180 *** (5.34)	0.129 *** (4.66)	-0.019 (0.23)	-0.113 (1.66)	0.048 (0.84)	-0.004 (0.09)
자격증수	-0.003 (0.40)	-0.007 (0.94)	-0.029 (1.12)	-0.024 (1.18)	0.016 (1.01)	0.033 ** (2.19)
주 노동시간	0.008 *** (7.85)	0.006 *** (7.08)	0.003 *** (3.42)	0.003 *** (2.86)	0.009 *** (8.55)	0.007 *** (6.44)
자영업	0.093 (1.27)	-0.110 ** (2.09)	0.335 *** (3.26)	0.406 *** (5.43)	0.240 *** (4.53)	0.109 ** (2.35)
대학 재학	-0.516 (11.63)	-0.096 *** (1.51)	-0.267 *** (4.21)	-0.058 (0.89)	-0.202 *** (3.45)	-0.029 (0.27)
성적 하위권						
성적 중위권	0.041 (0.68)	-0.053 (1.07)	0.088 (0.94)	0.019 (0.26)	0.037 (0.25)	0.043 (0.29)
성적 상위권	0.098 (1.57)	-0.002 (0.04)	0.129 (1.36)	0.092 (1.21)	-0.015 (0.10)	0.040 (0.27)
성적 최상위권	0.117 (1.46)	0.004 (0.07)	-0.000 (0.01)	0.030 (0.31)	0.080 (0.50)	0.068 (0.44)
등록금 학생 부담	-0.017 (0.51)	0.009 (0.35)	-0.148 *** (2.65)	-0.035 (0.79)	-0.049 (1.07)	-0.039 (0.89)
서울 사립대	0.167 *** (4.62)	0.145 *** (4.89)	0.097 * (1.69)	0.093 ** (2.04)	0.247 *** (4.65)	0.250 *** (4.89)
경기 사립대	0.113 *** (2.61)	0.066 ** (1.85)	0.128 *** (2.01)	0.051 (0.99)	0.064 (1.21)	0.090 * (1.74)
공립대	0.384 *** (4.50)	0.202 *** (2.89)	dropped	dropped	0.526 ** (2.81)	0.444 ** (2.46)
거점 국립대	0.043 (1.03)	-0.024 (0.70)	0.123 (1.40)	0.059 (0.84)	-0.040 (0.33)	0.074 (0.62)
주요 국립대	0.016 (0.36)	-0.021 (0.56)	0.331 (0.93)	0.366 (1.28)	0.079 (0.62)	-0.039 (0.31)
교육대	dropped	dropped	dropped	dropped		
특목대	0.011 (0.03)	-0.080 (0.28)	dropped	dropped	0.097 (0.51)	0.048 (0.26)
서울대 등	0.283 ** (2.18)	0.130 (1.23)	0.264 (1.22)	0.089 (0.52)	0.577 *** (2.40)	0.353 (1.51)
관측치	738	738	260	260	397	397
LR	511.67	308.58	88.77	109.03	238.45	164.15

주: (1) 괄호안은 t statistics, (2) 근속년수, 그 제곱, 결측치, 잠재경력, 상수는 포함되었으나 보고 않음.

제6절 소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졸자 개인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고임금의 획득은 전통적인 대학 인적자본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대학의 수준, 전공, 대학의 성적 등이 취업, 안정적 일자리 확보, 고임금(고생산성) 획득에 가장 일관적이면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수준과 전공계열 선택에 최대한 신중할 것, 대학과 전공이 선택된 후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교육에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성적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나타난다. 예체능계열이나 교육계열과 같이 창의성과 시험합격 등이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성적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각 전공에 맞는 취업 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선택하여 비실용적 학문성격을 극복하는 것, 또 사범대학 학생들이 임용고사 등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 인문계열 등에서는 해외연수 등 기타의 경험을 쌓은 것 등 전공계열에 따라 특별히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의 계열이 일자리 확보와 임금에 매우 중요하지만 대학 계열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는 고등학교 계열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등학교 선택과 계열 선택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이 중학교 때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탐색과 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탐색과 투자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교 성적에 의한 고등학교의 종류와 계열은 대학의 계열을 결정하고, 또한 대학의 종류(수준) 또한 결정한다는 점이다(〈부표 VI-1, VI-2〉 참조). 문제는 중학교 성적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학생의 가정배경이고, 이것이 고등학교의 계열과 종류를 결정할 뿐 아니라 대학의 종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솔직한 사회적 담론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사회계층별로 학력과 경력의 경로가 규

정되어 있다면 다양한 계층들이 충실한 인적자본 축적을 형성할 기회를 갖는 고등학교-대학, 고등학교-현장숙련, 고등학교-전문대학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부실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부실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그대로 둔 상태로 교육-노동시장 이행에 관점을 갖는 대안은 매우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단순한 대안은 첫째,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초기에 집중적인 진로상담의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계열과 대학수준을 적절히 결합하고 실용적 전공계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계열별 고등학교-직장,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으로 이어지는 충실하고 양질의 교육훈련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를 수요가 있는 부문의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의 기제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의 기제로 삼아야 한다. 기피하는 전공계열과 대학수준이 겹치는 부분이나 또는 고등학교 계열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시에 수요수도권 이외에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의 경우 실용 중심 계열과 특수목적형 학교들의 성과가 높은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계열별 특성에 따른 보조적 인적자본축적 기제를 활용한다. 인문계열의 복수전공, 임용고시를 위한 사범계열 학생들의 시험준비, 해외연수의 효과가 있는 전공의 해외연수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학교와 현장, 고등교육 기관과 현장 일자리의 연계체제의 완성을 통해 정보의 부족, 부재, 비대칭으로 생기는 정보의 누수현상을 줄인다. 이를 위해 취업지원기관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7장 결론

김안국

제1절 연구의 요약

본고는 최근 심각해지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청년 노동시장 문제를 고학력화에 대한 이론 정리와 실증 수급 분석을 통해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취업노력 실태와 그 성과를 분석하였고, 취업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대학의 우수사례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구체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의 현황과 이전 직장 사항, 향후의 전망 등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전공별, 특성별 청년들의 노동시장성과를 취업 여부와 임금수준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고학력화는 인적자본론, 신호기제이론,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인적자본론을 통해서 교육제도의 발달 등이 교육의 인적자본축적적 효율성을 증가시켰던 것,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안정적 사회의 지속이 미래 선호를 증가시켰던 것, 직업에서의 정년이 늘어났던 것 등이 고학력화의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신호기제이론으로는 대학간판을 유능함의 신호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으며, 기업은

이를 선별기제로 활용함을 보였다.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이론으로 현재의 가속적인 기술진보와 고학력화의 병존을 설명하였다.

청년층의 고용은 그 절대적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인구변화율과 경활률, 청년취업자 변화율로 그 요인을 살펴보면, 1999년에서 2005년 사이는 청년인구 감소가, 2006년부터는 청년경활률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다. 청년층에 대한 산업수요는 학력별로 보았을 때 중졸과 고졸은 감소하였으며, 전문대와 대졸 이상은 증가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산업수요는 중·장년층에 대한 수요보다 일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많았다. 특정산업에서의 대졸자 고용규모의 평균적 추세를 활용하여 대졸 청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면 2003년부터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이 나타나는데, 10% 정도가 하향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졸 청년의 취업애로층은 20%를 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에 맞는 취업이 아닌 경우가 43% 정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는, 구조적인 고학력화의 추세가 산업수요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짓게 한다.

대학생들의 약 1/4이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주로 취업에 불리한 계층(여성이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 사이의 불일치를 사교육시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출하는 연간 사교육비용은 전문대생이 92만 원, 4년제 대학생이 98만 원이었고, 월평균 1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교육비용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강좌, 어학당 등 비용, 어학연수에 들어가는 비중, 각종 시험경비 등이 조사되지 않았고 재학생만 조사한 것이어서, 사교육비는 상당히 하향편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내용은 주로 영어교육과 자격증 취득이었다. 대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직접적 목적이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대한 보충이 그 다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전공의 불일치 등이 취업사교육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 준다. 취업사교육과 여타의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취업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이 취업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전문대생들은 주당 평균 4.7시간, 4년제 대학생들은 주당 평균 6.4시간을 쓰고 있으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전문대생들은 자격증을, 4년제 대학생들은 영어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실제 직업경험인 인턴활동은 성공적인 취업에서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이 사교육에 덜 의존하면서 자신의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정책 당국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이 우수한 대학의 조건을 사례 분석한 결과, 우수한 취업센터의 조건으로는 먼저 대학 내 취업지원조직 위상의 제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취업지원 조직 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등이 추출되었다. 취업지원의 어려움으로는 공통적으로 전담인력의 문제, 학과교수들의 비협조, 복잡한 예산 사용절차,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취업지원 우수대학은 공통적으로 CEO의 적극적인 취업마인드가 있었으며, 전담자의 장기근속과 헌신, 그리고 학과교수의 적극적 참여, 교풍을 취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취업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대학은 진정성 있게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하며, 이제는 취업의 질을 따져야 하고, 학과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취업전담교수제를 확대하고 취업교과목을 확대하며, 취업지원조직에 대한 투자확대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대학은 외부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국가는 취업에 관한 일관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재정지원사업을 합리화하고, 국가적 차원

에서 청소년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졸 미취업자가 전문대학이나 폴리텍으로 진학을 하고 있다. 4년제 졸업생들은 간호학과, 보건, 유아교육과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지원하고 있다. 전문대 모집방법 중 대학졸업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거의 5,000명에 이르며, 이외에 일반모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문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수가 상당하다고 한다. 폴리텍의 기능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많아 2008년에는 2,532명, 2009년에는 2,686명, 2010년에는 2,85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는 입학 정원의 42%, 46%, 48%에 해당한다.

폴리텍이나 전문대 입학 전에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은 취업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63%나 되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유는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자격증 없음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그것이 폴리텍이나 전문대에 들어온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있었던 경우에도 일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낮았으며, 특히 개인의 발전성과 안정성에 불만이 많았다. 폴리텍이나 전문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취업 전망이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적성과 희망이 다음이었다. 폴리텍 이후 희망진로에 대해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 발전성과 안정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 정책대안으로서 대졸 미취업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전문대로의 유턴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학점인정의 확대 및 경제적 환경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폴리텍과 전문대 유턴자 모두 신입직원으로서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관행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위안을 위한 생활지도 등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전공선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실용적 전공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수도권보다는 지방 출신자들이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전문대의 경우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과거경험(입학나이, IMF 이후 입학, 지방출신, 이전의 대학경험)은 실용적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입학나이가 많을수록 공학과 자연계열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전의 대학경험이 있거나 IMF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교육과 의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전공의 노동시장성과는 대학의 범주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교육과 의학과 같은 전공계열은 대학의 범주(서열)의 의미가 상대적 낮고 여러 유형별 대학에서의 인적자본 축적 방식들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서울 소재 대학은 유의한 양의 성과를 갖기 때문에 서울 중심 진학 성향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대학의 수준, 전공, 대학의 성적 등이 취업, 안정적 일자리 확보, 고임금 획득에 가장 일관적이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중학교의 성적이 고등학교의 선택과 대학의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학교의 성적은 가정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중학교 시기부터의 진로상담 실시, 계열별 고등학교-직장, 고등학교-대학의 사회계층별 경력경로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경력경로를 위해 충실하고 양질의 교육훈련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제2절 시사점 및 정책대안

본고의 분석결과에 입각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대졸 청년층 고용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고학력화의 결과로 인한 공급과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증적으로 분석했을 때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중·장년층에 대비하여 적지 않아, 산업수요의 부족으로 청년고용의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공급과잉은 4년제 대졸 청년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본격화되어 2009년 현재 약 10%의 대졸 청년들은 하향취업을 하고

있고, 전공과 맞지 않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가 40%나 된다.

고학력화의 진행은 교육제도의 발달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적자본 축적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줄고 서비스업이 늘는 등 전반적으로 일에서의 정년이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의 정책은 이러한 고학력화에 맞추어 가는 경제정책, 즉 고학력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의 심리적 비용이 크지 않기에 현재 대학교육 이수자가 크게 늘어 왔으며, 이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심리비용의 제고에 의해서 제어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인적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제고되고, 대학생들의 심리적 비용이 커진다면, 개인들의 고등교육 선택도 줄어들 것이며, 전공을 살리는 취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의 과잉공급은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학력의 신호기제가 무력화 되게 하였다. 이에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학력 외의 여러 가지 신호를 구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소위 '스펙쌓기'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청년들은 어학 실력(인증)과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취업준비 사교육은 노동시장 이행에 그다지 유효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의 학력이 능력을 나타내는 적절한 신호가 되도록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스펙쌓기' 등의 여타 신호를 얻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신의 전공공부에 힘쓰게 함으로써 각기 전공에 따른 인적자본을 충분히 형성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노력은 노동시장 이행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준비노력이 이룰수록 그러한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대한 인식 및 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직업 및 취업진로와 관련되는 교과목을 신입생들에게 제

공하여 일찍부터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비효율적인 취업사교육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대학은 취업지원을 위해 진정성있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총장이나 학과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취업전담교수제를 확대하고 취업교과목과 취업지원조직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대학의 취업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취업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보다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취업이 대학에서 핵심적 문제라면, 여기에 맞게 대학과 교수평가의 기준 또한 변화시켜야 한다. 대학평가에서 취업과 관련된 요소들이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본고에서 나타나듯이 대학생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진로교육의 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진로교육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나 폴리텍으로 재입학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너무 많은 대학교육의 선택이 있었던 것과 함께, 대학에서의 교육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대나 폴리텍으로 재입학한 학생들이 상당한 만족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대학선택이 애초에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고등학교에서의 직업 관련 진로의 선택에 대한 교육을 정규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전공별, 수준별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을 때 노동시장 이행의 성공요인으로 전통적인 인적자본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 즉 대학의 수준, 전공, 대학의 성적 등이 취업, 안정적인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의 획득에 가장 일관적이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이 정상화되어 대학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전공별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취업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아울러 청년들의 대학교육의 선택을 줄일 수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대학의 수준과 전공은 고등학교 계열에서 많이 결정되며, 고등학교 계열은 중학교 때 결정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집중적인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학문을 통한 직업경로, 직접적인 직업경로 등의 설계를 중학교 단계에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직업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부실화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추려서 소수의 정예 졸업자를 배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의 마이스터고 실험이 어떻게 결과를 맺을 것인지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계열별 고등학교→직장 혹은 고등학교→대학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고등학교→대학→노동시장의 획일적인 이행구조를 타파하고, 보다 다양한 이행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문제는 대학선택과 졸업에 따른 대졸 청년의 공급과잉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결국 대학생들의 스펙쌓기 노력을 야기하게 되고, 대학의 취업지원노력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직업중심의 전문대나 폴리텍에 재입학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지만 대졸자의 노동시장성과는 결국 대학의 수준(대학으로 표현되는 인적자본의 수준)이나 전공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대졸 청년의 고용대책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린다. 단순한 수적 감소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심리적 비용을 높여서 고학력 선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현재처럼 대학의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해야 하며, 부실대학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인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시제와 함께 인증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러한 정보공시와 평가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퇴출과 함께 인수합병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합병된 캠퍼스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합병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영, 2010).

마지막으로, 대졸 청년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관계가 주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서 가치를 이전하여 렌트를 갖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발전에 원천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또한 좋을 수 없고, 중소기업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대졸 청년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늘어나는 고학력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져가는 렌트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보장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납품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자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막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졸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school-to-work for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by Ahn-Kook Kim, Han-Goo Ryoo, Sang-Geun Han, Young-Dae Lee,
Soo-Myoung Jang

Now the problems of employment for university graduates come from the oversupply of university students which were resulted in more schooling propensity in Korea. Propensity for more schooling is ongoing by the raising efficiency for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jobs longevity's enlargement. So the policies for university graduates employment should focus on the use of the supply of more schooling, and the industry changing policy adapt to the enlargement of the university education expansion. And in Korea there is not enough costs, especially psychological costs for the university education, so the policy on the raising the psychological costs are needed urgently, which will have to be the core of the reforming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f the psychological cost for the university education will be greater than these days, then the number of entering the university will be reduced and the problems come from the oversupply of university education will be disappeared.

The oversupply of university students is making the signaling effect of university degree dull. So the university students are trying to get some

special signal to represent themselves as special. That is the 'filing up spec'. But the effect of filing up spec is not working in graduates' achieving career development and job finding. For degrees to work efficiently in labor market, the education of university will be upgraded fully for it to become appropriate signal. This reforming on the university education will make the students not get some spec in vain but get good score in their majors, and eventually achieve good job and career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university students' efforts for being ready to get a job would have good results in their labor market outcomes. Korea's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vement Survey) data show us that the more efforts student make, the easier they get jobs, and the better jobs they would have. That results mean that the education to prepare for getting his or her job are needed. The universities should provide the class for jobs and job careers to the new entrants, let them build up the plan for job career and be ready for getting a job.

The university students used fully the assistances for getting a job prepared by universities. So the activities for getting job assistances by universities should be enlarged and systemized. This is the way to lessen the private education for the filing-up specs which are not efficient in labor market. Universities should go into the real problem for the getting job assistances, and the president and professors play active role for their student's future employment, and should enlarge the professors taking part in the job assistance and the classes for job career, and the investment for staff line for job assistances.

The policies about job assistances in the university have to be consistent. The employment of the graduates is the serious problem, so that the critical rule for the assessment on the university and the professors has to be changed to meet the problem. The employment achievement results has to be materialized among the assessment for the university. And the guideline for the executing government aid money should be changed greatly for the aid to be executed efficiently.

In Korea there are many graduates who reentered the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 like polytechnical universities or junior universities after graduate. This fact means that there is fundamental problem in Korea's university education. In other words, there was so much oversupply of university graduates, who did not have right skill to the industry and did not learn and achieve the skill adapt to the industries in their education in university. So there should be needed the policies to upgrade the university education in quality in order to provide the right skill to the students. The graduates who reentered into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 felt satisfaction in class and studying, so it must be strengthened to teach well job world and guide career choice in high schools.

The factors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work of university graduates are the level of the university, major, and grad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fundamental human capital. So, the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more, and the knowledge of major should be enriched fully to accumulate the human capital.

University department and major would be decided in high school

times, and high school department would be decided in middle school times, so that the effective career counseling should be concentrated in middle school years. Student should choose his or her life career among the academic career or job orientation career. Now in Korea, students who have bad grades go into the vocational high school usually, so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has been deteriorated in itself. We need to decrease the numbe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 and to focus the assistance into small number of good students.

In sum, the problem of transition to work of university graduates comes from the excess of supply which is results for students' overheated choosing of university education. The employment policy for university graduates should relate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especially to raise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o decrease the university student's number. Pulling up the level of quality of the university education means that raising up fully the psychological costs of higher education would be resulted in decreasing the choosing the university education. It is not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of university reform in market. It need for government to involve actively in the reform of university. Government should provide directly consulting to the universities with problems. The system of opening university data should enforced and validation assessment for university should be introduced right away. The data on university and assessment have to be related the government assistance into the university. The merger and acquisition should be leaded, while the campus of university also should be sold for profit and become assets.

At last for university graduates employment, the relationships between

firms should be focused. In Korea, large companies appropriate the added value which small subcontract firms produce, so that small firms are difficult to grow well enough. And small firms don't have good working conditions and good vision, so they don't create decent jobs for university graduates.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fair trade system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subcontract firms, which will make small firm grow and develop technology. The co-living relation of large firms and small subcontract firms will not only put out firms' competitiveness, but also make small firms create lots of decent jobs, so the problem of university graduates employment will be solved naturally.

[부록]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실태조사

ID	ID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준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자료는 앞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발전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은, 바쁘시겠지만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는 오직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며,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응답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정책결정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10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행 : (주)아이알씨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극동VIP빌딩 400호)

▶ 담당자 : 이은아 차장 (T)02-6279-1905

▶ 회신처 : gghbi@irc.ne.kr (F)0505-909-8168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 명		소 속 대 학 명	LIST
	휴대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소	SQ4

지역분류번호	조사구 번호	조 사 일	면접원 이름	※ 검토자1	※ 검토자2
		월 일	LIST		

※ 표시항목은 (주)아이알씨에서 기입하는 란입니다.

Quota check	<p>SQ1. 귀하의 몇 학년이십니까? SQ1</p> <p>1. 1학년 ➔ 조사 중단!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p> <p>SQ2. 귀하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SQ2</p> <p>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교육계열 4. 공학계열 5. 자연계열 6. 의약계열 7. 예체능계열 8. 기타()</p> <p>SQ3. 귀하의 전공 학과명은 무엇입니까? SQ3</p>
--------------------	---

SQ5 학제

I 다음은 대학졸업 이후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A1

① 취업 ☞ 1-1번으로	② 창업 ☞ 2번으로
③ 가업계승 ☞ 2번으로	④ 편입 ☞ 2번으로
⑤ 대학원진학 ☞ 2번으로	⑥ 해외 유학 ☞ 2번으로
⑦ 가사 ☞ 2번으로	⑧ 기타() ☞ 2번으로

1_1.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 취업할 계획입니까? A1_1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법인 회사 포함)	③ 외국기업
②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포함)	⑤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
④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⑦ 어디든 상관없다
⑥ 해외취업	

1_2. 취업을 한다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A1_2

① 관리직
②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③ 금융·보험 관련직
- ④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 ⑤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⑥ 보건·의료 관련직
- ⑦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⑧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⑨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⑩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⑪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⑫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 ⑬ 음식 서비스 관련직
- ⑭ 건설 관련직
- ⑮ 기계 관련직
- ⑯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 ⑰ 화학 관련직
- ⑱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⑲ 전기·전자 관련직
- ⑳ 정보통신 관련직
- ㉑ 식품가공 관련직
- ㉒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㉓ 농림어업 관련직
- ㉔ 군인

II

다음은 대학입학 이후 지난 1년 동안 학교수업 이외에 받은 사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교육**은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학교 밖에서 수강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편입 목적의 사교육은 포함되지만, 해외 연수, 대입준비 목적의 사교육은 제외합니다.

2. **지난 1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A2**

- ① 예 3번으로 ② 아니오 8번으로

3.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몇 개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총** **개**

4. **지난 1년 동안의 사교육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제외)**

총 만원

5. **지난 1년 동안 받은 사교육에 대하여 종류별로 응답해 주십시오.(만일 같은 종류의 사교육을 여러 번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주십시오.)**

사교육 종류	1년간 비용	기간 및 시간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가능)
영어 A5_1	A5_11만원	A5_A12주, 주당A5_B1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13
제2외국어 A5_2	A5_21만원	A5_A22주, 주당A5_B2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23
전공교과 A5_3	A5_31만원	A5_A32주, 주당A5_B3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33
일반상식 A5_4	A5_41만원	A5_A42주, 주당A5_B4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43
컴퓨터활용일반 A5_5	A5_51만원	A5_A52주, 주당A5_B5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53

사교육 종류	1년간 비용	기간 및 시간	사교육 유형(복수응답 가능)
공무원 시험 A5_6	A5_61만원	A5_A62주, 주당A5_B6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63
자격증 취득 A5_7	A5_71만원	A5_A72주, 주당A5_B7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73
대학편입 A5_8	A5_81만원	A5_A82주, 주당A5_B8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83
기타 A5_9 (A5_OTH)	A5_91만원	A5_A92주, 주당A5_B92시간	①학원 ②학교내 강좌 ③학원 ④개인그룹교습 ⑤인터넷통신교습 A5_93

6. 사교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합니까? A6

- ① 본인
- ② 본인이 주로 하고 일부는 부모(가족)
- ③ 부모(가족)가 주로 하고 일부는 본인
- ④ 부모(가족)
- ⑤ 기타

7. 사교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A7_1~6

- ① 취업 및 창업
- ② 편입
- ③ 대학원 진학
- ④ 유학
- ⑤ 전공 보충
- ⑥ 취미 교양
- ⑦ 기타()

(취업 및 창업 사교육 받으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7-1. 귀하께서 받으신 취업 및 창업 관련 사교육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A7A

- ① 매우 불만
- ② 불만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Ⅲ 다음은 취업(창업)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하여, 사교육 이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A8_1~A8_6

- ① 무료 취업정보사이트 검색 ② 유료 취업정보사이트 검색
- ③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④ 면접 훈련
- ⑤ 직업적성 및 흥미 검사 ⑥ 취업박람회 참여
- ⑦ 기타() ⑧ 취업이나 창업 계획이 없다 ➡ 12번으로

9. 자신의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준비 정도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A9

- ① 매우 부족 ② 부족 ③ 보통
- ④ 충분 ⑤ 매우 충분

10. 지난 1년 동안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취업준비 유형	횟수	총비용	취업준비 유형	횟수	총비용
영어시험	A10_11회	A10_12만원	모의면접 (취업컨설팅)	A10_51회	A10_52만원
제2외국어 시험	A10_21회	A10_22만원	취업정보 사이트가입	A10_61회	A10_62만원
자격증 취득시험 (국가자격, 민간자격 포함)	A10_31회	A10_32만원	기타(A10_OTH)	A10_71회	A10_72만원
인성적성검사 (기업모의시험)	A10_41회	A10_42만원			

11. 지난 1년 동안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수업과 학교공부를 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평균 A11 시간

**12. 취업이나 창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개만 골라 주십시오. A12_1, A12_2**

- ① 학교성적 ② 영어실력(TOIEC 등)
- ③ 관련분야 자격증
- ④ 인턴 경험 ⑤ 외모
- ⑥ 인간관계 ⑦ 기타()

IV 다음은 학교수업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학교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에 학교공부를 어느 정도 합니까? 과제작성 시간까지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A13** 시간

14.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과외, 인턴 등 포함)를 한 적이 있습니까?** **A14**

- ① 하고 있다 ☞14-1번으로 ② 했으나 지금은 없다 ☞14-1번으로
- ③ 없다 ☞15번으로

14-1. **학기중에 아르바이트는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주당 **A14_1** 시간

V 다음은 해외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대학입학 이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단순한 해외여행은 제외합니다.** **A15**

(교환학생, 봉사, 선교활동은 포함됨)

- ① 있다 ☞16번으로 ② 없다 ☞20번으로

16. **어느 지역을 다녀왔습니까?** **A16_1 ~ A16_3**

- ① 북미주 ② 유럽 ③ 일본
- ④ 중국 ⑤ 동남아 ⑥ 호주·뉴질랜드
- ⑦ 기타()

17.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17_1**개월 **A17_2**주 **A17**(주로 환산)

18. **연수비용은 모두 어느 정도 들었고, 가족과 본인이 부담한 것은 얼마입니까?**

총 비용 **A18_1** 만원 중 자비(가족과 본인) 부담 **A18_2** 만원

19. **연수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A19**

- ① 어학연수 ② 전공 직무 연수
- ③ 현장실습 인턴십 ④ 봉사활동 및 선교
- ⑤ 교환학생 ⑥ 기타()

V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성별은? **A20**

- ① 남자 ⇨20-1번으로 ② 여자 ⇨21번으로

20-1. 군필 여부는? **A20_1**

- ① 군필 ② 미필 또는 면제

21. 출생년도는? **A21** 년도

22.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다른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A22

- ① 전문대학 경험 ② 4년제 대학 경험 ③ 없다

23.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까? **A23**

- ① 부전공 ② 복수(이중)전공 ③ 없다

24. 어디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A24**

- ① 자택 ② 하숙이나 자취 ③ 친척집 ④ 기타

25.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 : **A25_1** 어머니 : **A25_2**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교 ⑥ 대학원

26.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A26** 만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실태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폴리텍 대학생 중 전문대학 졸업생이나 4년제 대학 중퇴자나 대졸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입학과정과 폴리텍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진 자료는 앞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발전 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폴리텍 대학생 여러분들은, 바쁘시겠지만 각 물음에 대하여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는 오직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며,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응답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정책결정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10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uota check	<p>SQ1. 귀하의 소속대학교명을 적어주십시오. () 폴리텍 대학교</p> <p>SQ2. 귀하의 현상태는 어느 편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학사학위과정(다기능과정)1학년 2. 산업학사학위과정(다기능과정)2학년 3. 직업능력개발과정(기능사 1년) 4. 직업능력개발과정(기능사 6개월) <p>SQ3. 귀하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과</p>
Quota check	<p>SQ4. 폴리텍 대학 입학 이전에 졸업하거나 자퇴한 대학은 무엇입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졸업 이상/()전공 2. 4년제 대학 ()학년 중퇴/()전공 3. 전문대학 졸업/() 전공 4. 전문대학 () 학년 중퇴/()전공

II. 다음은 전문대학/대학 졸업 후 폴리텍 대학 입학 이전에 취업(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5. 전문대학/대학 졸업 후 폴리텍 입학 이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 : 단, 교내 아르바이트는 제외)를 총 몇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_____ 개

6. 가장 대표적인 직업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일자리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일자리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말합니다.**

- ①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한다
- ②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과외,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 ③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7. 그 일자리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 ① 공개채용(취직시험)
- ② 소개나 추천
- ③ 스카우트
- ④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 ⑤ 기타

8. 언제부터 근무하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9.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외국

10. 그 직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예 : 휴대폰 제조, LCD TV 제조, 편의점, 의류 판매 등) _____
11. 현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예 : 휴대폰 부품 조립, LCD TV 제품 검사, 계산원, 의류 판매 등) _____
12. 그 직장에서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입니까?(예 : 생산부 종업원, 총무부 사원, 사무 보조원, 미용보조원 등) _____

13. 일자리 형태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임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 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상용직
- ② 임시직
- ③ 일용직

13-1.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직을 원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 ②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원해서
- ③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서
- ④ 기타

14. 근무형태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15. 그 직장(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 그 직장이 정년제인 경우는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15-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16번 문항으로

15-1.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15-2.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 ① 보통 다시 계약하게 된다
- ②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 ③ 더 이상 재계약되지 않는다
- ④ 회사 사정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유동적이다

16. 근로시간의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시간제
- ② 전일제

▶ 시간제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정규근무시간 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17. 그 직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②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포함)
- ③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 ④ 외국기업
- ⑤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
- ⑥ 기타

17-1. 그 직장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 포함)

- ① 1~4명
- ② 5~9명
- ③ 10~29명
- ④ 30~49명
- ⑤ 50~69명
- ⑥ 70~99명
- ⑦ 100~299명
- ⑧ 300~499명
- ⑨ 500~999명
- ⑩ 1,000명 이상

18. 그 직장은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1)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교원만 해당)	①	②
2) 국민건강보험	①	②
3) 고용보험	①	②
4) 산재보험	①	②

19.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평균 _____ 일

20.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총 _____ 시간

21. 일주일 총 정규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총(정규) _____ 시간

22. 월 평균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및 특별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 월평균 임금·초과근로수당·특별급여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말합니다.

1) 월평균 임금(초과근로수당 및 특별급여 제외) 월평균 _____ 만원
 2)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월평균 _____ 만원
 3) 월평균 특별급여(상여금 등) 월평균 _____ 만원

23. 다음과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항 목	예	아니오
1) 퇴직금	①	②
2) 상여금	①	②
3) 초과근로수당	①	②
4) 유급휴가	①	②

24.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전공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0. 그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의 발전 전망이 없어서
- ②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③ 보수가 적어서
- ④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 ⑤ 동료 및 상관과의 불화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고용상태가 불안해서
- ⑧ 근무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 ⑨ 출퇴근이 불편해서
- ⑩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 ⑪ 기타

III 다음은 폴리텍 입학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재학 중인 학교에 언제 입학하였습니까?

32. 어떤 전형방법으로 입학하였습니까?

- ① 일반전형
- ② 특별전형
- ③ 독자전형
- ④ 정원 외 입학

33. 수시입학하였습니까, 정시입학하였습니까?

- ① 수시입학
- ② 정시입학

34.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1) 1순위 : _____ 2) 2순위 : _____

- | | |
|--------------|---------------|
| ① 본인 | ② 부모님(혹은 보호자) |
| ③ 학교선생님 | ④ 친인척 |
| ⑤ 학원(과외) 선생님 | ⑥ 선배 |
| ⑦ 친구 | ⑧ 기타 |

35.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인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 1순위 : _____ 2) 2순위 : _____

- | | |
|------------------|--------------|
| ① 대학의 사회적 평판 | ② 본인의 적성과 희망 |
| ③ 성적 | ④ 취업전망 |
| ⑤ 대학 측의 홍보 | ⑥ 가정형편 |
| ⑦ 지리적 여건(통학 편리성) | ⑧ 장학금 혜택 |
| ⑨ 기타 | |

36.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만족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7. 대학과 학과(계열, 학부, 전공)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까?

- ① 대학을 먼저 선택한 후 전공을 선택
- ② 전공을 먼저 선택한 후 대학을 선택
- ③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려
- ④ 기타

38. 학과(계열, 학부, 전공)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 1순위 : _____ 2) 2순위 : _____

- | | |
|--------------|---------------|
| ① 본인 | ② 부모님(혹은 보호자) |
| ③ 학교선생님 | ④ 친인척 |
| ⑤ 학원(과외) 선생님 | ⑥ 선배 |
| ⑦ 친구 | ⑧ 기타 |

39. 학과(계열, 학부, 전공)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인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 1순위 : _____ 2) 2순위 : _____

- | | |
|-----------------|--------------|
| ① 전공에 대한 사회적 평판 | ② 본인의 적성과 희망 |
| ③ 성적 | ④ 취업전망 |
| ⑤ 대학 측의 홍보 | ⑥ 가정형편 |
| ⑦ 원하는 직업과의 관련성 | ⑧ 기타 |

40. 자신이 선택한 학과(계열, 학부, 전공)에 만족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1. 현재 재학 중인 학과(전공)에 만족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2. 평소 수업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출석을 성실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습을 충실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습을 충실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과제를 성실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의시간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대학의 시설과 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강의 및 실습시설에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개인이나 그룹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서관, 강의실 등)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도서관에는 공부하는데 참고할 책과 자료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컴퓨터 사용 환경(인터넷 등)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4.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학교는 교과목 선택에 대하여 교수님이 적절히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학교에서는 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에서 기초학습능력(영어·수학 등)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강의 및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수한 학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강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의내용의 수준은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수(강사)는 강의에 열정을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하고 만족스럽게 답변했다	①	②	③	④	⑤
5) 평가방식과 결과는 적절하고 공정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시험 및 과제가 강의와 일관성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6. 폴리티에서 휴학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37-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8번 문항으로

46-1. 휴학한 학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2008학년도 1학기 ② 2008학년도 2학기
 ③ 2009학년도 1학기 ④ 2009학년도 2학기

46-2. 휴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학연수 및 해외여행 ② 편입학 및 재수 준비
 ③ 자격증 및 고시 준비 ④ 대학원 및 유학 준비
 ⑤ 경제적인 이유(등록금, 생활비 마련 등) ⑥ 취업 및 취업 준비
 ⑦ 군입대 ⑧ 건강상의 이유
 ⑨ 심리적·정신적 재충전 ⑩ 학습부진
 ⑪ 결혼(임신·출산·육아) ⑫ 기타

47. 편입이나 전과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같은 대학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할 것이다
 ② 졸업 이전에 다른 학교로 편입할 것이다
 ③ 졸업 후에 학사 편입할 것이다
 ④ 전과나 편입 계획이 없다

54-1. 학기중에 아르바이트는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주당 ()시간

V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55. 성별은? ① 남자 ⇨55-1번으로 ② 여자 ⇨56번으로

55-1. 군필 여부는? ① 군필 ② 미필 또는 면제

56. 출생년도는? ()년도

57. 학년은? ()학년

58.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① 초등학교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④ 전문대학

⑤ 대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⑥ 대학원

⑦ 안계심

⑦ 안계심

59.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만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표 III-1> 사교육비 부담주체(전문대학)

구분		사교육비 부담주체(전문대학)					전체
		본인	본인이 주로	부모가 주로	부모	기타	
성별	남자	20 33.9%	3 5.1%	1 1.7%	34 57.6%	1 1.7%	59 100.0%
	여자	14 9.9%	8 5.7%	16 11.3%	103 73.0%	0 .0%	141 100.0%
지역	수도권	13 11.9%	5 4.6%	10 9.2%	80 73.4%	1 .9%	109 100.0%
	비수도권	21 23.1%	6 6.6%	7 7.7%	57 62.6%	0 .0%	91 100.0%
전공계열	인문계열	3 15.0%	1 5.0%	3 15.0%	13 65.0%	0 .0%	20 100.0%
	사회계열	4 11.1%	1 2.8%	4 11.1%	27 75.0%	0 .0%	36 100.0%
	교육계열	1 5.6%	1 5.6%	2 11.1%	14 77.8%	0 .0%	18 100.0%
	공학계열	10 34.5%	0 .0%	1 3.4%	18 62.1%	0 .0%	29 100.0%
	자연계열	5 21.7%	3 13.0%	1 4.3%	14 60.9%	0 .0%	23 100.0%
	의학계열	4 21.1%	2 10.5%	1 5.3%	12 63.2%	0 .0%	19 100.0%
	예체능 계열	7 12.7%	3 5.5%	5 9.1%	39 70.9%	1 1.8%	55 100.0%
	전체	34 17.0%	11 5.5%	17 8.5%	137 68.5%	1 .5%	200 100.0%

<부표 III-2> 사교육비 부담주체(4년제 대학)

구분		사교육비 부담주체(4년제 대학)					전체
		본인	본인이 주로	부모가 주로	부모	기타	
성별	남자	35 14.8%	30 12.7%	39 16.5%	132 55.7%	1 0.4%	237 100.0%
	여자	39 12.3%	26 8.2%	51 16.0%	199 62.6%	3 0.9%	318 100.0%
지역	수도권	37 13.6%	24 8.8%	43 15.8%	167 61.4%	1 0.4%	272 100.0%
	비수도권	37 13.1%	32 11.3%	47 16.6%	164 58.0%	3 1.1%	283 100.0%
전공계열	인문계열	13 16.9%	10 13.0%	12 15.6%	41 53.2%	1 1.3%	77 100.0%
	사회계열	26 13.7%	15 7.9%	37 19.5%	112 58.9%	0 0.0%	190 100.0%
	교육계열	6 10.5%	4 7.0%	11 19.3%	34 59.6%	2 3.5%	57 100.0%
	공학계열	10 13.3%	9 12.0%	11 14.7%	45 60.0%	0 0.0%	75 100.0%
	자연계열	8 12.3%	9 13.8%	9 13.8%	39 60.0%	0 0.0%	65 100.0%
	의학계열	2 6.7%	1 3.3%	6 20.0%	21 70.0%	0 0.0%	30 100.0%
	예체능 계열	9 14.8%	8 13.1%	4 6.6%	39 63.9%	1 1.6%	61 100.0%
	전체	74 13.3%	56 10.1%	90 16.2%	331 59.6%	4 0.7%	555 100.0%

<부표 III-3> 사교육의 주된 목적(전문대학)

전체	취업·창업	편입	대학원 진학	유학	전공보충	취미교양	기타
남자	9.8	2.7	0.5	0.7	6.6	1.7	0.7
여자	16.6	4.4	1.5	1.5	10.0	2.4	0.8
수도권	17.4	6.2	1.0	2.2	10.4	2.5	1.2
비수도권	11.4	2.0	1.2	.5	7.4	1.8	0.5
인문계열	16.7	14.3	2.4	9.5	21.4	4.8	0.0
사회계열	18.7	5.3	2.0	0.0	6.0	2.0	0.7
교육계열	16.3	3.1	0.0	0.0	6.1	0.0	1.0
공학계열	8.6	1.8	0.0	0.5	6.8	2.7	0.5
자연계열	20.2	2.4	0.0	2.4	14.3	2.4	2.4
의약계열	9.6	0.5	1.6	0.5	4.8	1.1	0.5
예체능	15.3	6.0	1.9	1.9	12.0	2.8	0.9
합계	13.8	3.7	1.1	1.2	8.6	2.1	0.8

<부표 III-4> 사교육의 주된 목적(4년제 대학)

전체	취업·창업	편입	대학원 진학	유학	전공보충	취미교양	기타
남자	17.8	1.7	2.2	2.1	4.1	1.9	1.0
여자	23.8	1.9	4.1	4.1	11.7	5.6	0.4
수도권	26.6	2.6	5.0	4.8	6.9	4.6	1.0
비수도권	17.1	1.3	2.0	2.0	8.3	3.2	0.5
인문계열	21.0	2.1	2.4	2.4	8.4	3.1	0.3
사회계열	24.8	1.8	1.7	4.0	7.6	4.5	0.7
교육계열	20.0	2.8	3.3	2.2	16.7	6.1	0.6
공학계열	16.9	0.9	2.3	2.3	5.5	2.6	0.9
자연계열	21.8	2.8	5.1	2.8	5.1	2.3	0.0
의약계열	16.6	1.3	1.3	2.0	3.3	2.0	1.3
예체능	18.1	1.3	8.2	4.3	9.5	4.3	1.3
합계	20.8	1.8	3.1	3.1	7.8	3.7	0.7

<부표 III-5> 취업준비활동의 참여유형(전문대학)

전체	무료취업 사이트	유료취업 사이트	학교취업 서비스	면접훈련	직업 적성검사	취업 박람회	기타
남자	36.8	3.4	33.8	12.5	17.2	9.3	4.2
여자	38.5	4.6	29.7	12.7	19.9	9.0	5.9
수도권	30.8	3.7	22.4	11.4	19.9	6.5	7.0
비수도권	42.5	4.3	37.5	13.4	18.1	10.9	4.0
인문계열	21.4	2.4	23.8	16.7	16.7	2.4	2.4
사회계열	44.7	3.3	31.3	13.3	18.7	9.3	4.7
교육계열	39.8	8.2	31.6	6.1	17.3	7.1	7.1
공학계열	36.5	5.4	32.9	12.6	17.6	12.6	2.3
자연계열	38.1	1.2	40.5	13.1	19.0	10.7	3.6
의약계열	40.4	4.8	36.2	20.2	20.7	7.4	5.9
예체능	34.3	2.3	23.6	7.4	19.4	8.3	8.3
합계	37.8	4.1	31.4	12.6	18.8	9.1	5.2

<부표 III-6> 취업준비활동의 참여유형(4년제 대학)

전체	무료취업 사이트	유료취업 사이트	학교취업 서비스	면접훈련	직업 적성검사	취업 박람회	기타
남자	38.0	3.7	24.5	9.3	17.1	11.2	7.2
여자	39.7	2.6	25.1	6.3	26.6	8.9	6.6
수도권	37.2	3.4	19.8	7.7	19.8	9.8	9.0
비수도권	39.8	3.0	27.9	7.9	22.9	10.3	5.6
인문계열	39.5	2.8	23.1	7.3	22.7	9.8	6.3
사회계열	42.4	3.0	25.7	8.1	22.5	10.9	6.9
교육계열	31.1	2.8	27.2	3.9	26.1	5.0	8.9
공학계열	41.1	3.2	28.6	9.0	14.0	9.0	5.5
자연계열	37.0	1.4	29.6	7.9	26.4	12.0	4.6
의약계열	43.0	4.0	23.8	9.9	19.9	5.3	8.6
예체능	30.2	5.2	13.4	7.8	23.7	15.1	9.1
합계	38.8	3.1	24.8	7.8	21.8	10.1	6.9

<부표 Ⅲ-7> 취업의 성공요인(전문대학)

전체	학교성적	영어실력	자격증	인턴경험	외모	인간관계	기타
	40.7	46.8	60.5	14.2	5.4	25.0	0.7
남자	44.4	46.6	59.5	17.1	10.3	18.2	0.2
여자	35.6	50.0	58.7	20.1	7.7	20.4	0.5
수도권	47.8	44.5	60.7	13.0	8.7	21.4	0.3
비수도권	33.3	57.1	59.5	21.4	9.5	16.7	2.4
인문계열	37.3	61.3	60.0	16.0	4.7	16.7	0.0
사회계열	36.7	40.8	68.4	16.3	10.2	24.5	0.0
교육계열	37.4	46.4	69.8	14.4	5.0	20.3	1.4
공학계열	36.9	35.7	72.6	22.6	7.1	20.2	0.0
자연계열	65.4	50.5	48.4	6.9	11.2	12.8	0.0
의약계열	39.8	38.4	50.9	21.3	11.1	31.5	0.0
예체능	42.9	46.7	59.9	15.9	8.3	21.0	0.4

<부표 Ⅲ-8> 취업의 성공요인(4년제 대학)

전체	학교성적	영어실력	자격증	인턴경험	외모	인간관계	기타
	34.5	67.0	48.7	17.7	4.9	18.9	2.0
남자	30.7	68.3	53.5	23.3	4.9	13.0	1.2
여자	27.9	68.5	45.7	25.8	4.6	18.0	1.3
수도권	35.5	67.0	54.4	17.1	5.1	14.8	1.9
비수도권	28.0	68.9	55.6	22.7	4.5	15.0	0.7
인문계열	26.8	69.5	50.8	24.2	3.9	18.8	1.7
사회계열	47.8	50.0	62.2	12.8	3.3	14.4	3.9
교육계열	36.4	73.5	48.7	19.2	3.2	11.7	0.9
공학계열	32.9	67.1	56.5	20.4	5.1	11.1	1.4
자연계열	44.4	74.2	39.1	11.9	9.9	17.2	1.3
의약계열	28.0	62.5	43.5	21.6	8.2	21.6	2.6
예체능	32.6	67.6	51.0	20.5	4.9	16.0	1.6

<부표 III-9> 첫 직장 경험 여부 및 취업 여부

(단위: 명, %)

구분		현재 취업자		현재 미취업자		전체
		첫 직장	첫직장 아님	직장경험 있음	직장경험 없음	
성 별	여성	3,744 (54.2)	1,419 (20.5)	860 (12.4)	889 (12.9)	6,912 (46.4)
	남성	4,739 (59.5)	1,444 (18.1)	686 (8.6)	1,100 (13.8)	7,969 (53.6)
학 교	전문대	2,244 (54.6)	1,020 (24.8)	528 (12.8)	318 (7.7)	4,110 (27.6)
	4년제 대학	6,239 (57.9)	1,843 (17.1)	1,018 (9.5)	1,671 (15.5)	10,771 (72.4)
전 공 계 열	인문/사회	2,803 (56.6)	960 (19.4)	513 (10.4)	672 (13.6)	4,948 (33.3)
	자연/공학	3,624 (58.7)	1,020 (16.5)	561 (9.1)	974 (15.8)	6,179 (41.5)
	교육/의학	1,112 (59.8)	373 (20.0)	196 (10.5)	180 (9.7)	1,861 (12.5)
	예체능	944 (49.9)	510 (26.9)	276 (14.6)	163 (8.6)	1,893 (12.7)
지 역	서울	1,945 (60.0)	557 (17.2)	244 (7.5)	498 (15.4)	3,244 (21.8)
	수도권	1,898 (57.0)	681 (20.4)	384 (11.5)	368 (11.0)	3,331 (22.4)
	지방	4,640 (55.9)	1,625 (19.6)	918 (11.1)	1,123 (13.5)	8,306 (55.8)
전체		8,483 (57.0)	2,863 (19.2)	1,546 (10.4)	1,989 (13.4)	14,881 (100.0)

<부표 III-10> 졸업자의 취업노력

(단위: 명, %)

구분		학교유형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총합	
대학평점	1 점 대	130	(3.2)	138	(1.3)	268	
	2 점 대	124	(3.0)	363	(3.4)	487	
	3 점 대	2,277	(55.4)	8,067	(74.9)	10,344	
	4 점 대	1,579	(38.4)	2,203	(20.5)	3,782	
영어성적	토익 700점 이상	88	(2.2)	2,899	(27.3)	2,987	
	토익 700점 미만	249	(6.1)	1,235	(11.6)	1,484	
	없 음	3,740	(91.7)	6,501	(61.1)	10,241	
취업사교육	있 음	663	(16.1)	3,405	(31.6)	4,068	
	없 음	3,447	(83.9)	7,366	(68.4)	10,813	
어학연수 경험	있 음	210	(5.1)	2,216	(20.6)	2,426	
	없 음	3,900	(94.9)	8,555	(79.4)	12,455	
자격증 개수	없 음	1,100	(26.8)	3,464	(32.2)	4,564	
	1 ~ 5 개	2,859	(69.6)	7,055	(65.5)	9,914	
	5 ~ 10 개	139	(3.4)	234	(2.2)	373	
	10 개 이상	12	(0.3)	16	(0.2)	28	
직훈 수강 여부	졸업 전	248	(6.0)	650	(6.0)	898	
	졸업 후	266	(6.5)	764	(7.1)	1,030	
	없 음	3,596	(87.5)	9,357	(86.9)	12,953	
재학 중 일경험	있 음	976	(23.8)	3,241	(30.1)	4,217	
	없 음	3,134	(76.3)	7,530	(69.9)	10,664	
취업준비	4학년 이전부터	329	(8.0)	776	(7.2)	1,105	
	4 학 년 부 터	1,498	(36.5)	4,138	(38.4)	5,636	
	졸업 후	416	(10.1)	1,100	(10.2)	1,516	
	없 음	1,867	(45.4)	4,757	(44.2)	6,624	
이력서 제출횟수	지원 경험 없음	102	(4.1)	241	(3.7)	343	
	1 ~ 25 번 이하	2,258	(90.0)	5,246	(79.6)	7,504	
	26 ~ 50 번 이하	112	(4.5)	821	(12.5)	933	
	51 ~ 75 번 이하	11	(0.4)	71	(1.1)	82	
	75 번 ~	25	(1.0)	213	(3.2)	238	
최종 면접 횟수	경험 없음	185	(7.4)	491	(7.5)	676	
	1 ~ 25 번 이하	2,299	(91.8)	6,024	(91.5)	8,323	
	26 ~ 50 번 이하	17	(0.7)	58	(0.9)	75	
	51 ~ 75 번 이하	1	(0.0)	5	(0.1)	6	
	75 번 초과	2	(0.1)	4	(0.1)	6	

<부표 III-11> 취업준비노력에 따른 미취업기간의 탈출효과(코스비레위험모형)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성 별	남성	0.022	0.746	-0.015	0.722
나 이		-0.021	0.209	0.015	0.310
대학지역	서울	0.186**	0.011	0.079**	0.024
	수도권	0.090*	0.078	0.146***	0.000
대학 평점		0.081	0.139	0.083**	0.02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165**	0.018	-0.061	0.206
	자연/공학계열	0.028	0.673	-0.026	0.586
	교육/의학계열	0.173**	0.032	-0.035	0.568
취업사교육	있음	-0.125**	0.031	-0.056**	0.046
어학연수	있음	-0.029	0.766	0.089**	0.008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0.250	0.116	-0.295***	0.000
	TOEIC 700점 미만	-0.321***	0.001	-0.252***	0.000
자격증수		0.001	0.935	0.005	0.530
직업훈련	졸업 전 직훈경험	0.110	0.207	0.196***	0.000
	졸업 후 직훈경험	-0.201**	0.015	0.019	0.687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준비	-0.520***	0.000	-0.452***	0.000
	4학년부터	0.307***	0.000	0.499***	0.000
	4학년 이전부터	0.301***	0.001	0.502***	0.000
직장경험	있음	0.005	0.928	0.034	0.253
취업원서 횟수		0.000	0.819	-0.003***	0.000
면접횟수		-0.006	0.380	0.008**	0.002
혼인상태	기혼	-0.078	0.494	0.270***	0.000
부모님동거	동거	-0.107**	0.044	-0.074**	0.014
아버지학력		-0.025	0.419	-0.040**	0.014
어머니학력		0.002	0.958	0.023	0.234
현재가구소득		0.046**	0.001	0.047***	0.000
<i>N</i>		2,264		6,205	
<i>-2LL</i>		29,974.4		91,052.3	
χ^2		258.6		926.3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 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부표 III-12>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로지스틱회귀분석)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상 수	1.198	0.213	0.268	0.755
성 별				
남성	-0.136	0.350	0.221**	0.013
연 령	-0.048	0.189	-0.035	0.264
대학지역				
서울	-0.161	0.297	0.166**	0.029
수도권	-0.059	0.581	0.144*	0.073
대학 평점	0.089	0.427	0.164**	0.03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350**	0.016	0.237**	0.017
자연/공학계열	0.305**	0.024	0.477***	0.000
교육/의학계열	0.268	0.114	0.163	0.202
취업사교육				
있음	-0.008	0.950	-0.022	0.718
어학연수				
있음	0.000	0.999	0.079	0.281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0.578	0.131	0.120*	0.096
TOEIC 700점 미만	-0.112	0.557	-0.092	0.302
자격증수	-0.034	0.188	0.018	0.299
직업훈련				
졸업 전 직훈경험	0.028	0.880	0.333**	0.005
졸업 후 직훈경험	-0.252	0.122	0.094	0.353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준비	0.405**	0.020	0.071	0.528
4학년부터	0.415**	0.005	0.192*	0.051
4학년 이전부터	0.480**	0.011	0.422**	0.001
직장경험				
있음	0.053	0.624	0.054	0.401
취업원서 횟수	0.001	0.734	-0.001	0.478
면접 횟수	-0.013	0.307	-0.001	0.897
혼인상태				
기혼	0.172	0.483	0.236*	0.094
부모님동거				
동거	-0.044	0.699	-0.155**	0.018
아버지학력	-0.164**	0.010	-0.011	0.744
어머니학력	0.146*	0.078	0.065	0.114
현재가구소득	0.025	0.403	0.049**	0.005
<i>N</i>	2,264		6,205	
<i>-2LL</i>	2,779.466		7,278.391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 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부표 III-13> 관찮은 일자리로의 첫 취업에 영향을 미친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로지스틱회귀분석)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상 수	-5.500***	0.000	-8.254***	0.000
성 별				
남성	0.487**	0.033	0.725***	0.000
연 령	0.022	0.701	0.069*	0.068
대학지역				
서울	0.265	0.267	0.854***	0.000
수도권	0.018	0.915	0.324***	0.000
대학평점	0.265	0.145	0.471***	0.000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772**	0.005	1.308***	0.000
자연/공학계열	0.591**	0.025	1.784***	0.000
교육/의학계열	1.070***	0.000	1.117***	0.000
취업사교육				
있음	0.252	0.162	0.032	0.641
어학연수				
있음	0.002	0.995	0.318***	0.000
TOEIC 700점 이상	0.583	0.148	0.581***	0.000
TOEIC 700점 미만	0.340	0.179	-0.035	0.753
자격증 개수	-0.019	0.642	0.012	0.557
직업훈련				
졸업 전 직훈경험	0.107	0.695	0.534***	0.000
졸업 후 직훈경험	-0.245	0.413	0.219**	0.046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준비	-0.163	0.634	-0.328*	0.054
4학년부터	0.498*	0.076	0.648***	0.000
4학년 이전부터	0.699**	0.030	0.838***	0.000
직장경험				
있음	-0.347**	0.046	-0.102	0.166
취업원서 횟수	-0.002	0.849	-0.001	0.393
면접횟수	-0.055*	0.095	0.003	0.618
혼인상태				
기혼	-0.534	0.134	0.221*	0.098
부모님동거				
동거	-1.051***	0.000	-0.604***	0.000
아버지학력	0.000	1.000	0.029	0.459
어머니학력	0.098	0.423	0.070	0.128
현재가구소득	0.297***	0.000	0.164***	0.000
<i>N</i>	2,264		6,205	
<i>-2LL</i>	1,405.649		5,768.203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 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부표 III-14> 첫 일자리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준비노력의 효과

(회귀분석)

구분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상 수	3.729***	0.000	3.270***	0.000
성 별				
남성	0.061	0.293	0.068*	0.070
연 령	0.034**	0.020	0.046***	0.000
대학지역				
서울	0.060	0.343	0.149***	0.000
수도권	0.065	0.128	0.055*	0.094
대학 평점	0.080*	0.077	0.050	0.132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0.089	0.140	0.204***	0.000
자연/공학계열	0.057	0.322	0.287***	0.000
교육/의학계열	0.078	0.266	0.256***	0.000
취업사교육				
있음	-0.053	0.289	0.002	0.933
어학연수				
있음	0.203**	0.014	0.066**	0.025
영어성적				
TOEIC 700점 이상	0.205*	0.094	0.086**	0.003
TOEIC 700점 미만	0.029	0.711	-0.062	0.103
자격증 개수	-0.006	0.549	0.006	0.410
직업훈련				
졸업 전 직훈경험	0.007	0.929	0.110**	0.012
졸업 후 직훈경험	0.160**	0.025	0.053	0.194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준비	-0.014	0.858	-0.021	0.682
4학년부터	0.088	0.182	0.105**	0.017
4학년 이전부터	0.073	0.364	0.101*	0.060
직장경험				
있음	-0.018	0.676	-0.022	0.402
취업원수 횟수	0.000	0.861	0.001	0.265
면접횟수	-0.007	0.146	0.002	0.479
혼인상태				
기혼	0.041	0.658	0.059	0.258
부모님동거				
동거	-0.168***	0.000	-0.098***	0.000
아버지학력	0.017	0.515	0.016	0.261
어머니학력	-0.079**	0.020	-0.007	0.657
현재가구소득	0.050***	0.000	0.032***	0.000
<i>N</i>	1,530		4,389	
<i>adj-R</i> ²	0.040		0.064	

주: * p<0.1, ** p<0.05, *** p<0.01.

주: 대학지역(기준: 지방대), 전공계열(기준: 예체능계열), 영어성적(기준: 영어성적 없음),

직업훈련(기준: 경험 없음), 취업준비(기준: 없음)

<부표 V-1> 유턴 폴리텍 대학생 FGI 분석결과

항목	FGI 내용
폴리텍 대학에 진학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 분야를 바꾸기 위해서 ◆ 10~20년 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려고 진학하게 되었음 ◆ 재정적인 부담이 적고, 신뢰성도 있어서 ◆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서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과 학과(계열, 학부) 선택요인	폴리텍 대학은 과를 보고 왔으며 해당과가 폴리텍 대학에 있어서 이 학교를 선택
폴리텍 대학 입학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경험 ◆ 장래전망 ◆ 교수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 본인이 하고 싶은 꿈 ◆ 경제적 문제
폴리텍 대학 수업방식에 대한 만족도	유턴학생들의 경우는 대체로 폴리텍 대학이 타이트하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 더 타이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유턴학생으로서 연령이 높은 점	유턴한 학생들은 연령이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생활에는 누님이나 형님처럼 대해서 불편하지 않음. 어린 학생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함.
유턴학생의 경우 학비와 생활비 해결방법	학비 부담은 없는 반면, 생활비는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전에 모아 놓은 돈을 아껴서 사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음
유턴학생의 학습 동기, 목표 의식에 대한 의견	유턴한 학생들의 경우 학습동기나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더 열심히 하는 편이었음.
유턴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	유턴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주변시선이었음. 취업을 못 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부담감을 어려운 점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꼽았음.
학교에서 유턴학생을 위한 배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유턴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나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었고, 업체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원할 경우만 유턴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차이는 있었음.
교과부, 노동부, 대학 당국에 바라는 점	유턴한 학생들을 위해 대출 한도를 높여 달라는 요구사항 굳이 유턴하지 않아도 되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학과 연계되는 기업체 증대, 폴리텍 대학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요구.

<부표 V-2> 폴리텍 교수 FGI 분석결과

항목	FGI 내용
폴리텍에 유턴 학생이 늘어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점 학력이 높아지고 ◆ 취업이 점점 더 어렵고 ◆ 4년제 대학학 중 인문/사회/어문계열의 경우 학문적이기는 해도 실질적이지 않아서 ◆ 이미 배운 학문에 전문적인 스킬을 플러스시켜서 융합형 인간이 되기 위해 ◆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인생을 재시작하고자 ◆ 경기가 나쁠 때는 취업이 어려워져서 늘어나는 추세임.
유턴 학생이 폴리텍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 전문적인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 ◆ 취업률을 높일 수 있어서 ◆ 취업스펙을 키울 수 있어서(크로스오버: 학력도 좋고 기술도 겸비해서 활용가치가 높아져서)
폴리텍 대학에 대한 만족도	유턴한 학생들은 폴리텍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음. 그 이유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했음.
폴리텍 대학의 수업과정	폴리텍 대학의 수업은 하루 8시간 수업으로 타이트한 편이었으며, 유턴학생의 경우 목표의식이 있어서 타이트한 수업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편임.
유턴 학생으로서 연령이 높은 점	유턴학생의 경우 연령대는 주간 보다는 야간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편이어서, 목표가 없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는 편이었으며, 누나나 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모범이 되고 있음.
유턴 학생의 생활비 해결방법	폴리텍 대학의 경우는 학기 중에 수업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기 힘든 상황이며,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편이었음. 일부는 부모님이 해결하기도 했으나 유턴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오는 편이었음.
유턴학생의 학습동기, 목표의식	유턴한 학생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학습동기가 명확한 편임.
유턴 학생으로서 창피하다고 느끼는지 여부	유턴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학교에 와서 창피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본 결과, 예전에는 폴리텍 대학을 나왔다고 이력서에 안 썼는데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당당한 편이라고 했음.
유턴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유턴 학생들은 나이가 많은데 공부하러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음.
유턴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여부	유턴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으나, 폴리텍 대학 전체적으로 소그룹 제도가 있어서 교수님 1명당 7~12명 정도를 맡아서 지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음.

<표 계속>

항목	FGI 내용
건의사항1: 크로스오버형 학생을 위한 인력풀을 만들어서 기업과 학교 매칭요망	크로스오버형 인재에 대한 풀을 만들어서 알맞은 기업과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음. 특히 폴리텍 대학은 나이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사원의 경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음.
건의사항2 : 학생들 인성교육 요망	폴리텍 대학의 경우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 학생들이 예절이 바른 편이기는 하나, 유턴으로 들어오는 고학력자들의 경우 매우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서 인성교육이 강 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음.
건의사항3 : 대출제도 도입	유턴학생으로 들어온 경우 가정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등록 금은 물론 생활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출제도를 도입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함.

<부표 V-3> 유턴 전문대학 대학생 FGI 분석결과

항 목	FGI 내용
전문대에 다니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잘하려고 다님.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질이 떨어져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대에 다시 다니는 중임. ◆ 4년제 대학 다닐 때 과에 대해 전혀 모르고 들어가서 졸업 후 진로가 막혀서 전문대에 재입학함. ◆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하면 4학년 때 진로에 대해 또 고민할 것 같아서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 선택함. ◆ 4년제 대학에서 어문계를 나왔는데, 직업이 한정적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전문대 다시 들어옴. ◆ 간호대는 이민가는 자격증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경우도 있음.
전문대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요인 ◆ 장학제도 ◆ 취업률이 높은 곳 ◆ 정원의 유턴학생 기회를 주는지 여부 ◆ 졸업한 동창들이 많은 곳
전문대 수업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 수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 편이었으나 부차적인 부분에서 불만족하는 점이 있었음. ◆ 만족한 이유: 4년제 대학에서는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은 능동적 자세를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결과가 보이니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서 ◆ 불만족한 점: 학교가 고등학교와 비슷함. 대학은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이 있는 곳인데 전문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임. ◆ 교양에 대해 안 가르치는 점. 선택과목이 없고, 9~6시까지 취업 하나만 쫓아간다는 느낌임.
유턴학생으로서 연령이 높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취업하는 시기에는 나이 많은 것이 단점임.
유턴학생으로서 학비와 생활비 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의지하기도 하고,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학비부담 때문에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했으며,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이었음.
유턴학생의 학습동기, 목표의식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턴학생은 진로가 정해졌으므로 고민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는 편이며, 일반학생은 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오는 경우가 있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편임. ◆ 즐기는 것을 자제하고 목표를 보고 매진하게 됨. ◆ 유턴학생이 더 성실하고 책임감이 높으나 체력이나 머리가 안 따라 주는 것 때문에 뒤처지는 경우도 있었음.
유턴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동안 돈과 시간을 허비했다는 좌절감 ◆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
유턴학생을 위한 배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p>유턴학생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음.</p>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제도의 경우 유턴학생과 일반학생으로 분리해서 주었으면 좋겠음. ◆ 실습자재가 부족한 편인데, 이에 대한 지원 필요함.

<부표 V-4> 전문대학 교수 FGI 분석결과

항목	FGI 내용
전문대에 진학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하기 위해서 ◆ 직업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 꿈을 찾아서(특히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 외국 가서 봉사하려고 ◆ 창업하기 위해서 ◆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 평생직업을 찾기 위해서
전문대 대학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가 높은 편임.
유턴학생으로서 연령이 높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턴학생이 연령이 높아서 어린학생을 이끌어주는 점은 좋으나, 안 어울리는 점은 좋지 않은 점임. ◆ 유턴학생들은 향후 진로선택에도 융통성이 있고, 더 큰 시야로 분야를 찾아가는 편임. ◆ 4년제 유턴학생이 전문대 학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음.
유턴학생으로서 생활비 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이 부담해 주는 편임. ◆ 국가고시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고시에 매진하도록 하는 편임.
유턴학생의 학습동기, 목표 의식	학습동기 및 목표의식은 뚜렷함.
유턴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여부	유턴학생을 위한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은 없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에서 이수한 과목은 추가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게 선호학과의 경우 너무 학교를 많이 개설해 주어서 문제가 됨(예: 간호과 파동). ◆ 유턴학생을 교육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생긴 사회 적 문제라고 본다면 학비를 일부라도 보조해 주었으면 함.

〈부표 VI-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등학교 선택에 미친 영향

변량	인문계고 (이과)	외국어고	과학고	예체능고	상업계고
여성	-1.067*** (36.21)	0.125 (0.98)	-1.162*** (3.84)	0.779*** (5.12)	0.948*** (18.53)
아버지의 교육	0.005 (1.33)	0.162*** (7.69)	0.121** (2.53)	0.101*** (4.77)	-0.162*** (24.72)
아버지의 교육 missing	0.139 (0.98)	2.081*** (3.18)	2.154* (1.79)	0.953 (1.24)	-1.297*** (7.04)
가계소득 200만 이하	0.026 (0.73)	0.175 (0.94)	0.426 (0.94)	0.018 (0.10)	-0.219*** (4.26)
가계소득 200~500만	-0.255*** (4.77)	0.586*** (2.74)	0.665 (1.26)	0.418* (1.95)	-0.556*** (6.22)
가계소득 missing	0.066 (0.41)	0.524 (0.86)	-42.358 ·	0.050 (0.07)	0.124 (0.56)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087 (1.64)	0.126 (0.74)	0.637* (1.70)	0.219 (1.22)	-0.227** (2.39)
상수	0.415 (7.47)	-6.038 (19.28)	-6.862 (9.79)	-5.643 (18.21)	0.004 (0.06)
관측치	26,544				
LR	6,561.90				

변량	공업계고	농업·수산 ·해양계고	기타고	검정고시	모름/무응 답
여성	-2.896*** (33.48)	-1.921*** (9.62)	-0.167 (0.85)	-0.433*** (3.30)	-0.556** (2.13)
아버지의 교육	-0.139*** (20.32)	-0.221*** (12.06)	-0.070*** (2.46)	-0.114*** (6.25)	-0.091** (2.47)
아버지의 교육 missing	-1.304*** (6.07)	-2.038*** (3.33)	-0.012 (0.02)	-1.234** (1.99)	-0.032 (0.04)
가계소득 200만 이하	-0.349*** (6.45)	-0.159 (1.05)	-0.824*** (4.00)	-0.147 (0.96)	0.218 (0.67)
가계소득 200~500만	-0.735*** (7.30)	-0.306 (1.08)	-1.627*** (3.38)	0.262 (1.23)	-0.073 (0.14)
가계소득 missing	0.102 (0.41)	-44.709 ·	0.249 (0.34)	-0.694 (0.68)	1.590** (2.06)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448*** (3.49)	-0.858* (1.68)	0.250 (0.70)	0.001 (0.01)	0.347 (0.78)
상수	1.131 (15.00)	-0.770 (4.25)	-3.076 (9.68)	-2.163 (10.37)	-4.000 (8.95)
관측치	26,544				
LR	6,561.90				

<부표 VI-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 선택에 미친 영향

변량	서울 사립대	경기 사립대	공립대	거점 국립대
여성	0.131*** (3.88)	-0.106*** (3.22)	-0.218** (2.30)	0.033 (0.64)
아버지의 교육	0.152*** (29.04)	0.051*** (10.91)	-0.010 (0.79)	0.037*** (4.87)
아버지의 교육 missing	1.710*** (11.01)	0.081 (0.49)	-0.216 (0.52)	0.172 (0.69)
가계소득 200만 이하				
가계소득 200~500만	0.314*** (7.11)	0.201*** (5.07)	-0.034 (0.33)	-0.205*** (3.48)
가계소득 500만 이상	0.759*** (12.49)	0.296*** (4.82)	-0.584*** (2.73)	-0.448*** (4.18)
가계소득 missing	-0.263 (1.32)	-0.286 (1.53)	-0.114 (0.25)	-0.511* (1.72)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082 (1.34)	0.129** (2.04)	0.338* (1.91)	0.073 (0.69)
상수	-2.841 (41.11)	-1.308 (22.69)	-2.837*** (19.34)	-2.106 (23.72)
관측치	26,544			
LR	2,279.64			

변량	주요 국립대	교육대	특목대	서울대
여성	-0.139** (1.98)	1.502*** (14.90)	0.279* (1.75)	-0.478** (2.54)
아버지의 교육	0.001 (0.19)	0.132*** (10.04)	0.109*** (4.47)	0.203*** (6.90)
아버지의 교육 missing	-0.083 (0.27)	1.686*** (4.73)	1.410** (2.15)	1.861* (1.73)
가계소득 200만 이하				
가계소득 200~500만	-0.330*** (4.40)	-0.079 (0.79)	-0.246 (1.35)	0.442* (1.72)
가계소득 500만 이상	-0.818*** (5.10)	-0.285* (1.83)	-0.568* (1.74)	0.371 (1.06)
가계소득 missing	-0.456 (1.23)	-0.315 (0.73)	0.602 (1.13)	-43.813 ·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0.031 (0.20)	0.452*** (3.61)	0.027 (0.09)	0.012 (0.04)
상수	-2.166 (19.83)	-5.296 (29.19)	-5.407 (17.72)	-7.071 (16.94)
관측치	26,544			
LR	2,279.64			

<부표 VI-3> 평균

변량	연도	
	Mean	
	06년	08년
취업사교육비 지출(100만 원)	40.9 (1.213)	
취업준비기간	3.4 (6.164)	
시험준비	33.7 (0.472)	
해외연수	15.2 (0.359)	
해외연수비(100만 원)	1.9 (6.124)	
아르바이트	69.1 (0.461)	
복수전공	22.0 (0.414)	
자격증수	1.3 (1.333)	
등록금 학생부담	74.0 (0.438)	
성적 하위권		
성적 중위권	44.7(0.497)	
성적 상위권	40.8(0.491)	
성적 최상위권	9.8 (0.297)	
대학 재학	18.0 (0.384)	3.0 (0.172)
근속년수	1.20 (1.878)	1.5 (2.337)
근속년수 missing	24.4 (0.429)	27.2 (0.445)
근속년수 ²	4.9 (0.336)	7.8 (35.916)
잠재경력	1.7 (0.213)	3.7 (0.213)
수도권 일자리	1.4 (0.546)	1.3 (0.507)
주 노동시간	45.9 (13.838)	45.1 (12.584)
기업종류 cap	45.4 (0.497)	43.2 (0.495)
4대 보험 일자리	55.2 (0.497)	58.0 (0.493)
전공 일치 여부	77.8 (0.415)	8.1 (0.413)
전공지식의 활용	70.9 (0.453)	55.7 (0.496)
자영업	3.8 (0.192)	4.3 (0.203)

<부표 VI-4> 계열별 차이 종합

대학의 수준	전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
	지방사립과 비교하여							
대학의 범주 경기 사립 공립대 거점 국립대 주요 국립대 특수목적대 서울대 등	서울대등. 서울사립. 교대, 서울공립. 경기사립. 거점국립 순으로 유의하게 높음	서울대등. 서울사립. 거점 및 주요국립 등이 유의하게 높음	서울대등. 서울사립. 거점국립. 경기사립 순으로 유의하게 높음	교육대. 서울대등. 서울사립 이 양년도 유의하게 높음 거점 및 주요국립 2006년만 유의하게 높음	서울대등. 서울사립. 서울공립. 경기사립. 거점국립 순으로 유의하게 높음.	서울공립. 서울사립. 경기사립 순으로 유의하게 높음 서울대등은 2006년도만 유의하게 높음.	서울사립 만 양년도 유의하게 높음. 경기사립 2006 년도만 유의하게 높음.	서울공립. 서울사립 만 양년도 유의하게 높음
성적	성적 하위권과 비교하여							
성적 중위권 성적 상위권 성적 최상위권	중위권 (06년만 한계 적으로 유의미) 상위권. 최상위권 유의미	상위권 최상위권 (2006년만)	상위권 최상위권 (양년도)	의미 없음	상위권 최상위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없음
복수전공	유의미	유의미	유의미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유의미함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자격증수	의미 없음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08년)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08년)	의미 없음	의미 없음	08년만 유의미
취업 준비기간	유의미	의미 없음	유의미 (08년만)	유의미 (06년도만)	의미 없음	유의미 (08년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취업 사교육비 지출 (100만 원)	유의미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유의미 (08년만)	유의미 (06년만)	유의미 (06년만)	유의미 (08년만)	의미 없음
시험준비	부(-)의 유의미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양(+) 의미	부(-)의 유의미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08년만)	부(-)의 유의미
해외연수	유의미	의미 없음	유의미	의미 없음	유의미	의미 없음	유의미 (08년만)	의미 없음
해외 연수비 (100만 원)	유의미	유의미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아르바이트	부(-)의 유의미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08년)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06년)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등록금 학생부담	부(-)의 유의미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08년)	의미 없음	부(-)의 유의미 (06년)	의미없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0).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직업훈련 밀착지원 보도자료」. _____(각년도). 『매월노동통계』, 각년도
- 교육과학기술부(2010). 대학정보공시, 대학별 취업률 등 36개 항목 공시, 2010.9.30.
_____. 「2010년 미취업 대졸생 지원 프로그램 사업」.
_____.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_____(2009). 「2009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강순희(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학회 2010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_____. 박성재 (2002).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 강혜영·유현실(2007). 「한국폴리텍대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전략 활용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0권 제1호, 77~98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곽윤숙(2002).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와 전공선택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제40권 제1호, 287~310쪽.
- 권순태(2008). 「한국 폴리텍 대학 학생들을 위한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일(2004).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한국경제 구조 변화와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 김안국·강순희(2002).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1~25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

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83~107쪽, 중앙고용정보원.

김은지(2010). 「한국폴리텍 대학 공과계열 실습수업에서 블렌디드 러닝 적용효과 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영·전용석(2004).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고용정보원.

김형만·장원섭·김소영·장서영(2007). 『대졸 청년층 직장생활 적응능력 향상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동부. 「대졸미취업자들의 폴리텍 대학 재입학 현상」, 내부 자료

동아일보(2004). “대졸학력 무슨 소용 전문대-직업학교 재입학 취업용 학력 U턴 슬픈 20대”, 2004년 1월 26일자.

박선자·김득성·문소정·이은엽·정영숙(2000). 「여대생 취업을 위한 국내 대학정책 프로그램의 비교」, 『여성학연구』, 제10권 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9~50쪽, 한국인구학회.

박원식(2008). “허병기 한국폴리텍 대학 이사장: 기술교육 통해 인재양성 최선: 기존 24개 기능대와 21개 직업전문학교 한데 묶은 대책대학”, 『주간한국』. 통권2248호 (2008. 11. 18), 62~63쪽. 한국일보사.

박은희(2008). 「전문대학 재입학생의 재입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87~115쪽, 한국평생교육학회.

박진영(2008). 「대학 취업지도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정현·김선호·김은영(2009). 『전문대학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부산인적자원개발원(2009). 『통계로 본 HRD 동향 및 해설-지역별 대학 졸업생 미취업 현황』, Busan HRD Revies, 2:5, 2009. 9~10.

- 오호영(2010).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공공부문 채용제도 영향분석」,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엄준철(2006). “평생직장 위한 평생교육기관”, 『(월간)노동』, 제40권 제6호 통권376호(2006. 6).
- 윤진호·오학수·은수미(2008). 『비 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Ⅱ)』, 한국노동연구원.
- 이동임·김덕기(2001).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18쪽,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4).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제4권 제4호, 1~20쪽,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노동경제논집』, 제4권, 1~28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_____. 김주섭·박성재·류장수(2004). 『자격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김주섭·안주엽·정진호·남기곤·류장수·장수명·최강식(2005).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준(2006).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9권 제2호, 145~169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_____(2010). 「인턴제가 청년층 취업과 임금 그리고 일자리 특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2010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경제학회.
- _____. 김미란(2008). 『인턴제 근로자의 노동시장 효과 연구-비정규직 근로형태로서의 인턴제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2010). 「고등교육의 질보장체제 정립과 대학 구조조정」, 『제5차 안민 교육개혁 세미나』.
- 이영대(2010). “청년구직자를 위한 취업 스크랩”, 『이코노믹북스』
- ____·윤형한(2007).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구(2007). 「진로상담교수제가 재학생들의 학습·취업 역량과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3호, 대한경영학회.
- 이현주(2002). 「대학교육단계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연구」, 『교육학연구』, 제40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 임정연·이영민(2008). 「4년제 대학 이공계 전공 여학생의 직업 준비과정이 이행결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2호, 25~47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선미·손유미(2008).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1~21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시교육청(2010). 『대졸미취업자를 대상 행정인턴』
- 선의영(2009). 「특수전문계 대학생의 취업욕구가 취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학사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박사학위논문.
- 장석민(2006). 「한국폴리텍 대학의 발전 및 운영방향」, 『(월간)노동』, 제40권 제6호 통권376호(2006. 6), 24~26쪽.
- 장수명(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47~79쪽, 한국노동연구원.
- 장원섭·김철희(2001). 『4년제 대학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으로의 재입학 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지현(2006). 『대졸자의 노동시장성공에 대한 구직정보 획득경로 비교 연구: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전병유·이상일(2003).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 파악 및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주연·장수연·최영섭(2006). 『대학생 기업 현장실습의 구조와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임언·손유미·정윤경·윤형한·김나라·민무숙·신선미·김동민·이제경·이현경(2003). 『개인진단 및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학생지도체제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외(2009). 「국내 대학의 진로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학회지』.
- 최영섭(2003). 「대학 이상 졸업자의 계열별 기대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2호, 97~127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_____(2003).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경제』.
- 채창균(2003). 「대학생의 재학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직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169~184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05).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청년층 취업률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 8호, 93~117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_____. 장흥근·오은진·이병희·이주호·이만희(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김미숙·김안국·옥준필·김미란(2004).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Ⅰ)-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최지희·김안국·오호영·옥준필(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최영섭·오호영·김승보·옥준필·정재호(2006).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오호영·정재호·김기현·남기곤(2008). 『유휴청년 연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_____.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도.
- 통계청(2010). 『인구추계』.
- _____.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통계청(2010).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0년 5월
- _____(2010).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도』.
- 한국고용정보원(201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한국금융연수원(2010). 『대졸미취업자들을 대상 무료교육』.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0).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한국청소년패널』
- 행정안전부(2008). 『행정안전통계연보』.
- YTN(2004). 취업난 극복 실속과 대졸자들, 2004. V1. V22.

- Acemoglu, D.(2002). "Technical Change, Inequality, and The Labor
Marke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0, pp. 7~72.
- Ashenfelter, O.(1978). "Estimating the Effect of Training Programs on
Earning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3, pp. 47~57.
- Becker, G. S.(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 Porath, Yoram (1967), "The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e Cycle of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5
No.4, pp. 352~365.
- Blanchflower, D. G. and R. B. Freeman(2000), *Youth Un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Chicago Press.

- Bloom, H. S., Orr, L., Cave, G., Bell, S. H. B., Doolittle, F., and Lin, W.(1994). *The National JTPA Study Overview: Impacts, Benefits, and Costs of Title II-A Abt*, Associates.
- Claude, M., Kathy, C. & Mahseredjian S.(1997). "How Do Young People Choose College Majors?". *Cirano Papers*, Vol.38.
- Crouch, K. A.(1992).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0, pp. 380~388.
- Dale, S. B. & Krueger, A. B.(2002). "Estimating The Payoff To Attending A More Selective College: An Application Of Selection On Observables And Unobservabl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Vol.117 No.4, pp. 1491~1527.
- Eide, E. R. & Ronan, N.(2001). "Is participation in high school athletics an investment or a consumption good?: Evidence from high school and beyond,"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Elsevier, Vol.20 No.5, pp. 431~442.
- Jencks, C., & Torrey, B. B.(1988), "Beyond Income and Poverty: Trends in Social Welfare Among Children and the Elderly Since 1960," in John Palmer, Timothy Smeeding and Barbara Torrey, eds. *The Vulnerable*, Urban Institute Press.
- Katz, L. F. & Murphy, K. M.(1992).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 ~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Vol.107 No.1, pp. 35~78.
- _____, & Autor, D. H.,(1999).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dition 1, Vol.3, chapter 26, pp. 1463~1555.
- Kelly, E., O'Connell, P. J. & Smyth, E.(2010). "The economic returns to

field of study and competencies among higher education graduates in Ireland,"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Elsevier, Vol.29 No.4, pp. 650~657

Lalonde, R. J.(1995). "The Promise of Public Sector-Sponsored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2, pp. 149~168.

_____ (2000). "Measuring Returns to Post-secondary Schooling". Unpublished paper.

Leigh, D.(1995). *Assisting Workers Displaced by Structural Chang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Lemieux, T.(2006). "Postsecondary Education and Increasing Wag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96 No.2, pp. 195~199.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rs(2010) NACE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Perry, C., Anderson, B., Rowan, R. & Northrup, Ht.(1976). *The Impact of Government Manpower Program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Quintini, G., Martin, J. P. & Martin, S.(2007). "The Changing Nature of the School-to-Work Transition Process in OECD Countries," *IZA Discussion Papers 2582*,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Ryan, P.(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IX.

Spence, A M.(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Vol.87, No.3, pp. 355~74

Stern & Wagner

- Stern, D. & Wagner, D. A.(1999).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Cresskill, NJ: Hampton Press.
- Tchiboza, G.(2007). "Extra-Curricular Activity and the Transition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 A Survey of Graduates in the United Kingdom", *Higher Education Quarterly*, Vol.61 No.1, pp. 37~56.
- Thomas, S. L.(2000). "Deferred Costs and Economic Returns to College Major, Quality, and Performanc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41, No.1.
- _____.(2003), "Longer-Term Economic Effects of College Selectivity and Control",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44, No.3.
- _____. and Liang Zhang(2005). "Post-Baccalaureate Wage Growth within 4 Years of Graduation: The Effects of College Quality and College Major".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46, No.4.
- Ware, N. C., Steckler, N. A., & Leserman, J. (1985). "Undergraduate women: Who chooses a science major?",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56, No.1, pp. 73~84.
- Wolbers, H. J.(2003). "Job mismatches and their labour-market effects among school-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19 No.3, pp. 249~266.

■ 저자 약력

- 김안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유한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한상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이영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장수명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10년 11월 29일 인쇄
2010년 11월 30일 발행 |
| · 발행인 | 권대봉 |
| · 발행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 · 인쇄처 | 범신사 (02)503-8737 |
| · 등록일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록번호 | 제16-1681호 |
| · I S B N | 978-89-6355-129-6 9332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8,000원〉